2003
제12회 졸업 특집
월드미션 헤럴드
World Mission University
World Mission University & Theological Seminary
www.wmu.edu

목차

1 들어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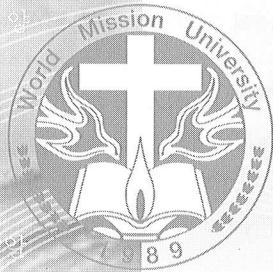
2 교수논단

3 학생논단

4 광고

발행인 임동선
편집인 남종성
디자인 남윤철
편집위원 박재민, 이신재
발행일 2003년 6월 1일
발행처 월드미션대학교. 신학대학원
World Mission University & Theological Seminary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전화 213-384-2345. 팩스 213-387-1300
E-mail:info@wmu.edu. Website:www.wmu.edu

목회자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자가 되는 길임을 저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가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자는 착해야 합니다. 선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러나 착하고 선한 것만으로는 목자의 사명을 완수할 수 없습니다. 목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식과 명철이 있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목자는 지식과 명철로 양을 양육해야 합니다. 목양을 잘 하기 위해서는 지식과 명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알 [illegible] 되는 말씀을 알 [illegible] 을 잘 알아야 합니다. 또한 양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양을 이리와 늑대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강인함도 있어야 합니다. 양을 깨우치고, 양을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목자가 먼저 깨달아야 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목자는 평생학습자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월드미션대학을 졸업하는 분들이 모두 목회자의 길을 걷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사역자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평신도 목자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런면에서 우리는 모두 평생학습자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1 들어가기

인간의 삶과 문화와
역사의 흐름과 시대의 종국을
바로 파악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끝임 없는 학습을 통한
지속적인 자기 성장이 필요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한
용기와 희생을
각오해야 합니다.

총장 임동선 박사

시대를 읽는 안목과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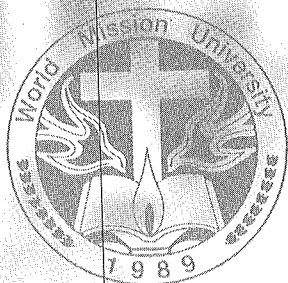
끝임 없는 학습을 통한 지속적인 자기 성장이 필요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한 용기와 희생을 각오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 급변하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혼탁한 시대, 불확실한 시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치관이 변하고 있고 절대의 진리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은 인터넷의 영향권아래 사이버세계에서 또 다른 삶의 문화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속도라는 개념이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개인, 가정, 사회가 급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졸업생들은 이전보다 더욱 시대를 바르게 읽을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삶과 문화와 역사의 흐름과 시대의 종국을 바로 파악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끝임 없는 학습을 통한 지속적인 자기 성장이 필요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한 용기와 희생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변화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오늘도 개인, 가정, 사회, 인류를 구원하는 길은 지식, 철학, 경제, 정치, 과학, 군사력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뿐입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전1:18)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고전2:2)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화해도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더욱 굳건하게 잡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인도해 나가야 할 시대의 지도자들입니다. 복음의 전문가가 되고 그리고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시대의 지도력이 있어야 합니다. 졸업 후에도 지성, 인격, 영성을 계속해서 가꾸어 가시고, 무엇보다도 성령이 충만함으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깨끗하고도 희생적인 선한 목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구촌에 다니며 더 많은 영혼을 건지고 예수의 제자들을 만들어 세계를 복음화하는 충성된 일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20의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니라"는 말씀과 빌4:13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영적전투에서 늘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니콜라이 예피신 목사 명예 목회학박사 학위기

예피신 목사는 러시아의 모범적인 교회 지도자이다. 러시아에서 복음의 등불역할을 하고 있다.

본 대학교 제12회 학위수여식에 즈음하여 니콜라이 예피신 목사에게 명예 목회학박사 학위를 수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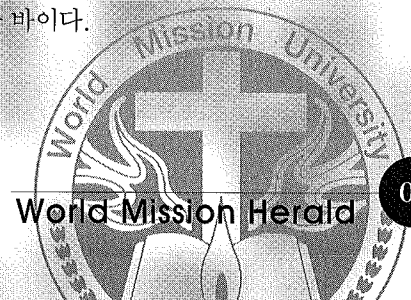
예피신 목사는 1944년 11월 11일 러시아의 꼬마니치 마을에서 침례교회 교구담당인 티코노비치 예피신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교육열이 높은 부모의 관심아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63년에는 기술학교를 마치고, 전선을 연결하는 기술자가 되었다. 1964에서 1966년까지는 우크라이나의 브로디라는 지역에서 군복무를 하고 모스크바에 다시 돌아와서 한 건축회사의 전기기술자로서 일을 하였다. 1970년에는 라디오 전기기술학교를 마치고 연구기관에서 일을 하기도 하였다. 1973년에는 올가 자브로드스카야(Olga Phillipovna Zablodskaya)와 결혼을 하였다.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모범을 보였다. 1966년에 모스크바에 있는 중앙 침례교회의 청년부에서 지도자로서 사역을 감당하였다. 이때부터 많은 핍박이 있었다. 그래서 비밀리에 사역을 하기고 하였다. 급기야 1968에서 1983년까지 KGB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고, 수 차례 모스크바에서 추방당하기고 하고, 직장을 잃기도 하였다. 많은 심사기관으로부터 심문을 받고 어려움을 겪었다. 이때마다 침례교 연합회가 정부에 공식서한을 보내줌으로 그의 권리를 변호해 주고 방어해 주었다.

1986년에 목사안수를 받고, 1994년에는 모스크바 서부지역 교회의 주교로 선출되어 귀중한 사역을 감당하였다. 1987년에는 출판사를 설립하여 "프로테스탄트"라는 신문을 발간하였다. 이 신문은 침례교 연합회의 공식 문서가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100만부 이상을 인쇄하는 영향력있는 신문이 되었다.

1994년에서 1997년까지 한국선교사가 세운 장로교 신학교에서 목회학 및 군목의 역할 등을 공부하고 학사학위를 받았다. 1998년에는 새로운 신문인 "블라고베스트닉"(Sender of the Good News)을 발간하여 새로운 영향력을 주고 있다. 2000년에는 "블라고베셰니예"(Blagovesheniye)라는 교회를 설립하여 자선사역, 미래의 지도자들을 위한 청소년 교실, 선교센터, 어린이와 어른들을 위한 교회교육 등의 중요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다.

본교는 박사학위 수여 규정에 따라 교수단의 추천과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니콜라이 예피신 목사에게 명예 목회학 박사학위를 수여하는 바이다.

2003년 6월 1일
월드미션대학교 총장 임동선 박사

부총장 강준민 목사

평생학습자의 길을 걸으십시오

역사를 움직였던 탁월한 지도자, 훌륭한 목회자들은 한결같이 평생학습자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평생학습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성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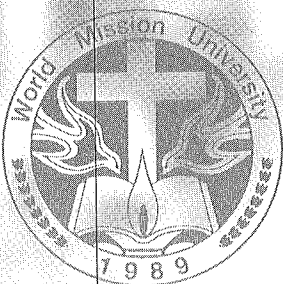
졸업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월드미션대학을 졸업했다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도전을 의미합니다. 대학생활은 어떤 면에서 뼈대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집을 세우기 위한 골격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릇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면에서 대학을 졸업한다는 것은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튼튼한 뼈대위에 살을 입히는 작업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골격위에 아름다운 집을 만들어가고, 준비된 그릇에 하나님의 사역을 채우는 일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1981년에 서울신학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제가 목회사역을 시작한지도 22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시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선택한 목회자의 길에 대해 한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역경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이 없습니다. 부족한 종을 선택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인생을 살았고, 일군 삼아 주신 것만으로도 감격하며 살아 왔습니다. 잘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요, 잘못된 것은 저의 실수임을 인정하며 살고 있습니다.

목회자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자가 되는 길임을 저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가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자는 착해야 합니다. 선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러나 착하고 선한 것만으로 목자의 사명을 완수할 수 없습니다. 목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식과 명철이 있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고 말씀합니다.

목자는 지식과 명철로 양을 양육해야 합니다. 목양을 잘 하기 위해서는 지식과 명철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양의 꼴이 되는 말씀을 알고, 또한 양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인간을 잘 알아야 합니다. 또한 양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양을 이리와 늑대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강인함도 있어야 합니다. 양을 깨우치고, 양을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목자가 먼저 깨달아야 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목자는 평생학습자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월드미션대학을 졸업하는 분들이 모두 목회자의 길을 걷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사역자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평신도 목자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런면에서 우리는 모두 평생학습자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평생학습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자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알고, 자신의 기질을 알고, 자신의 열정과 스타일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안에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 할 수 있는 가를 알아야 합니다. 자신안에 있는 재능과 은사를 알고, 그것을 개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작은 것에서 시작해서 큰 것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삶의 기술을 터득해야 합니다.

평생학습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배움을 사랑해야 합니다. 배움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은 겸손에 있습니다. 겸손이란 부족함을 늘 인정하는 것입니다. 겸손이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겸손이란 모든 사람에게서 배우고, 모든 환경에서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부족을 느끼는 사람만이 배울 수 있고, 자신의 부족을 느끼는 사람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배움의 가장 무서운 적은 자기 만족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 존재에 대해 자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일에 있어서는 늘 부족함을 느껴야 합니다.

평생학습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좋은 스승을 만나야 합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따라가야 할 스승을 찾는 것입니다. 본 받아야 할 선생님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유일한 스승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십니다. 또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스승을 만나야 합니다. 존경하고 흠모할만한 스승을 가슴에 품고 산다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그 스승을 자주 만날 수 없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슴 속에 존경하고 본받고 싶은 삶을 살고 있는 스승을 발견한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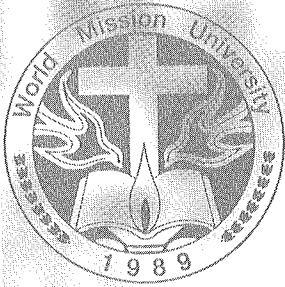
어떤 사람은 존경할만한 스승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교만한 생각입니다. 비참한 생각입니다. 존경할만한 스승은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모두 한 발자국만 앞서가고 있는 사람을 만났다면 그는 우리의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서 우리 모두 한 발자국만 앞서가는 사람을 만났다면 그는 우리의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스승의 발자취를 따라 가는 중에 우리도 어느날 우리를 따라 오는 제자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평생학습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학습법을 터득해야 합니다. 학습은 열정만 가지고 안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기술이 필요합니다. 운전하는 데 기술이 필요하듯이 학습하는 데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기술은 연마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습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학습의 기술은 다양합니다. 또한 학습 기술은 사람마다 다양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기질과 스타일에 맞는 학습 기술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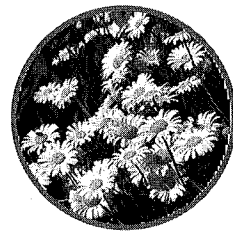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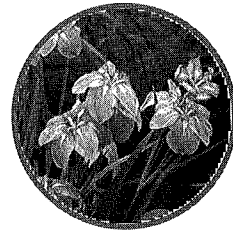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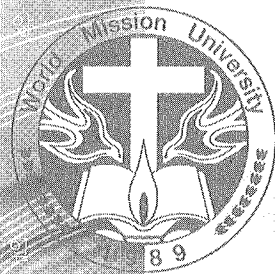
학습법을 터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학습법에 관한 책들을 읽으십시오. 훌륭한 분들의 전기와 자서전을 읽으면서 그들이 어떻게 학습했는가를 배우십시오. 학습이란 꼭 책을 통해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남을 통해, 자연을 관찰함으로, 묵상과 명상, 그리고 자아성찰을 통해 탁월한 학습에 이를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 경험을 통해 가장 중요한 학습의 원리는 집중하는 것입니다. 집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가장 중요한 학습 기술입니다. 산만한 생각을 집중하는 생각으로 전환하고, 산만한 마음을 정돈해서 집중된 에너지로 학습에 임하는 기술을 터득해야 합니다. 집중하는 기술은 훈련을 통해 가능합니다. 제 경험으로는 노력하지 않아서 문제이지, 하나님의 도우심속에서 뜻을 정하고 노력하면 이루지 못할 경지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것을 시도했다고 해서 많은 것을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몇가지 일이라도 집중할 때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다 마스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한 두가지에 집중하십시오. 모든 것을 알려고 노력하되 그 모든 것을 한 두가지에 집중하십시오. 그때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되면 유용한 존재가 됩니다. 시대와 환경을 초월해서 존귀한 존재가 되게 됩니다.

평생학습자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철저한 자기 관리가 필요합니다. 자기 관리는 마음관리를 의미합니다. 자기 관리는 절제를 의미합니다. 자기 훈련을 의미합니다. 잘못된

습관이나 죄악에 탐닉한 사람은 큰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기 관리는 시간관리를 의미합니다. 시간처럼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시간관리는 인생관리입니다. 시간관리는 미래관리입니다. 모든 자원은 축적될 수 있지만 시간자원만큼은 축적될 수 없습니다.

시간관리를 잘 하십시오. 우선순위를 정하고, 가장 소중한 시간을 우선순위에 사용하십시오. 새벽을 깨우도록 하십시오. 새벽 시간을 관리하지 못한 사람은 시간 관리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를 얻으셨습니다. 사명을 확인하시고, 목적지향적인 삶을 사시기 위해 삶을 조율하셨습니다.

역사를 움직였던 탁월한 지도자, 훌륭한 목회자들은 한결같이 평생학습자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평생학습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성숙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원숙함의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받게 됩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쓰임받게 됩니다. 노년에도 늘 푸른 인생으로 살게 됩니다. 평생학습자가 되어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졸업생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수논단

신학적 지식습득,
성서적 가치관형성,
영성 개발,
선교에 대한 헌신과 이해,
평신도들과 전문 목사들을 위한
목회 기술습득,
지적 숙련과 같은
구체적인 목표를 추구하며
그 결과를 평가한다.

Rev. Dr. John McKenna (본교 부총장)

The Theology of the Word of God

He is as the Word of God with and for us in the world!

In 1936, Karl Barths concept of the threefold form of the Word of God was introduced to English readers. In 1983, Bernard Ramm, professor of theology at the American Baptist Seminary, wrote a book entitled *After Fundamentalism.* He argued that all evangelicals, five point Calvinists, five point Arminians, and even seven point Dispensationalists would benefit from learning Barths theological method. In 1987, I was Professor Geoffrey Bromileys, the general editor along with Professor Thomas F. Torrance of Barths *Church Dogmatics*, final Ph.D. student at Fuller Theological Seminary. When he explained to me then that Professor Torrance and he had failed in their efforts to get the American Church to read Barth, I promised him then that I would do what I could to continue their efforts. Today, I believe more than ever, that properly understood Karl Barths dynamic concept of the Word of God could, by the Grace of God, refresh and revitalize the congregations of the Church of Jesus Christ in our United States.

I believe that Karl Barths concept of the Word of God belongs to a history of the orthodox Church of Jesus Christ that, today, when the foundations of the Churchs proclamation and teaching of the Gospel and her knowledge of God have been so evidently shaken, needs to be appreciated more than ever. I believe we need to seek the fruits of the hearing of this Word with and for us in our time and for our world. As we face these uncertain times, that can easily empty our lives of all meaning, we need to hear a *Logos* that unfailingly gives us to see the real significance to our lives as the Church of Jesus Christ. We need to be able to tell ourselves what God has told us and what we cannot tell ourselves without His Word.

The three forms of Barths concept of the Word of God may be stated as follows:

I. The Word of God is first of all and preeminently the Person of the Lord Jesus Christ.

II. The Word of God appears in written form as the Holy Scriptures of the People of God, the Bible of the Old and New Testam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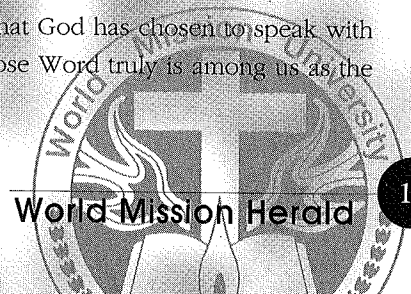
III. The Word of God is also the proclamation of the Church of Jesus Christ, the Gospel that is the Revelation of His Father by the Spirit of God.

He argues that we are obliged to understand these three different very forms of the Word as a dynamic unity that is bound up with the Being of God Himself. The

particular forms of the Life of this *Logos* belong to the Life of the One Word of the Revelation of God Himself. For Barth, the three forms of this *Logos* are doubtlessly a reflection of the triune Nature and Being of the One True and Living God, the Creator and Redeemer who has revealed Himself to us in Jesus Christ (K. Barth, CD, I. 1, pp. 88-124). As such, his three-in-one concept of this *Logos* confronts us with a reality the intelligibility of which may only be grasped within the divine-human relations inherent in knowing God in His Self-Revelation for us in the world.

Thus, we say that only the speaking of God can reveal God. The Word of God comes to us in His divine freedom to speak with us and to make Himself known in this world, His Creation from Beginning to End. He is as such Himself the Lord God who comes personally and finally as a man among us for our sakes to speak His Word to us. It is the light and life of the Being of this Word that gives us to know Him for who He truly is. When we know God, if we do know God, we know Him in this way that He has taken with His divine freedom.

The written form of His Word, inseparable from His Being then, speaks in this same divine freedom to enable us to understand the Scriptures as Holy Scriptures.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literature of these Scriptures into its canonical forms bears witness to the majestic truth and eternal reality that He is in His divine freedom. The canonical truth of the Bible is witness to the Being of His *Logos* in this freedom. The Word of God with the life of the Church in the world has created His own witness in His own freedom. It is along with this witness that the Church is created and commissioned. With the truth of this witness, the Lord God has in His divine freedom established His apostolic and prophetic dialogue between Himself and His People. It is with the truth of this witness that the Bible possesses its divine and absolute and free authority. It is in the truth of this Word of God that we, as the Church, are to understand the authority the Lord God exercises over and within His Church in the world. With the authority of this truth, Gods People are made to hear His Word in His divine freedom as our Redeemer and Creator, His freedom to be with us as He truly is in His Creation. The Bible thus effectively teaches the Church of Jesus Christ the very *Logos* of God Himself.

This *Logos* of God, come as a man within the structures of the created reality of the world, is the chosen way the Lord God has taken with Himself for fulfilling His sacred and covenanted promises His People, to Israel. The dynamic character of His dialogue between His People and His *Logos*, with its command and promise, warnings and threats, would shape the substance of this Peoples hearing in their history of the world with the Word of His Being. They are listeners being formed to proclaim His very Word , the Divine Word become human in order to speak with Israel and the Church in the history of the world. As this People and this Church then, we proclaim HisWord or *Logos* in a humanity who is none other than the Lord God Himself. The humanity of the Lord God, who is the Redeemer and Creator of all space and time, all matter all mankind, is the way that God has chosen to speak with us, even today. We preach then this One God whose Word truly is among us as the One Revelation of God in the world.

This Word or *Logos* comes to be with us and for us in this world then as fully man, the man Jesus of Nazareth. He is as such the Christ of Israels prophetic hope. He is the Christ of the God who spoke in the Beginning the heavens and the earth into existence. He is the Christ of the Lord who spoke to Abraham and then to Abrahams sons as the ancestors of Israels faith. He is the Great I-AM of the Voice in the Burning Bush of Moses ministry. He is King Davids Lord and God. He is the Messiah of the One who spoke through Israels prophets. He is the Christ of the One who spoke through the Apostles of the Church, and He is the One who speaks through the Bible with us today. As this One, He is the Savior of the human race, the Creator of the heavens and the earth, and the One whose hands control the destiny of all things with Himself. He promises in this way to continue to speak to us until all things have been made His New Creation. It is this New Creation that the *Logos* champions throughout our times.

When the Church began to proclaim in the ancient world the speaking of this *Logos*, she found herself on an attack. This *Logos* attacked the very foundations of knowledge and religion that prevailed then throughout the Graeco-Roman Empire. The Gospel of God in the form of the Person of the Lord Jesus Christ in the cosmos questioned the way human thought had learned to carve up reality itself. Through Israels Royal Prophets, Priests, and Sages, the Church was given to hear a Word that, deeply rooted in the Eternal Being and Holy Love of this eloquent God, denied the many gods of the many views of the world that had captured the imaginations of the ancient peoples. A new way of thinking about God and Man in this world sought to be established. The Church was not readily heard then and was not easily able to root herself in the Roman Empire.

We do not have time to explore this great confrontation. Its evident effect upon the development of our modern civilization is however easily acknowledged. Suffice it to say here that the confession of the Word of the Lord and God of Israels history in the world and His *Logos* in the form of Jesus Christ creates with the apostolic ministry of the Church new ears and new eyes for apprehending the worlds reality. It sought for a new hearing and a new seeing that only this *Logos* could create with the human race. It was with these eyes and these ears with this *Logos* that the Lord God had committed Himself to keep the sacred and covenanted promise He had made with His People. This Word of God become flesh, then resurrected from the grave after His death on His cross, now faced the world with the Life of the Creator and Redeemer Himself in an entirely new form and content. Rational Greek thought saw and heard this *Logos* as folly. Judaism despised this claim of the Word of God upon His People as blasphemy. But the Church heard this *Logos* as the Majestic Truth and Eternal Life of the Lord God Himself speaking as a man in the world for the salvation of all mankind.

Surrounded by Gods enemies, the Churchs proclamation experienced on her left and on her right then an intense opposition to her preaching of His Gospels Truth. At times, this opposition could become brutal, sometimes even bloody. I believe it is fair to say that the Churchs life in the world became established in spite of Gods enemies and their opposition to Him. Only because of His triumphant powers divine

authority and freedom to make Himself present within His Church in the world and within her mission with His *Logos* to the world may we understand the Churchs subsistence in the face of the great opposition she faced. It is this very power and freedom that allowed the Church to root herself in the grounds of Ancient Empire.

In this ground, the Church grew steadily and then even flourished. Her faith in the *Logos* of her Lord and God gained for her a very certain place and time in world history. Since the Resurrection of this *Logos of God*, the history of civilization has been shaped and formed under a compelling reality that is neither myth nor brute fact, but the power and presence of a Grace whose significance only God Himself can minister with His Church in the world.

But this *Logos* could and did point by this Grace to a whole new science of the Creators relationship with the world as His creation, where empirical and theoretical aspects of world reality could seek for a new actualities and a real marriage between Humanity, the Cosmos, and their God. It is the power and presence of this newness that commands us, I believe, even to this day. It is under the compelling reality of this new beginning that God has made in Christ that gives mankind and the creation a meaning and significance able to follow Him who is its destiny. It is under the reality of this New Creation that all mankind ever since has had to learn that it moves and has its being and the freedom to seek to understand in His Grace a world whose very nature belongs to its Redeemer and Creator.

I had the privilege in 1987 of writing a Ph.D. dissertation of the Alexandrian Grammarian, John Philoponos (See my The Setting in Life of The Arbiter by John Philoponus , Wipf & Stock, 1999). In that study, I learned much about of the details of this confrontation between the Church and world-empire, between human thought about the Churchs Gospel and the philosophies of our times. This work allowed me to argue that the Anathema of John Philoponos in AD 680, a hundred years after his lifetime, was a tragic mistake in the history of human thought. I believe I compare the mistake to what which was made with Galileo in AD 1623. Because of this Anathema of the work of John Philoponos, the marriage between the Ptolemaic Cosmology of the Graeco-Roman Empire and Christian Theology proceed without great objection on into the Middle Ages. Its consummation was celebrated with the works of the great Dante and the *Summa* of Aquinas, a development that was not questioned until the work of Copernicus was published at his death in AD 1543. It is interesting to observe that, when he wrote his Genesis commentary in 1563, John Calvin sided with Rome against the mounting weight of evidence Galileo would develop into a new world system. In fact, both Calvin and Martin Luther (1539) thought that Copernicus was a fool. It was not until Sir Isaac Newton in AD 1687 published his *Principia* that the popular imagination could become compelled to give up the beauty, order, and power of this marriage. I argued that, if Philoponos had been embraced instead of condemned, the marriage would never have occurred in the way that it did. I viewed this marriage then as an attempt to reduce upwards the struggle to make theory and experience correspond in our world to Gods Word, with an abstract essentialism from which we have not yet fully recovered.

After Sir Isaac Newtons *System of the World*, just the opposite kind of reductionism set in. With his mechanical description of the nature of the law of gravity controlling both the heavens and the earth, a determinism was seen to embrace with cause and effect relations the popular about all motion in the world. The struggle to match theory with experience fell into a conclusion we may very well call instrumentalism, a marriage that tended to suffocate human imagination in machinations devoid of any significant appreciation of the meaningful freedom of the human will. Deism develops and the clock-work image of the creation is pictured everywhere. God can be with us, but only to watch what He Himself has set into motion in the Beginning. He must obey the law of the heavens and the earth just as much as the the universe must obey it. He was not free to interact with it without breaking this law. The 19th and even 20th century theologies are created for the most part under the power of the mechanical universe and its Creator, a power I understand was broken with the transformations we experienced with Albert Einstein and his General Relativity and Gravitational Theory. But we must not that much modern theology retains many of the Newtonian assumptions about the world and his G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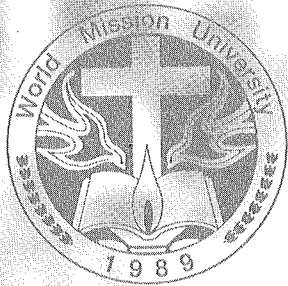
But with Einsteins development of the works of Michael Faraday and James Clerk Maxwell (1854), the development of Special and General Relativity (1905, 1915), we are free to be able to leave behind us the strict determinism of the Newtonian World-System and its Deism. Today, our scientists seek to explain the visible dimensions of the whole of the universe by invisible structures of a space and time and matter that is stranger than any philosopher had ever dreamed of in his or her imagination. To explain this world now requires that we penetrate into the depths of cosmological consideration and systems of fundamental particles with challenges human thought anew with String Theories, Black Hole Theories, Gravitaitonal Waves even from an original Hot Big Bang, Exotic and Dark Matter, and fundamental particles of indeterministic motions, forces and relationships. The nature of the world in which we have our being is quite beyond our grasp indeed. Theology in the 21st century must surely take into consideration these efforts of our scientific culture and bring to bear the significance of the *Logos of God* and His Incarnation, Death, and Resurrection with world.

The point I wish to make here is that the marriages between the Gospel of God in Christ and the Ptolemaic Cosmology and the Gospel and the Newtonian System of the World needed to be dissolved and resolved anew with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real nature of a world that is, we believe, Gods Creation. We must seek for a new correspondence, the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hristian Theology and our Scientific Views, and we must once again seek for it in the light of Gods Grace with us, His freedom to speak with His Word to us, to make Himself known in His relationship to us in this world. I would argue that the *Logos* God is in Jesus Christ in this world must become the rational basis for understanding the created orders of this universe, for apprehending the real meaning of the created freedom that mankind possesses in this space and time, and for grasping anew in our time the real Grace for us that our Creator and Redeemer alone possesses. I do not believe that we face this challenge without taking seriously Barths concept of the unity of the three-fold nature of the One Word of God to which he attempted to listen throughout his writing of

Church Dogmatics.

Barths unity of the three-fold concept of the Word of God must be understood then in relation to the dynamic nature of the real world. It is conceived as embraced within the structures of this world of a unity that is a reflection in some real sense of the Word of the Triune God. The three poles of the three particular forms are relationally purposed and intended to witness to the life of God Himself with the world. Within their three intervals we must learn to discuss the Person of the Lord Jesus Christ as the *Logos* of God, the Bible, and the Church. We must learn to discuss the nature of the three poles both within themselves and in their relations with one another. We are always compelled to articulate this kind of relationality by the transcendent, immanent, and economic condescension of the Lord God with His Word in His divine-human reality as witnessed by the Bible and the Church. We may discuss first the three poles of the intervals:

A. The Word of God is first and preeminently the Person of the Lord Jesus Christ. He is to be understood as the fulfillment of the expectation of the Old Testament as remembered for us in the New Testament. Barth liked to point to the fact that this Word is seen to ride a white horse in the times of the Apocalypse. As such, He is the One Word who reigns over all of the Creation and His People. He is the Lamb and Lion that the Lord God is as the King of all Kings. We may not reduce this *Logos* up or down in any way. We must learn to speak of Him for who He truly is with us---the Redeemer of His People and the Creator of the All that the heavens and the earth are. Beside Him, there is not other God. He is to be known as the Great I-AM who spoke across the centuries and who continues to speak with us today. He is the Image of God and the Head of the Church, the One who is yet to come. He is the revelation that reconciles humanity to the way the Lord God has chosen to redeem sinners from their opposition to Him. He is the revelation who is the Son of the Father in the Spirit of God.

B. The Word of God that Jesus Christ is witnessed in written form as the Holy Scriptures of Israel and the Church. It is the Churchs Bible, the Churchs Canon of Truth, the Old and New Testaments in their witness to the I-AM that Jesus is. In written form, his witness is an uniquely inspired reality given form and content in human languages, given a human history and human destiny. The Bible is thus to be read and understood by human beings in the Truth that the Revelation of God is in the world. It belongs to the way that God in His freedom is free to accommodate Himself with a humanitys real existence against Him in time and space. It is His personal truth given literary form. This form is given the capacity to witness to the life the Lord God Himself. It is not merely a book among many books, but *the Book*. It is thus Holy Scriptures and it needs to be read and understood as such. It is to be read and understood under the real authority and freedom with which it was wrought by God Himself. It participates in His free will as He makes room and time for Himself within the structures of the world,

within human language and human life. I need only refer you to the Reformation in the Churchs history to remind us of the importance of this Words freedom and authority over and within the Churchs life in this world.

C. The Word of God is the proclamation of the *Logos* Jesus Christ is with His Church. This *Logos* has been traditionally understood in terms of the Churchs kerygma and didache, the power and presence of a *Logos* that will not be denied its reign in the world. The Church lives in His Presence. She relies upon His Power. Her significance is bound up with His Gospels interaction with the world. She proclaims His saving power real with His Word. She baptizes according to this *Logos*. She ministers the Lords Table according to this *Logos*. There is no reason for the Church existence in this world except for her witness to this Person and His Revelation of this *Logos*. Thus, she preaches always the Gospel of God in Christ, Father, Son, and Holy Spirit, for the salvation of all mankind. She confesses in this way the Mind of Christ.

But we cannot understand these poles in the unity of their three forms except in a relational reality that we admit challenges deeply our minds. This *Logos* cannot be grasped in mere linear manners. We will triangulate the positions of these poles and then seek within their relations to establish our understanding of their three *diastases of their intervals* as the wholeness of their reality. The three intervals are:

1) The interval between Christ and the Bible.
2) The interval between Christ and the Church.
3) The interval between the Bible and the Church.

In each of these intervals are established in a real *diastasis* between their poles, where *domains* are defined where we may seek to understand the shapes and substances, foms and contents of their relationships. (I have taken the terms of *interval* and *diastasis* from Bernard Ramms book entitled *After Fundamentalism*. I remind you that over and over again in this book, the author attempts to persuade his readers that five-point Calvinists, five-point Arminians, and even seven-point dispensationalists may benefit from studying Barths methodology in his *Church Dogmatics*.) I believe that most of the problems the Church has faced in the history of her proclamation of the Gospel may be better understood with a proper grasp of the dynamics of these *intervals*, *diastases*, and *domains*.

1) The *interval* between the Person of the Lord Jesus Christ as the Word of God and the Bible is informed by the divine freedom of the Spirit to speak to us with the Holy Scriptures of Gods Revelation. The Bible is a pole in the *diastasis* that is a confessions witness to the way this Word has carved out a place and time for Himself in this world. He Himself then the source of its Canonical Truth. The Bible as the Book witnesses to the free life of the Word of Gods reality over and within the world. It belongs to the majesty of the mystery made known for us with God in Christ. This Truth of the Churchs Faith cannot be divorced from the Person of the Lord Jesus Christ as this Word of God comes in the flesh.

Eternity, history, and our humanity are bound up together with this literatures created correspondence to this Truth. The confessions of Israel and the Church as the People and Kingdom of God in His Creation are lit up with the Word of these Holy Scriptures. Doctrines of inspiration, history, scientific methods for interpreting the Bible are to be developed within the relationship found within the *domain* of this *interval*.

2) The *interval* between the Person of the Word of God and the Church is bound up with the way the Incarnation of His *Logos* creates by the Spirit of God the Church and her commission in the world. Jesus Christ as the *hypostatic union* of the divine and human natures of the Lord God, a man who enters this world as a being in *homoousial relationship* with His Father, cannot be understood except by the Spirit of God. Knowledge of Him is gift of His grace and our salvation. He is the Word of the Father Almighty, known by the Spirit of God as the Maker of the heavens and the earth. We cannot properly understand Him except within this *interval*. The same Word that informs the Bible informs the Church. In this *domain* differentiation within a unity must be appreciated. The doctrine of the Blessed Trinity of the One True God is established in this *domain*, where the Churchs Dogma and Kerygma forms the basis upon which the proclamation of the Word of God in the world is made.

3) Obviously, the *intervals* between the Word and the Bible and the Word and the Church will impact the concerns in the *interval* between the Church and the Bible. The Church interprets Holy Scriptures as the Word of God in the world. The Church refers to the Bibles witness as the source of the MajesticTruth she proclaims. History proves a good teacher in this *domain*. We do well when we study the relational dynamics inherent in this *interval*. Biblical Interpretation and Biblical Theology are developed here in preparation for the Churchs Dogmatics and Proclamation. At all times and in this way the Church remains under the authority inherent in her Canon. She adores the God of this Bible. She worships the Word of this God revealed as the Father and Spirit with the Incarnate Son. Ontological, epistemological, and eschatological dimensions of this Word are to be apprehended in an integrity this life with us, the life of the Great I-AM of the Word of God Himself. All Dogma of the Church is subject to the authority of His divine freedom to be who He truly is with us.

My mentor in this theology of the Word of God, Professor Tom Torrance, has written that the Church, in her efforts to proclaim this Word and His Kingdom, must face three facts about herself in regard to her mission to the world (*Theology in Reconciliation*, 1975):

a) The Church must overcome any built-in obsolescence that she endures because of the faulty assumptions she possess about God, the wor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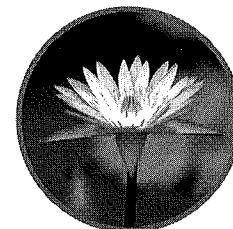
Bible References:

Genesis 1:1–3, 6, 9, 11, 14, 20, 24;
Isaiah 40:6–8;
Jeremiah 31: 31–34;
Ezekiel 1:3;
Zechariah 1:1;
Jn 1:1–18;
Mt 13:18–23, 24:35;
Mk 4; 13:31;
Lu 8:9–15, 21:33, 24:44;
Ac 4:31, 6:7;
Rom 9: 6 & 9; 1
Cor 2:4 & 13 & 16; 12:8; 14:36; 2
Cor 5:19, 6:7;
Gal 6:6;
Eph 1:13–14;
Phil 1:14, 2:16;
Col 1:5–6, 3:16; 1
Th 2:13; 4:18; 2
Th 3:1; 1
Tim 4:5–6; 2
Tim 2:9 & 15; 4:2;
Heb 1:1–3, 4:12, 7:28, 11:1–2;
Jm 1:21–23; 1
Pe 1:23; 2:8; 3:1; 2
Pe 3:5–7; 1
Jn 1:1, 2:14, 5:7;
Rev 1:2, 9; 19:13; 20:4

and mankind and their real interactions with one another.

b) The Church must lay hold of afresh what God justifies by His Grace in the time He has made for Himself with her in this world. She needs to learn to keep from joining the world in its desire to make the world a place and time for its own righteousness.

c) The Church must recover her mission of healing and reconciliation in the depths of being. Superficial analyses and fashionable assessments about our futures will only land us within our already wounded boundaries, our already fragmented forms, our already alienated individuals and communities. Revelation and reconciliation must be heard together with one another.

There remains of course much to be considered. Learning to embrace Barths three-fold concept of the unity of the Word of God will, I believe, help us to proclaim afresh in our time the grace of the majestic truth of His Being with and for us in our world. We may then surely pray that with His *Logos* He will renew our minds and establish Himself with us for who He truly is, Gods Image for us as the Head of the Church. We may pray that we shall be able to follow Him with His New Creation for us. May He deliver us from all our idols, all the idols of our minds and hands! May He fill us with His love and courage! May He heal the many wounds in the depths of our being! May He reconcile us, indeed, to Himself in our time and in such a way that we shall be made able to proclaim in the midst of world darkness the great Light that He is as the Word of God with and for us in the world!

Resources:

Karl Barth, *Church Dogmatics*, Volumes I, 1 and 2.

Bernard Ramm, *After Fundamentalism*

T. F. Torrance, *Theology in Reconstruction*

임성진 목사(월드미션대학교 학감)

월드미션대학교 Vision(한국계 하버드를 꿈꾸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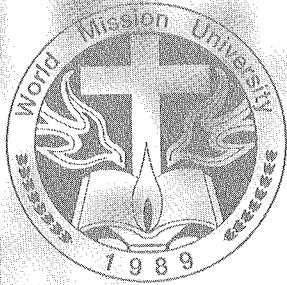
말을 가르쳐 승마를 하고, 소를 길들여 농사를 짓고 짐을 싣기도 하듯 사람은 사람답게 양육되어야하고 더욱이 신앙적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

하버드대학교는 1636년에 설립된 학교로서, John Harvard 목사가 젊은 나이로 1638년에 세상을 떠나면서 학교에 희사한 도서관과 기부금을 귀하게 여겨 학교명칭을 하버드대학교로 하였다. 한 젊은 목사가 꿈을 가지고 뿌린 작은 씨앗이 오늘날 세계적인 대학교로 성장하여 미국과 세계에 공헌하고 있다. 동양선교교회가 뿌린 씨앗인 월드미션대학교도 이제 낮은 울타리를 뛰어 넘어 미주 한인이민사회와 미 주류사회에 중요한 교육기관으로 성장하고 있다. 하버드대학교가 작은 신학교로 시작하여 법조계, 의학계, 문학계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사회에 봉사하듯, 본교도 하버드대학과 같이 성장할 꿈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다.

1989년 3월 27일에 설립된 월드미션대학교는 설립목적에 따라 학생들을 충성된 목회자, 신실한 선교사, 유능한 기독교교육자 및 크리스챤 전문인으로 훈련하여 교회와 사회를 섬기는 봉사자로 세우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학교설립의 목적에 따라 구체적으로 학생들을 성경중심, 선교지향적인 교회와 세계를 위한 지도자로 세우는 것을 본교의 목적으로 정하였다. World Mission University, an Evangelical educational institution, exists to equip Bible-centered, mission-minded leaders for the Church and the world.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의 구체적인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신학적 지식습득, 성서적 가치관형성, 영성 개발, 선교에 대한 헌신과 이해, 평신도들과 전문 목사들을 위한 목회 기술습득, 지적 숙련과 같은 구체적인 목표를 추구하며 그 결과를 평가한다.

학교가 비전을 가지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계획과 함께 그 계획이 단계적으로 시행되어 결과로 이어져야 지속적인 발전을 통하여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항은 첫째, 학교의 Mission Statement의 확립이며 둘째, 모든 학교행정을 미국표준에 맞추는 것이고 셋째, 교수와 건물시설의 효율화를 이루는 것이며 넷째, 학생 수 증가를 실현하는 것이며 다섯째, 이런 사항을 시행할 수 있는 재정적 뒷받침을 이루는 것이다.

학교의 목적과 목표의 확립

본교의 Mission Statement 을 정하면 그것이 AABC에서 요구하는 규정에 합당한 것인지를 점검해야 한다. 이미 위에서 언급한 본교의 Mission Statement 는 AABC 의 규정에 잘 부합되는 것이다. 목적이 정하여 지면 그 목적이 실제로 실현될 수 있는 목표가 세워져야 하며 그 목표에 대한 현재 학교의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시정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연차적(주로 5개년 계획)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5개년 계획이 성취되어 감에 따라 그 계획을 상향 보완하며, 끊임없이 학교의 발전을 위해 학교의 약점과 강점 그리고 발전요소와 저해요인을 조사하여 계획을 세우고 시정해 나가야 한다.

학교행정의 미국표준화

행정의 미국표준화를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우선적인 과제는 미국기독교대학 연합회인 AABC (Accrediting Association of Bible Colleges) 에 가입하는 것이다. 본교는 AABC 에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 2000년 4월 3일부터 컨설턴트 Dr. David Agron과 준비작업을 계속해 왔으며, 2001년 2월 13일부터 17일까지 Atlanta, Georgia 있었던 AABC Annual Meeting에서 AABC는 본교를 Applicant Status로 인정하였다. 2004년 2월경에 AABC의 Candidate Status로 인정되어 미국에 있는 어떤 기독교 대학과도 똑같은 주정부, 연방정부의 모든 혜택과 자격을 인정을 받는 학교가 된다.

이러한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학교의 행정이 미국학교와 동일해야 한다. 객관적 기준으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행정, 교수, 운영, 학생, 재정, 이사회 운영에 관한 헌법과 시행세칙 등 모든 규정이 영구적인 것과 가변적인 것을 구분하여 정확하게 문서로 구비되어 그 규정대로 시행되어져야 한다.

강의도 미국학교와 동일한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대학과 대학원 과정이 분리되어야 하며 일반교양과목과 성서 및 목회에 관한 과목들이 균형을 이루어 배정되어야 한다. 강의 자체에 대해서는 강의 목표와 교수 방법에 대한 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며 그 결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긍정적, 부정적 보상이 제공되어야 한다. 교수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세미나가 제공되며 교수의 연구와 저술활동이 가능하도록 학교차원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

학교의 재정운영 상태를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외부감사도 중요한 행정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건전한 이사회가 구성되어 학교운영자들과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학교의 정책수립자들과 행정책임자 간의 책임분담과 함께 그 책임에 대한 확인이 외부 감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의 재정은 투명성을 유지해야 하며 그러한 일은 재정사용 재량권과 객관적인 확인을 통한 균형을 통하여 이루어 질 수 있다.

교수임용과 시설관리의 효율화

학교 발전의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훌륭한 교수의 임용과 유능한 행정요원의 영입이다. 현재는 본교의 규모와 재정형편 때문에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AABC에서 현재 본교의 규모에 맞는 인원은 6명의 전임교수와 3명의 행정직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물론 학교가 발전하고 학생의 숫자가 늘어나면 자연적으로 교수와 행정요원의 숫자도 증가할 것이지만 적극적인 방법으로 교수와 행정요원을 미리 확보하면 학교의 발전속도가 더욱 빨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교수의 증원 뿐 아니라 행정요원의 증가도 필요하다. AABC에 준회원이 되면 학생융자, 정부장학금 등을 본교가 신청할 수 있음으로 이 일을 전담할 전문적인 직원이 필요하다.

학교시설을 잘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교수연구실과 학생회관을 마련하고, 식당과 부대시설을 제공하여 면학분위기를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 도서관을 규모 있게 디자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본교 도서관은 한인사회에서 가장 잘 준비된 도서관 가운데 하나이다. 더욱 잘 발전시켜 학교발전에 한 몫을 감당하여야 한다. AABC에서 요구하는 것은 학교 예산의 6%를 도서관 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하며 도서관학을 전공한 사서와 함께 전임직원을 상주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도서관과 학교건물을 규정대로 관리하고 쾌

적한 학업분위기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건물관리인도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학교건물을 잘 활용하여 교수실을 마련하며 학생회관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것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며 학교를 발전시키겠다는 학교의 의지를 대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며 대외적인 신뢰 획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학생 수 증가

아무리 좋은 건물과 교수와 행정직원이 있더라도 공부할 학생이 없다면 학교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 지속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본교에 등록할 방안이 필요하다. 학과증설이 학생모집의 한 방안이다. 선교와 관련된 학과들의 증설이 요구되고 있다. 일반 선교사로서는 입국하기 어려운 선교지에 비교적 용이하게 들어 갈 수 있는 한의과, 태권도선교학과 및 컴퓨터 학과 개설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대두되고 있다.

분교를 설치함으로 학생을 더욱 모집할 수 있다. 앞으로는 통신과정을 통한 교육이 더욱 활성화 될 것이며 인터넷과 분교를 통한 교육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다. 특히 분교를 많이 설치함으로 양질의 교육기회를 더욱 많은 곳에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미국 내의 많은 지교회와 연합회 교회에 분교를 설치할 수 있으며 러시아, 터키, 중국, 아프리카, 브라질, 파라과이 및 한국에도 분교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다.

장학금을 많이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장학기금재원의 안정도 학교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월드미션대학교는 설립목적이 복음전파를 위한 목회자, 선교사, 평신도지도자, 특수 사역자를 훈련하여 그들을 사역지로 파송 하는 것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충성된 헌신자를 찾아 훈련하기 위해서는 장학기금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소수정예 사역자의 철저한 훈련을 위하여 재정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일시적인 기부금형식의 장학금지원보다는 장학기금재단에 안정되고 지속적인 장학기금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OMC의 17개 선교회 장학금 등 각종장학금 등으로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으며 본교 자체의 장학금 제도도 잘 되어 있다. 1. 총장장학금 2. 성적장학금 3. 주은장학금 4. 선교장학금 5. 근로장학금 6. 지정장학금 7. 승용장학금 8. 성환장학금 9. 경애장학금 10. 봉모장학금 11. 경혜장학금 12. 건준장학금 13. 진호장학금 14. 동진장학금 15. 북방장학금 16. 에녹장학금 17. 근홍장학금 18. 순자장학금 19. 아주장학금 20. 동순장학금 등이 있다. 현재는 한시적으로 작은 액수를 장학금으로 수여하고 있으나 앞으로 백 만불 단위의 장학기금을 마련하고 그 이자를 활용한다면 안정된 액수를 일정하게 제공할 수 있다.

학생들이 졸업을 한 후에 목회지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한 분야이다. 현재는 OMC에서 2명의 졸업생에게 Internship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연합회의 각 교회가 졸업생들에게 사역의 기회를 제공한다면 더 많은 학생들이 본교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저명한 교수를 청빙하고 미주지역의 목회자들에게 목회정보를 제공하여 목회자들이 본교에 대한 호감을 갖게 되면 많은 예비학생들에게 본교를 추천할 것이다.

학생들에게 영적 성장을 위한 안내를 하며 목회자, 선교사로서의 규범을 제공하여 영적성장을 이루게 한다. 현재는 많은 학생들이 직장생활을 하며 학업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학업에 많은 지장이 있으나 점진적으로 전임학생으로서 학업에 임하여 철저한 훈련을 받고 신실한 목회자, 선교사로서 쓰임 받는 것이 그들에게 더욱 바람직한 일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더욱 많은 장학금을 제공하고 기숙사를 마련하여 학생들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혜택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재정적 뒷받침

학교의 목적을 세우고 그 목표를 설정하며 구체적인 비젼을 가지고 모든 일을 추진하려고 할 때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재정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경상재정, 장학기금과 건축기금을 지속적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이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기획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AABC에서도 기획실을 통하여 이런 방면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방침이 이루어 질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다.

목회자와 선교사 평신도지도자 양성에 관련된 모든 학과를 설립하고 유치원으로부터 전문대학원에 이르기까지 종합학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하겠다. 이런 방대한 교육사역을 위하여 전문 교육행정가를 영입하고 그들로 하여금 교육행정을 담당하게 하므로 신학교나 유치원의 주 정부 관계와 시 정부와의 업무관리와 행정관리가 완벽해지며 흐트러진 업무가 일원화되므로 중복되는 경비를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학교가 건전하게 발전되어 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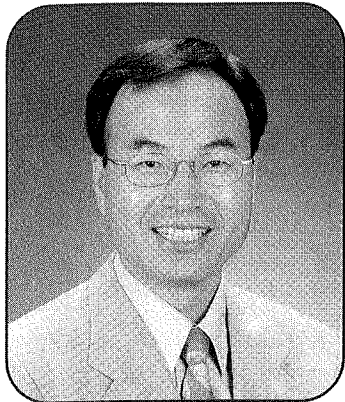
현재까지의 본교 졸업생 현황을 보면, 2002년까지 11회에 걸쳐 203명의 졸업생들이 배출이 되었는데, 이들 모두가 전세계에서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이들 중에는 중국, 러시아, 에콰돌, 콜롬비아, 터키, 독일, 스위스, 파퓨아 뉴기니, 파라과이 등에서 영혼 사랑의 열정으로 복음의 씨앗을 열심히 뿌리고 있는 능력 있는 선교사들 (23명)을 비롯하여, 한국과 미주지역교회에서 성실하게 목회하고 있는 충성된 목회자(106명), 상급학교 진학을 통하여 미래의 더욱 충실한 사역을 위해서 계속 학업을 연마하는 사람들 (46명), 또한 여러 방면에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열심히 일하는 기타의 사역자(29명) 등이 있으며, 이들이 땀흘려 거두고 있는 열매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현재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100여명의 우수한 재학생들을 볼 때 앞으로의 교회와 세계선교에 대한 본교의 역할에 대한 큰 소망이 있다고 하겠다.

18세기에 미국과 영국에 능력 있는 목회자들과 크게 부흥되었던 많은 교회들이 있었으나 오늘날은 과거와 같은 영광을 잃어버린 개인과 교회들이 있음을 볼 수 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으나 죤 웨슬레와 죠지 윗필드의 경우를 비교해보면 웨슬레는 교육에 대한 많은 업적을 남겨 놓았으나 윗필드는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그의 사역이 오늘날까지 계승되지 못하고 과거의 흔적으로만 남아 있을 뿐이다. 이런 결과는 전적으로 그들이 남겨 놓은 교육에 대한 의지에 따른 결과임을 알 수 있다. D. L. 무디의 경우에도 그가 당시에 이루었던 귀한 열매들이 있었지만 오늘날까지 지속되는 그의 사역의 열매들은 더욱 영광스러운 것들이다.

옛날에는 사람이 교육을 적게 받았어도 인간적인 성품을 크게 잃어버리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날은 급격한 사회적인 불신앙의 풍조가 사람들의 성품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어, 제대로 신앙교육을 받지 않으면 세속적인 삶을 살 수 밖에 없게 되었다. 말을 가르쳐 승마를 하고, 소를 길들여 농사를 짓고 짐을 싣기도 하듯 사람은 사람답게 양육되어야 하고 더욱이 신앙적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 미국 컬럼비아대학 초대 학장이요, 설립자인 새뮤얼 존슨의 컬럼비아대학 설립의 주된 목적 중의 하나가 "학생들을 사회에 유익한 존재들이 되도록 양육하는 것" 이라고 하여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임동선 목사의 목회비전과 동양선교교회 그리고 많은 분들의 기도와 정성으로 시작된 월드미션대학교가 장차 온 세상을 향한 한국계 하버드로 성장하여 아름답게 빛을 바라기를 간절히 소원한다.

남종성 교수(본교 학생처장 및 신약학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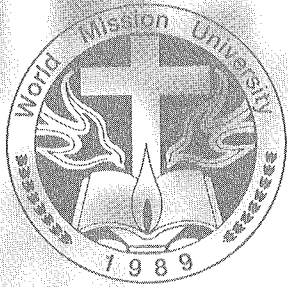
"하나님 나라" 연구의 쟁점과 우리의 입장

하나님의 나라는 자유의 나라이다. 창의적인 나라이다. 모든 개성이 존중이 되고 활기를 펼 수 있는 나라이다.

신약성서연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이다. 이 주제는 신약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주제이다. 혹자는 요한복음이나 바울서신에 하나님 나라의 사상이 없다고 말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 요한과 바울은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를 직접 쓰지는 않았지만, 당시의 독자들에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달리 표현했을 뿐이다. 즉 요한에 의하면 생명, 영생, 구원, 영원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를 대치하였고, 바울의 경우는 구속, 칭의, 화목 등의 언어를 사용함으로 기독론적이고 구원론적인 언어로 재현되어졌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은 복음서와 바울서신 그리고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 정점을 이루면서 신약성서 전체에 흐르고 있다.

오늘날 학자들간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많은 학자들은 이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자신들의 신학연구의 중심주제로 삼아 왔다. 어거스틴, 알버트 슈바이처, 존 브라이트, 조지 레드, 노만 페린, 브루스 칠톤 등이 이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다. 비록 직접적으로 이 주제를 다루고는 있지 않더라도 영향력있는 많은 성서 신학자들과 조직신학자들은 하나님 나라 연구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

교회의 성도들도 하나님 나라가 중요한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견해는 잘 정리되어 있지 못하고, 피상적이고 무비판적인 것을 보게 된다.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견해는 부분적이고 편견적인 경우가 많이 있다.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연구함에 있어서 학자들간에 완벽한 일치는 불가능하겠지만, 성도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기본적인 가이드 라인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건전한 해석에 근거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말해주고, 동시에 성도들이 이에 대해서 좀더 진지하게 생각하게 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어야 할 책임이 신학자들과 교회지도자들에게 있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 연구의 중요성

하나님 나라 연구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가 있겠다. 1. 자신의 신학을 정립하기 위한 좋은 뼈대가 된다. 2. 이단들도 나름대로 하나님 나라의 신학을 가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신학적 대처를 할 수가 있다. 3. 기독교 신학의 각론들을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즉 구원론, 예배론, 교회론, 제자의 삶, 선교와 전도, 윤리, 사회참여, 종말론 등의 많은 주제들과 연관이 있다. 4. 자신의 신앙생활을 일관성있게 하고 힘있게 한다.

5. 기독교의 중요한 주제들을 발전시켜 나갈 수가 있다. 6. 교리적이고 타성에 젖은 신앙에 활력을 줄 수가 있다. 7. 성서해석에 일관성을 준다. 8. 신앙생활을 깊이 있게 하고 신앙의 본질적인 것들을 생각하게 한다. 9. 자연과의 관계성을 살피는데도 도움이 된다. 10. 모든 신학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주제가 된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주제였을 뿐만 아니라,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의 신학과 신앙, 그리고 삶에 대단히 중요한 주제이다. 특별히 신학을 하는 신학도들은 물론, 진지하고 의식있는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평신도들도 깊이 생각하고 사상을 정립해야할 주제이다.

하나님 나라 연구에 대한 학자들의 핵심 쟁점

하나님 나라의 연구는 대단히 중요한 주제이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 연구가 쉽지가 않다. 난점들과 이슈들이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있다. 일반 성도들은 이것들을 다 알기도 어려울뿐더러 알 필요도 없을 것이다. 단지 여기서는 하나님 나라 연구에 대한 학자들의 핵심 쟁점들만을 살펴보면 우리는 이 주제의 가장 중요한 이슈들을 알게되는 것이다. 학자들이 제기하는 핵심 쟁점을 세 가지로 지적할 수가 있겠다.

첫째는,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보았는가?' 라는 질문이다.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았다. 그러나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점을 가지셨을 것이다. 이것을 풀어보자는 것이 학자들의 의도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종말론적으로 이해하셨을까 아니면 지금 이곳에 실현 된 것으로 이해하셨을까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셨을까 등의 질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제의 해결은 생각만큼 간단하지가 않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어떤 말씀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임하지 않고 미래에 임할 것처럼 보이고(막1:15), 어떤 말씀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으로 보여지는 말씀들이 있다(눅11:20). 또 비유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석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학자들이 많은 노력을 하였다. 알버트 슈바이처와 같은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함에 있어서 '그 나라는 철저히 미래에 일어나는데 그 시기는 임박하였다' 라고 생각을 하였다는 것이다. 슈바이처가 군사훈련을 받으면서 마태복음을 헬라어로 읽어 가는데 특별히 10:23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하였다. "이 동네에서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라는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임박한 미래에 임할 것이라고 보았다는 것이다.

반면에 C. H. 다드의 견해는 다르다.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하였는가 하면 그분은 스스로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했다고 생각하였다는 것이다. 즉 예수님 스스로가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에이전트(agent)로 오셨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면서 공생애를 사셨다는 것이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눅11:20) 라는 말씀이 다드 자신의 견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또 한사람 거론하지 않으면 안될 사람이 루돌프 불투만이라는 사람이다. 이 사람 역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를 연구하였다. 그에 따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실존주의적으로 생각하셨다는 것이다. 불트만에 따르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의 부호와 같은 것이라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설명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초대교회가 예수님을 종교화 내지는 신화화하였기에 객관적인 지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가 그가 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도 역사적이며 객관적인 설명은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한가지 확실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종말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하나님 나라"라는 상징이나 부호로 설정하자는 것이다.

불트만의 관심은 설명할 수 없는 미래에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보다 현재의 우리의 실존에 더 관심이 있는 것이다. 미래에 일어날 종말론적 사건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아는 것보다, 현재의 개인의 삶과 결단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종말론적인 사건은 "하나님 나라"라는 표지판으로 설정을 해두고, 이 표지판이 주는 긴급성과 중요성을 바라보면서 이에 대한 반응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즉 종말의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신화화 하거나 추상화하지 말고, 지금 나의 실존적 입장에서 각오와 결단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불트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위대한 종말론적인 부호 내지는 표지를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이에 합당한 결단과 삶을 살도록 촉구하였다고 보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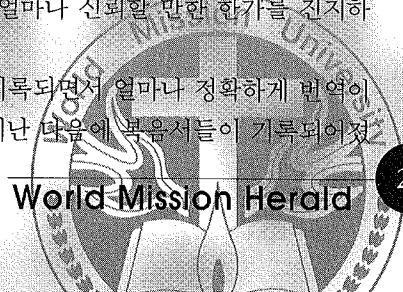
불트판의 생각은 일견 설득력이 있어 보이나, 하나님 나라의 역사성과 구체성을 다 얼버무리거나 지워버리고 하나의 부호로 비역사화하고 상징화했다는데서 큰 문제가 있다.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속에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다. 역사성을 빼버리면 논리는 단순화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섬세하고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불신앙적인 태도가 되는 것이다. 실존주의적인 해석의 또 하나의 문제는 부호의 성격을 띠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부호에 어떤 의미를 붙이느냐에 따라서 부호의 의미가 바뀔 수가 있다. 빨간색 육각형 모형의 부호를 "멈춤"이라고 의미를 붙여서 이렇게 통용이 되고 있지만, 다른 나라나 문화권에서 같은 부호를 "서행"이라고 의미를 붙였다면 같은 부호이지만 전혀 다른 뜻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실존주의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것은 필연적으로 인간의 관점에서 해석되어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미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도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의미를 부여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모습을 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보셨는가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학자들은 지난 한 세기동안 치열한 논쟁을 벌여왔다. 어떻게 보면 소모적인 논쟁이었던 같지만 이런 논쟁을 통하여 우리는 어느 정도 큰 그림 안에서 합의점에 도달하게 되었다. 그것은 "역사적 종말론"의 입장이다. "실존주의적 종말론"과 시간적 패러다임은 같지만 종말의 사건을 상징이나 부호로 보지 않고, 종말의 사건을 실질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으로 보자는 것이다.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섭리 안에서 종말의 일들이 하나 하나 실질적으로 이루어 질 것이라는 것이다.

두 번째로, 학자들간에 핵심논점이 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에 대한 해석의 문제이다. 소위 "역사적 예수"에 대한 연구의 문제이다. 일반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이 질문의 중요성을 그다지 인식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학자들간에 이 질문은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 되고 있다.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은 사실인데, 복음서들이 증언하고 있는 그분의 말씀과 행동은 역사적으로 얼마나 신뢰할 만한 한가를 진지하게 토론해 보자는 것이다.

아람어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헬라어로 기록되면서 얼마나 정확하게 번역이 되었을까?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신 지 30년 이상이 지난 다음에 복음서들이 기록되어졌

는데 과연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들이 원형 그대로 보존이 되어서 복음서 속에 기록이 되었을까? 복음서들이 공동체의 필요에 따른 정황적인 문서들이라면, 당시의 공동체가 예수님의 말씀의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치면서 재해석한 부분들은 없을까? 당시의 저자들은 자신들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썼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자유로움' 가운데 책들을 쓰지는 않았을까? 등의 질문을 하게되는 것이다. 이런 질문들은 한 마디로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원형 그대로 복음서 속에 보존이 되어있는가?" 에 대한 질문으로 함축할 수가 있겠다.

이에 대한 관점에 따라 역사적 예수님(역사의 예수님)의 모습이 상당히 다르게 묘사가 될 수가 있다. 예수님과 복음서의 일치성 내지는 연속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복음서가 제시하는 예수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역사적 예수님과 복음서 사이의 불일치성을 주장하고,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에 재해석과 적용을 많이 했다고 강조하는 사람들은 본래의 말씀을 복구해보려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볍들을 개발하고 있다. 역사적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나는가에 따라 그분이 강조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도 대단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역사적 예수 연구의 문제를 중요한 이슈로 다루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로 학자들간에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성서해석의 문제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점이 달라질 수가 있다. 예를 들면 마11:12의 말씀을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라고 해석할 것인가(개역성경) 아니면 "세례자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늘 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그리고 힘을 쓰는 사람이 그것을 차지한다"(표준새번역) 라고 해석할 것인지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에 많은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

해석학의 차이로 인해 성경 번역의 차이도 있고, 신학의 차이도 있고, 교리의 차이도 있게 되는 것이다. 성서해석은 사람들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다 다르다고 볼 수가 있다. 똑같은 본문을 보면서도 사람들의 견해는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주제를 연구함에 있어서 성서해석에 대한 견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세 가지의 중요한 학문적 쟁점들을 살펴봄으로 하나님 나라의 연구가 왜 이렇게 어렵고 공통된 결론이 나지 않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각각의 주제가 상당히 상이한 입장들을 반영하고 서로 타협할 수 없기에 하나님 나라의 연구에 대해서 많은 난점이 있는 것이다. 이런 현대의 쟁점들을 앎으로 하나님 나라 연구를 좀더 진지하고 심각하게 진행 해 나갈 수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성격에 대한 관점의 차이

위에서 고찰한 학자들의 핵심쟁점들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음과 동시에 이제 말하고자하는 요소들이 또한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규명하는데 다양한 관점을 가져오게 하는 또 다른 요소들이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의 지역적 공간적 개념의 차이에 따라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달라질 수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세계에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지구와 같은 또 하나의 지리적 공간적 개념이 있는

장소인지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다. 이런 지역적이고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이고 초월적인 것으로서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형태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어떤 견해를 견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성격은 차이가 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에게 임하는 것인가 아니면 공동체에 임하는가의 관점의 차이에 따라서도 하나님 나라의 성격은 달라지게 된다. 개인적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면 이 나라는 좀더 내면적이며 신비적이 요소가 강할 것이다. 공동체를 강조하면 예배와 성례전을 강조하면서 성도와의 사귐을 강조할 것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주체적인 역할을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성격은 달라 질 수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반면에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보는 입장도 있다. 후자의 예를 든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의 가장 핵심내용인 사랑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실천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나가 실현될 것으로 보기도 한다.

네 번째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의 관계에 대한 입장에 따라서도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달라질 수가 있다. 이것은 교회역사를 통해서 계속 토의되어 오던 주제이다. 중세 카톨릭 교회는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와 동일시하기도 하였다. 교황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지상에 현존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다. 이런 개념들은 어거스틴이 쓴 "하나님의 도성"(City of God)이라는 저술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이런 중세 카톨릭의 견해가 잘못되었음이 잘 지적되고 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과의 관계를 보는 관점에 따라 하나님 나라의 성격은 달라질 것이다.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통치가운데 있으면서 단지 악의 세력은 하나님 나라에 부분적인 영역이나 적대적인 요소로 이해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이 세상이 악의 세계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침투해 들어오는 것으로 이해할 것인지에 따라서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인식의 대상인가 아니면 경험의 대상인가에 따라서도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앎과 인식의 차원인가 아니면 경험적이고 체험적인 나라인가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 차이가 하나님 나라의 견해들에 상당한 차이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인 선교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선교의 개념과 선교의 전략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연구함에 있어서 이와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지 않으면 부분적인 연구밖에는 되지 않을 것이다. 물론 그 누구도 위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질문들을 머리 속에 두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지한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취해야 할 입장

일반 대중들은 학자들이 말하고 토론하는 모든 내용들을 다 이해하기도 어렵고 따

라가기도 힘들다. 근원적이고 학문적인 것들은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대중들은 잘 정리되어진 학문적 토대 위에 자신들의 삶을 적용해 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토대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학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그리고 대중들의 필요에 민감한 목회적 심정을 가진 사람들이 중간에서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것도 전달이 되지 않고 소화가 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기 때문이다. 원재료를 학자들이 잘 발견하고 조직화 한 것을 좀더 대중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유통하는 일이 필요하다.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 미래에 갑자기 임하는 나라가 아니라 이미 우리 곁에, 안에, 임하고 계시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느끼고 체험하고 인식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것을 체험에만 의존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지성에만 의존할 수도 없다. 좋은 것은 내가 인식하고 깨달은 것을 체험하고 구체화하면 더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우리의 관심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 땅에서의 삶을 기쁨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의 정체성을 알고 그 정체성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다. 내가 누구냐는 것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준다. 이 일을 위해서 많은 철학자들이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였고, 지금도 우리의 삶의 존재에 대해서 많은 숙고를 하고, 인생이 무엇인지, 삶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

우리는 사실들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과학적 사실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과학자가 남들이 보지 못하는 놀라운 세상을 보듯이 하나님 나라의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숨은 진리들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도 우리가 보고 새롭게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 우리가 지각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 많이 지각하면 할수록 더 많은 세상을 볼 수가 있다. 우리는 끊임없이 탐구하고 지성을 계발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훈련이 필요하다. 학자들이 세워놓은 학설과 이론에 무비판적으로 너무 의존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 학자들이 객관적이고도 역사적인 자료를 가지고 최대한 꼼꼼하고 철저하게 연구하고 분석해 놓는 그들의 업적은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개관적이고 역사적 자료보다 훨씬 더 많은 자료가 우리 주위에 있다는 것이다. 객관성을 강조하는 학자들이 주목하지 않은 중요한 자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내면을 통하여 주는 자료, 자연을 통하여 주는 자료, 살아가는 공동체가 주는 자료, 삶의 깨달음을 통해 얻는 자료, 사회학적인 다이나믹을 통해 얻는 자료, 문화적인 다양성을 통해 얻는 자료, 사람들의 직감, 사람들과 관계 등을 통하여 얻는 자료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학자들이 세워놓은 이론들도 이해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공부함에 있어서는 비물질적인 자료들을 관찰하고, 발견하고, 평가하고, 종합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의성을 주셨다. 사물을 다르게 볼 수 있는 힘을 주셨고 다르게 반응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 그러나 요즘의 세상은 획일화하는 경향이 있다. 대중매체가 우리를 그렇게 오도하고 있다. 미의 기준, 즐거움의 기준, 삶의 질의 기준, 자녀 교육의 기준 등이 모두 획일화되고 있다. 개성이 없고 남이 하는 것을 따라가기 좋아하고 유행을 많이 탄다. 남들이 좋다고 하면 왜 좋은지 깊이 생각도 해보지 않고 그냥 따라가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유의 나라이다. 창의적인 나라이다. 모든 개성이 존중이 되고 활

하나님 나라 연구를 위한 좋은 책들 (1)

달라스 윌라드. *하나님의 모략*. 윤종석 옮김. 서울: 복있는 사람, 2000.

죠오지 래드.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 이태훈 옮김. 서울: 도서출판 엠마오, 1985

비슬리-머리. *예수와 하나님 나라*. 박문재 옮김. 서울: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1.

헤르만 리델보스. *하나님 나라*. 오광만 옮김. 서울: 도서출판 엠마오, 1987.

하워드 스나이더. *하나님 나라의 모델*. 이철민, 이승학 옮김. 서울: 두란노, 1999.

존 브라이트. *하나님의 나라*. 박일영 옮김. 서울: 컨콜디아사, 1995.

토니 에반스. *하나님 나라 비전을 품고 사는 길*. 김재영 옮김. 서울: 도서출판 디모데, 1998.

기를 펼 수 있는 나라이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하겠다. 하나님 나라안에서 참다운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하겠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때는 미래에 오지만 우리는 그것을 미리 맛보며 살아갈 수가 있다. 내리 쬐는 하늘의 빛을 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다. 내가 이세상의 진정한 빛과 소금의 될 수가 있다. 이 모든 가능성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셨다.

하나님의 나라를 연구함에 있어서 우리의 과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연구를 위한 대상으로만 여기지 말고, 직접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경험하고, 그것을 객관적이고도 종합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유한한 우리가 그것을 온전하게 다 설명할 수는 없다. 우리는 단지 그 큰 부분의 한 단면이라도 바르게 알고 표현하고 말할 수 있다면 하나님 나라 연구를 위한 귀한 공헌을 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우리는 더 크고 놀라운 그 세계를 함께 나누고 점점 알아 갈 수가 있는 것이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그 나라를 잘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 주셨다는 것이다. 예수님의 행위전체가 하나님 나라의 비유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 예수님을 "오토바실레이아" (*autobasileia*), 즉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나라다"라고 정의한 오리겐의 말은 적절하면서도 훌륭한 통찰력이다. 하나님 나라의 연구의 마지막은 결국 예수님 연구이다.

하나님 나라 연구를 위한 좋은 책들 (2)

Chilton, Bruce. *Pure Kingdom: Jesus' Vision of God*. Grand Rapids: Wm B. Eerdmans, 1996.

Dodd, C. H. *The Parables of the Kingdom*, rev. ed. London: Collins, 19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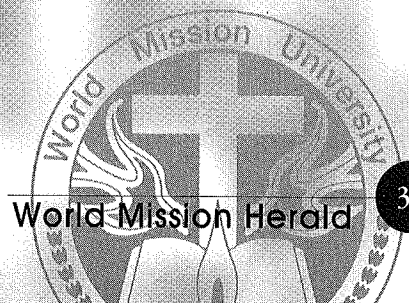
Jeremias, J. *The Parables of Jesus*. New York: Scribner' s, 19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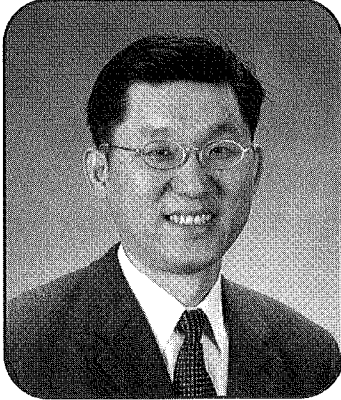
K?mel, W. G. *Promise and Fulfillment*. Naperville: Allenson, 1961

Perrin, N. *Jesus and Language of the Kingdom*. Philadelphia: Fortress, 1976.

Saucy, Mark. *The Kingdom of God in the Teaching of Jesus*. Dallas: Word Publishing, 1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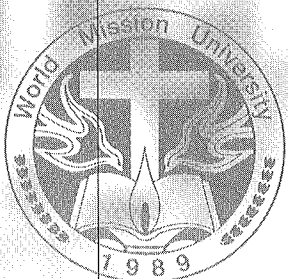
Torrance, Thomas F. *Kingdom and Church*. Eugine and Pasadena: Wipe & Stock, 1996.

Willis, Wendell ed. *The Kingdom of God in 20th-Century Interpretation*. Peabody: Hendrickson, 1987.

신선묵 교수(본교 사무처장 및 선교학 교수)

"리더십 스타일"에 관한 소고 (상황적인 지도력 스타일을 중심으로)

지도력 스타일에 대한 이론적인 이해는 지도력의 실행상황 속에서 생기는 많은 문제와 갈등에 대한 이해와 해결에 도움을 준다.

오늘날 지도력 연구에서 리더십 스타일에 관한 관심이 많이 있다. 리더십 스타일은 그냥 학문 적인 전문 용어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활 가운데 자주 접하는 문제이고 그러므로 생활 가운데 우리가 이해하고 적용하면 매우 도움이 되는 개념이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가운데 "우리 아버지는 독재적이다" 혹은 "그 교회 목사님은 매우 민주적(혹은 자유방임형)이다" 등의 표현을 많이 한다. 이런 표현들은 스타일을 말하고 있다. 혹은 우리가 이민 가정을 들여다보면 가장인 아버지들이 미국에 와서 적응하는데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자식들을 대하고 아내를 대하는데 있어서 그전에 한국과는 다르다는 점에서 많은 어려움을 느낀다. 한국에서는 모든 것을 지시하고 명령하면 순종하였는데 이곳 미국에 와서는 이곳 문화가 그렇지 않은데서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가진다. 그래서 지도자로써 가져야할 적절한 지도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이민 가정뿐만 아니라 목회의 현장도 마찬가지이다. 한국에서처럼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명령하고 지시하던 입장에서 이제는 그렇지 않은 목회환경 속에서 적잖히 당황하는 것이다. 그러면 좌절감을 가지게 되고 지도하기를 포기하는 모습에까지 갖게 되는 것이다. 때로는 이곳에 적응하기위하여 지도력의 스타일을 바꾸어 보지만 많은 경우에 겉 모양만 바뀐 것이지 진정으로 바뀐 것이 아니고 또 바꾼다고 그 새로운 지도력의 스타일이 반드시 효과적인 지 회의가 든다. 이런 현장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질문을 갖게 된다. "어떤 스타일로 사람들을 지도해야할 것인가?" "한국에서와 미국에서는 다른 지도력 스타일을 사용해야 하는가?" "비지시적인 민주적인 지도력 스타일이 옳은 것인가?" "독재적으로 몰아부쳐야 하는 것이 아닌가?" "미국에 와서 또 세대가 변해가면서 나는 지도력의 스타일을 바꾸어야하는가?" "과연 내가 지도력의 스타일을 바꿀 수 있는 것일까?" 이 모든 질문을 답할 수는 없지만 이런 배경과 관심 아래서 지도력 스타일에 대한 세 이론, Blake와 Mouton의 행동이론, Fielder의 접점이론(Contingency), Hersey와 Blanchard의 상황이론 등을 살펴보고 우리의 가정과 목회 현장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통찰력을 주는지를 살펴보겠다.

1. 지도력의 스타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먼저 우리가 지도력 스타일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지도력의 스타일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 가를 먼저 살펴보겠다. 앞에 서론 부분에서 독재자 스타일과 민주적 스타일이라는 이분법을 사용하여 표현하였는데 사실상 지도력의 스타일은 학자들에 따라서 여러 방식으로 분류하고 정의하고 있다. 가장 일반적인 스타일 구분으로는 지시적/ 비지시적 스

타일 구분이다. 지시하고 명령하는 스타일과 그렇지 않은 스타일로의 구분이다. 이를 좀 더 세분하여서 네 가지 스타일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Highly Directive/ Directive/ Indirective/ Highly Indirective 등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보다 전문적으로 지도력의 스타일을 구분하기 위한 두 가지 중요한 잣대는 "지도자의 행동들" 이다. 지도자들이 하는 행동들을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눈다면 하나는 인간관계 지향의 행동이고 다른 하나는 과업 성취 지향의 행동이다. 지도자들의 행동을 대부분 이 두 가지 행동으로 구분되어질 수가 있다. 그랬을 때에 이들 행동들 중에서 어떤 것들을 주로 하는가에 따라서 지도자들의 스타일이 나누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부류의 행동들을 가지고 지도자들의 행동의 스타일을 분석해보면 우리가 지도력의 스타일들을 보다 분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학자들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분류하고 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으로는 행동 과학자 Blake와 Mouton의 분류법이다. 그들의 분류법에 따르면 다섯 가지의 형태의 스타일을 볼 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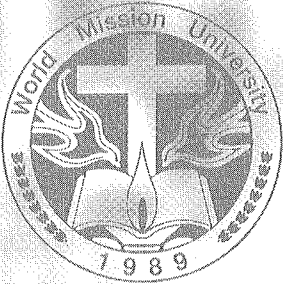
1)Team Management(9,9) - 좋은 관계와 과업 성취를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하는 스타일로 헌신된 사람들로부터 과업들이 성취되고 동시에 공동 운명체로써 함께 하면서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관계를 형성한다.
2)Country Club Management(1,9) - 이 스타일은 인간관계를 좋게 하는데 더욱 촛점을 주면서 그 목적에 맞추어서 과업들을 해나간다.
3)Authority-Compliance Management(9,1) - 인간적인 요소를 최소화한 상태에서 과업을 배열하여 최고의 성과를 추구한다.
4)Middle of the Road Management(5,5) - 적절한 선에서 인간관계를 만족스러운 관계로 유지하고 과업을 필요한 선에서 성취한다.
5)Impoverished Management(1,1) - 기관이 유지되기 위한 최소한의 지도력 행동을 한다.

그들의 뒤를 이어 상황 이론가 Blanchard와 Hersey도 역시 지도자들의 두 가지 부류의 행동을 근거로 하여 지도력의 스타일을 분류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지도력 스타일을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

1) Telling - 말하기 (관계지향 행동은 적고 과업지향 행동은 많음)
2) Selling - 판매하기 (관계지향 행동도 많고 과업지향 행동도 많음)
3) Participating - 함께 참여하기 (관계지향 행동은 많고 과업지향 행동은 적음)
4) Delegating - 위임하기 (관계지향 행동은 적고 과업지향 행동도 적음)

2. 어떤 지도력 스타일이 가장 바람직한 것일까?

그러면 어떤 스타일이 가장 바람직한 것일까? 여기에서 잠시 멈추어 서서 우리가 상식적인 수준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어떤 지도력의 스타일이 가장 바람직한 것일까? 명령조의 스타일보다 비지시적인 스타일이 좋은 것일까? 아니면 독재적인 스타일이 좋은 것일까? 가장 바람직한 스타일이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서도 학자들 마나 의견을 달리한다.

첫째, Blake와 Mouton은 다섯 가지의 스타일 중에서 과업 지향적이며 동시에 관계지향적인 스타일인 팀워크 스타일이 가장 바람직한 지도력 스타일이라고 하였다. 그들은

모든 지도자들이 이 바람직한 지도력의 행동들을 보이기 위하여 자신들의 스타일을 개조하여 나아가야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견해에 대하여 어떤 하나의 특정한 지도력 스타일이 적합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다른 스타일이 적합하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둘째, Fielder는 여러 가지 상황들은 다른 종류의 지도력 스타일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였다. Fielder는 지도력의 스타일을 두 가지 스타일, 과업지향의 스타일과 관계지향의 스타일로 분류하면서 지도력의 상황을 평가하기위한 특별한 지수를 사용하는데 LPC(Least Prefered Coworker)이라는 지수를 사용하였다. 즉 함께 일하기 힘든 동료라는 의미로 이 지수가 높은 상황과 이 지수가 낮은 상황에 각기 다른 지도력의 스타일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 지수가 높은 경우 즉 일하기가 힘이 드는 사람들과 이 지수가 아주 낮은 경우 함께 일하기 아주 우호적인 동료들에게는 과업지향적인 지도력이 적합하고 이 지수가 약간 낮은 경우 즉 함께 일하기가 힘이 덜 드는 경우에는 관계지향적인 스타일의 지도력이 적합하다고 보았다.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각기 다른 적합한 지도력 스타일이 있다는 견해에 대하여 상황마다 적합한 하나의 스타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지도자가 여러 가지 지도력 스타일을 가지고 상황에 맞게 쓸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등장하였다.

세째, Hersey와 Blanchard는 지도자들은 그들이 놓인 상황에 따라서 특히 추종자들의 성숙도에 따라서 다른 지도력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이것이 상황적인 지도력 스타일 이론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도력 스타일 연구에서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아주 간단한 예를 들면 아직 아무것도 못하는 어린아이에게 민주적으로 한다고 하여 무엇을 가르쳐 주지도 않고 네가 알라서 하라고 하는 것은 민주적이지만 사실은 바람직한 스타일이 아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는 과업을 일일이 가르쳐 주고 그들이 할 수 있도록 옆에서 격려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하나의 예에 불과하지만 성인들도 그들이 성숙도가 다양하다. 추종자들의 성숙도는 두 가지 면에서 평가되어져야한다. 하나는 그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어떤 사람들은 과업을 감당할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도 있다. 또 다른 하나의 기준은 추종자가 일을 감당하고자하는 의도와 동기이다. 그들이 그 과업을 감당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각기 다른 스타일이 적합하다. 이 두 가지 기준에 의하여 네 가지 종류의 추종자들을 생각할 수가 있다.

1) 성숙도1 -과업을 감당할 능력은 있지만 하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안 되어있는 사람
2) 성숙도2 -과업을 감당할 능력도 없고 하고자 하는 동기 부여도 없는 사람
3) 성숙도3 -과업을 감당할 능력은 없지만 하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되어있는 사람
4) 성숙도4 -과업을 감당할 능력도 있고 하고자 하는 동기부여도 되어있는 사람

이상과 같이 추종자들의 성숙도는 네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다. 이런 분류위에서 지도자들은 추종자들의 성숙도에 따라 각기 다른 스타일이 적절한 것이다.

1) 과업을 감당할 능력은 있지만 하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안 되어있는 사람 - 말하기 스타일
2) 과업을 감당할 능력도 없고 하고자 하는 동기 부여도 없는 사람 - 판매하기 스타일
3) 과업을 감당할 능력은 없지만 하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되어있는 사람 - 함께 참여하기 스타일
4) 과업을 감당할 능력도 있고 하고자 하는 동기부여도 되어있는 사람 - 위임하기

3. 우리는 지도력의 스타일에 있어서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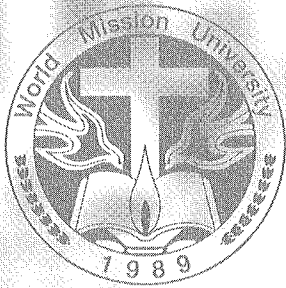
지도력의 스타일은 위에서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몇 가지 스타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어떤 스타일이 가장 적합한 가에 대하여서는 학자들에 따라서 어떤 특정한 스타일이 가장 좋다고 하는 견해와 상황에 따라서 다른 종류의 스타일이 적합하다고 보는 견해가 있었다. 그러면 우리가 적합한 스타일을 사용하기 위하여 노력을 헤야되는데 어떻게 적합한 스타일을 사용할 수가 있을까? 우선 이 문제를 다루가 진에 우리는 우리의 개인적인 성향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기본적으로 각 개인들은 그들의 스타일에 있어서 어떤 경향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주위의 지도자들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관계에 민감하고 과업의 성취를 이차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스타일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과업을 성취하는데 탁월성을 보이지만 인간관계에 별 관심을 주지 않는 스타일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 두 가지를 다 추구하는 스타일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는 스타일을 가진 사람도 있다. 우리 자신을 보아도 어떤 경향이 있음을 알 수 가 있다.

Blanchard와 Hersey는 개인들이 자신들의 지도력 스타일을 분석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LEAD라고 불리 우는 이 테스트를 통하여 우리는 자신의 주도적인 지도력의 스타일이 무엇인지를 알아볼 수가 있다.(참고로 이영운 교수가 번역한 Hersey의 "상황을 이끄는 리더가 성공한다"라는 책에서 부록으로 LEAD test한국 번역본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가 자신의 주도적인 지도력 스타일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자신의 지도력의 스타일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평가하기보다는 자신의 스타일이 유일한 스타일 혹은 가장 바람직한 스타일로 고집하는 경우가 많다. 자신의 스타일은 여러 가지 다양한 지도력의 스타일중의 하나일 뿐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으로써 자신의 스타일의 한계도 인식할 수가 있어야하고 동시에 다른 스타일을 습득하기 위한 발전적인 자세도 가질 수가 있다.

학자들마다 조금씩의 의견을 달리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최소한 각 사람들이 지도력의 어떤 스타일의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의를 한다. 그런데 Blake와 Mouton은 모든 지도자들이 관계 지향적 행동과 과업 지향적 행동을 동시에 잘하는 스타일을 갖도록 노력해야한다고 하였고 Fielder는 사람이 자신의 스타일을 개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였고 Blanchard와 Hersey는 사람들이 대표적인 지도력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의 노력에 따라서 지도력의 스타일을 다변화 할 수가 있고 좋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상황에 따라 다양한 지도력의 스타일을 사용할 수 있게 되도록 노력해야한다고 하였다.

4. 지도력의 스타일에 연관하여서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어떤 일들이 있을까?

이상의 지도력과 상황과의 관계 또 지도자들의 어떤 성향 등을 바탕으로 종합해 볼 때에 우리는 몇 가지 적용점들을 찾아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첫째, Blake와 Mouton은 효과적인 지도력을 위하여서는 지도자들은 최상의 지도력 스타일 즉 관계 지향적이고 동시에 과업 지향적인 지도력 스타일인 팀워크 스타일로 나아가야한다는 것이다. 즉 지도자가 이상적인 지도력의 스타일을 갖추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이 이론에 대하여서는 과연 이 스타일이 모든 지도력의 상황에서 최상의 스타일인가에 대하여 질문할 수가 있다. 또한 모든 지도자가 이 스타일을 갖는 다는 것도 불가능하거나 어려울 것이다.

둘째, Fielder은 지도자가 스타일을 바꿀 수가 없고 바람직한 지도력의 스타일은 상황의 우호성에 의존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런 이론 속에서는 지도자와 상황이 적절히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지도자가 자신의 지도력 스타일이 있는데 자신이 놓인 상황이 잘 맞으면 그대로 있고 잘 맞지 않으면 지도자는 자신의 스타일에 맞는 환경을 찾고 그 상황은 그 상황에 맞는 스타일을 가진 지도자를 찾아야한다는 것이다. 사실상 우리가 우리 자신의 성향을 분석해 보면 우리 자신에게는 스타일에 있어서 어떤 성향이 있고 그에 맞는 상황 속에서 일할 때에 가장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상 이 이론에 따르면 우리 사역자들도 사역지에서 자신의 스타일에 잘 맡는 곳을 찾아야하는 것인데 때로는 그렇지 못한 상황 속에 들어가고 교회도 잘 맞지 않는 사역자를 모시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런 때에 이 이론에 따르면 목회자가 빨리 목회지를 바꾸어야한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쉽지가 않은 것이다. 이 이론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사역지를 쉽게 떠나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최소한 사역지를 처음 선택할 때에 또한 교회가 사역자를 청빙할 때에 지도자의 스타일과 상황의 필요가 잘 맡는 지를 신중하고 고려해야한다는 통찰력을 준다.

셋째, Hersey와 Blanchard는 지도력의 적합한 스타일이 상황에 의존한다는 점에서는 Fielder와 일치한다. 그런데 Fielder는 지도력의 스타일을 고정되고 변화할 수 없는 것으로 본 반면에 Hersey와 Blanchard는 지도자가 자신의 지도력의 스타일을 폭넓게 다양화하고 그럼으로써 상황에 맞는 적절한 스타일을 사용해야한다고 하였다. 지도력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지도자는 추종자들의 성숙도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에 적절한 지도력 스타일을 사용할 수 있어야하고 그러기 위해서 자신의 지도력 스타일의 범위를 넓혀 나아가야하는 것이다. 우리가 사역의 현장 속에서 다양한 사역의 상황들을 만나게 된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효과적인 지도력을 수행하기위하여서는 우리 지도력의 스타일이 우리들의 성향을 중심으로 점점 더 넓혀가야 하는 것이다.

5. Case Study

이상의 이론적인 것을 바탕으로 몇 가지 실제 상황 속에서 이런 이론이 어떤 통찰력을 주는지를 살펴보겠다.

Case 1)
A 목사는 한국에서 교육을 받고 미국에 와서 하나의 작은 지역 교회에서 섬기면서 대학부 사역을 담당하고 있었다. 그가 대학부에 학생 지도자들을 세우고 그들과 함께 하는 사역을 추진하고 있었다. A 목사의 개인적인 성향은 참여하기의 지도력 스타일을 가지고 있었다. 즉 과업을 지시하는 행동은 적게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스타일이다. A목사는 그가 섬기는 학생들을 존중했기 때문에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모든 일을 해나가기를 원하였다. 그러나 학생들은 아직도 사역을 감당할 만한 기술도 없고 교회의 일에 의미를 찾고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할만한 동기가 부여되있지 않았다. 이 지도자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상황에서는 지도자의 개인적인 성향은 동기부여가 되어있지만 기술이 없는 그런 추종자들에게 적합한 상태이고 학생들은 기술도 없고 동기부여도 안 된 상태이다. 이런 상태에서는 지도자는 일단 추종자들의 수준에 맞는 지도력 스타일로 움직여야한다. 그들에게 판매하기(Selling) 스타일을 실행해야한다. 즉 할일들을 설명하고 또 할 수 있도록 계속 격려가 필요한 것이다. 많은 경우에 많이 성장해 있는 추종자에게 아직도 미성숙한

방법으로 대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아직 미성숙한 대상들에게 성숙한 사람들에게 사용하는 지도력을 사용하는 것도 비효과적이다. 이 학생들에게는 일을 맡기는 것보다는 설명하고 일을 하도록 독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동시에 학생들로 하여금 스스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도록 그들을 성장 시키는 것들이 필요하다.)

Case 2)
B 교수는 신학교에서 사무처장을 맡고 있다. 그는 신학대학원에서 바로 학위를 받고 학교에 교수로 임용되고 사무처장을 맡게 되었다. 그 학교에서는 학교의 건물을 구입하기 위하여 100만불의 모금활동을 하기로 하고 학생회를 주축으로 이일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그 학교의 학생회장은 영업사원으로 경험이 많고 영업사원훈련을 담당했던 중년의 집사님이 은혜를 받고 신학교에 입학한 사람이었다. 그 학생회장은 늦은 나이에 신학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이 지대하였고 학교가 발전되기를 원하였다. 그래서 모금활동에 자신의 전력을 다 쏟을 준비가 있었다. 이에 비하여 사무처장은 사회와 비즈니스의 경험이 적은 젊은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가 교수였기 때문에 이 일을 총괄하고 학생회장 그를 도와서 이 일을 추진하고있었다. 이일을 준비하면서 그 교수는 자신의 지도자로써의 지위를 생각하여서 그 학생회장과 함께 준비하면서 수시로 이일의 중요성과 이일을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모금할 수 있는지를 자기 나름대로 설명하고 지시하였다. 그 학생회장은 그 교수가 자금을 모으는 것에 대한 생각이 너무 순진하다고 생각되었지만 교수님이기에 그 말을 다 듣고 있어야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활동적으로 자신이 일을 추진하는데 보다는 교수와의 관계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야했다.

(이런 경우에는 지도자인 교수와 추종자인 학생회장의 관계 속에서 최소한 이 분야, 즉 fund-raising하는 일에서 만큼은 학생회장이 충분한 자질도 갖추었고 그 자신이 동기부여도 되있는 상태였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동기부여도 기술도 아닌 일을 할 수 있는 위임이였다. 지도자가 위임형의 스타일을 발휘하여 그저 일을 맡겨주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교수가 지도자로써의 책임과 부담으로 이일의 중요성을 설교한다던지 아니면 일을 어떻게 하라고 지시하면 그 학생회장은 충분히 자신의 일들을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지도력 스타일에 대한 이해는 물론 지도력에서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그러나 지도력 스타일에 대한 이론적인 이해는 지도력의 실행상황 속에서 생기는 많은 문제와 갈등에 대한 이해와 해결에 도움을 준다. 그리고 이것은 세속적인 학문으로 개발된 이론들이지만 기독교 사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들이다. 물론 기독교 지도력에서 스타일 이론보다 더 중요한 이슈들, 즉 섬김의 동기와 목적,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 등이 있지만 지도력을 실행하는 데에서 이런 스타일 이론들이 실제적인 통찰력을 준다. 성경의 지도자들도 살펴보면 사도바울의 경우 상황과 성도들의 성숙도에 따라서 다양하고 유연한 지도력 스타일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서론에서도 언급을 하였지만 지도력 이론은 비즈니스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과 자녀교육에서도 적용되고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김진광 교수(본교 성경신학 및 실천신학 교수)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인 선교(전도)의 사명을 순종 실천 할 때 우리 주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해 주시므로 우리는 아무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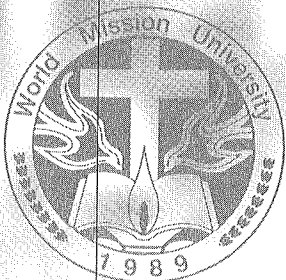
본문: 마태복음 28:19-20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유언의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갈릴리에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최후의 명령으로 주신 말씀으로서 위대한 명령(The Great Commission)이라 불리 우며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고백(The Great Confession)과 대응이 되는 말씀으로 이 지상명령은 복음서의 총 결론이며 "내 증인이 되라"는 사도행전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가서 그들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며 그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지키게 하라는 것으로 교회의 최대 과제인 선교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지상명령을 하시기 전에 이 명령을 주시는 근거를 밝히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마11:27, 요3:35, 13:3 17:2)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지상 명령은 하나님 께서 친히 예수님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주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권세로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자기를 죄 가운데서 구속하여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전파해야 할 절대적인 선교(전도)의 사명과 의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1. "너희는 가서" : 가라 (Go)

본문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명령인 동시에 격려이기도 합니다. 또한 모든 족속에게 가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각 나라와 방언과 족속의 영역입니다. 실제로 주님의 복음은 행1: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전파되어야 하기 때문에 제자들을 향해 복음을 들고 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누군가 가든지 아니면 누군가를 선교 현장으로 보내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과 교회는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선교(전도)는 성도의 의무요 책임인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하기 위하여 "모이는 교회"(Come Structure)도 중요하지만 선교(전도) 하기 위하여 "흩어지는 교회"(Go Structure)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롬10:14-15절

에서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하면서 선교(전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도 가야 합니다. 저 북방 얼음산과 또 대양 산호섬으로 가야 합니다. 저 남방 모든 나라 뭇 백성 사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저 중공, 러시아, 북한, 남아프리카, 남미, 유럽, 아시아등 갈 수 있는 모든 영역으로 가야 합니다. 복음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복음은 사랑이며 생명이기에 복음은 어디든 가야 합니다. 그 이유는 땅 위의 모든 인류는 다 복음이 필요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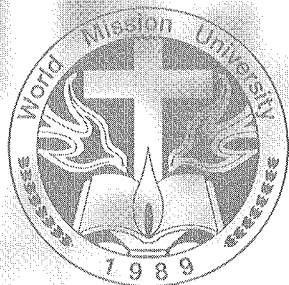
2.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 제자를 삼으라 (Make Disciples)

19절에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제자를 삼으라는 뜻의 "*마데듀사데*"는 가르치고 훈련시켜 학습하는 생도로서 명부에 올리라는 뜻입니다. 즉 먼저 복음을 가르치고 그 복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훈련시키라는 의미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하여금 복음을 알게 하고 그 안에서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이르기까지(엡4:13) 성장시키라는 말씀입니다. 마13:52절에서는 "천국의 제자"라고 하였는데 이는 천국의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행14:21절에서는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는 핍박을 당한 후에 더베로 가서 전도하여 많은 생명을 구원시켰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지상명령의 두 번째 내용인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은 가르치고 훈련시킨다는 뜻으로 완전히 이적을 시켜 천국시민을 만들라는 말입니다. 복음은 특정 지역이나 특정 집단이나 특정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세계적이고 우주적인 것을 가르쳐 주는 명령입니다. 복음의 대상은 제한이 없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장은 허물어졌으며 모든 족속은 제한 없이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모든 족속은 아직 믿지 않는 이방 민족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3.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 세례를 주라(Baptize)

여기에 성스러운 삼위 하나님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례를 행할 때에 전 신격적인 삼위 하나님의 온전함이 함께 역사 하심을 의미합니다. 즉 천지의 주재자시요, 창조주시요, 섭리자이신 성부 하나님과, 말씀 (로고스)이 되시어 성부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사 자기 피조물의 구원자 되시며, 하늘 나라에서 왕 되시는 성자 하나님과, 죄를 고백케 하시며 위로자 되시고 중보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전신격(傳神格)이 함께 역사 하시어 조화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한 생명을 구원시키심에는 이처럼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함께 역사합니다.

세례를 준다는 말의 "*밥티조*"는 씻다, 잠그다, 목욕하다, 뿌리다 의 뜻이 있습니다.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에 잠김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목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네 가지의 뜻을 합하면 인을 친다는 것인데 인을 친다는 것은 소유의 확보를 의미합니다. 세례를 줄 때 제자들의 권위로서

가 아니라 성부이신 아버지와 성자이신 아들과 보혜사 이신 성령의 이름으로 인을 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물로 만들라는 말입니다.

4.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 (Teaching them to obey everything)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가르치라는 말의 디다스코는 자라게 한다 성장시키다 라는 말로 양육하라는 의미입니다.

제자들이 3년간 예수님께로부터 들은 교훈을 가르치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복음 전파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르쳐의 헬라어 "*디다스콘테스*"는 현재 분사형으로 계속해서 가르치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르치는 것은 교회의 중요한 사명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말씀에서 기독교 교육의 필연성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교회의 임무가 끝나지 않습니다. 가르친 것을 삶 속에 실천하도록 양육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키게 하는 것(양육)은 가르치는 것(교육)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사도 요한은 계1:3절에서 "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위대한 선교사이신 동시에 또한 교육가 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몸 된 교회는 주님의 직능을 지상에서 계속 수행하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선교적 직능인 "*게류그마*"(마12:41) 곧 하나님 말씀의 선포와 기독교 교육적 직능인 "*디다케*"(마7:28)) 곧 가르침을 조화 있게 수행해 나가야 하는 사명적, 책임적 기관입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의 내용은 사중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먼저 가야하고, 그 다음은 제자로 만들어야 하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켜 영화에 이르도록 양육해야 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닌 만 왕의 왕이시며 전지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부탁이며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이 명령을 받은 우리는 참으로 복되고 영광스러운 자 들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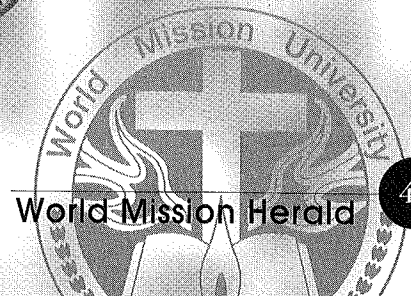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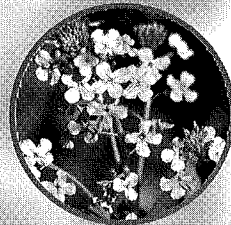
5. "볼찌어다 내가 세상 끝날 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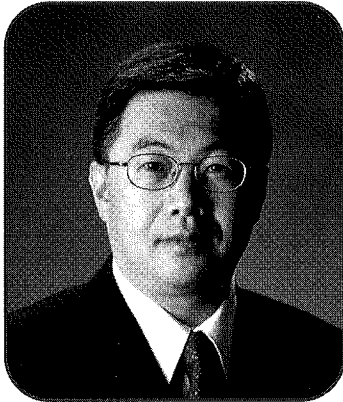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세상 끝날 까지 중단 없는 영적 임재를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항상 우리와 함께 현재적으로 같이 계심을 의미합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에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 두지 아니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요14:18)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역사 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은 이미 그의 탄생 시에도 있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마1:25) 예수님은 태초부터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 영원토록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신앙이야말로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신앙 의식이며 확신이며 축복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지상명령을 성취할 수 있는 확실한 보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본문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보장의 약속입니다. 이 얼마나 든든한 보장입니까? 그러므로 선교(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

리 모두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주님의 약속의 축복이 보장되어 있음을 믿고 힘써 더욱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요8:29절에서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므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고 보장해 주셨습니다.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은 매일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좋은 날이나 궂은 날이나 여름이나 겨울이나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평화의 때나 환란의 때나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리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옥중에 있을 때도 주님이 함께 해 주셨습니다. 이 보장은 "세상 끝날까지" 입니다. 세상 끝날 이란 지구나 인류의 종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완성되는 재림시기 까지를 말합니다. 즉 영원히 라는 보장입니다.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 !!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인 선교(전도)의 사명을 순종 실천 할 때 우리 주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해 주시므로 우리는 아무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보내시는 저 세상으로 복음을 가지고 가서 전파하면서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가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실천하여 우리 각자에게 맡겨 주신 세계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영혼 구원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하며 헌신하시는 졸업생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가 세상 끝날 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앞날과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멘

임기태 교수(본교 기획실장 및 신학영어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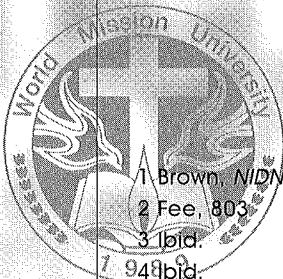
Paul's Pneumatology

The presence of the Spirit is both the evidence of our salvation, and the guarantee of our sharing in the future glory of God through Christ.

Introduction

Paul deserves the title, "the theologian of the Spirit," for he gives more teaching on the Spirit than we find in any other literature of that time.[1] There have been numerous volumes on the subject of Pauline pneumatology, and the recent studies have a tendency to be huge in terms of coverage and page (several hundreds to almost a thousand). Obviously I can deal with only a fraction of the subject in this limited effort. This means that I have to be highly selective in summarizing the important findings, and in engaging in critical discussions of the issues. In doing so, I will consult with Fee; Dunn; Schweizer, *TDNT*; Paige, Robeck, *DPL*; Horn, Johnson, *ABD*; Brown, *NIDNTT*. I will generally follow the basic structure of "Part II - Synthesis" in Fee's "God's Empowering Presence."

Eschatological Fulfillment

The primitive church was an eschatological community.[2] The early Christians recognized the beginning of the eschatological period, as they were foretold by OT prophesies, by witnessing the resurrection of Christ and the gift of the eschatological Spirit. This shifted their eschatological perspective toward present from their Jewish understanding of the future eschatology. They began to recognize that the "future had already been set in motion"[3] and the new era had dawned which marked the "beginning of the End."[4] The out-pouring of the Holy Spirit gave the early church a late awakening toward this perspective, while in fact the new age had already begun with the resurrection of Christ. Therefore, experiencing the Pentecost and remembering the prophecy of Joel (Joel 2:28-30), Peter was able to boldly proclaim that the crucified Jesus is the Lord and Messiah (Acts 2:36). Thus the Spirit became both the evidence of present salvation activity, and the guarantee of the future consummation of God's redemption.

Paul gives us several metaphors to emphasize this twofold role of the Spirit. The most prominent ones are "down payment," "firstfruits," and "seal." What do these metaphors mean? These are the "evidence that the eschatological promises of Paul's Jewish heritage have been fulfilled."[5] These tell believers not only to endure the

1 Brown, *NIDNTT*, 3:700
2 Fee, 803
3 Ibid.
4 Ibid.
5 Ibid., 808

present but also to eagerly await the future in hope which is guaranteed by the presence of the Spirit. The consummation of God' s redemption will be climaxed with the resurrection of the believers decaying bodies into the Spiritual bodies as it was evidenced in the resurrection of Christ.[6)]

Paul carried the flame, ignited by the out-pouring of the Spirit, to the Gentile. As a result, one body of believers (out of two; Jews and Gentiles) was created, and it was a fulfillment of the promise given to Abraham (Gen 12:3b). For this new people of God, the coming of the Spirit meant that now the new covenant was in effect as it was promised in Jer 31:31-34. For Paul, it was to "fulfill in us who walk by the Spirit the righteous commandment of Torah (Rom 8:4)," thus the old covenant (Torah observance) had come to an end.[7)] With this new covenant, the Holy Spirit enables the people of God as promised in Ezek 36:27, "I will put my Spirit in you and cause you to follow my decrees."

Paul described the believer' s life under the new covenant as "according to the Spirit" in contrast to the life "according to the flesh." To understand this clearly, Pauline meaning of the word "flesh" needs to be defined. This issue is highly important and bears a significant impact on the overall understanding of Pauline pneumatology. Thus I would like to engage in a rather detailed discussion here. There are three different major interpretations about flesh.

1) Flesh as a principle of sin or as a hostile cosmic power. Some suggest the flesh as a cosmic power hostile to the Spirit (Bauer; Weiss; Brandenburger; Strecker); as a principle of sin (Bauer; Pfleiderer; Oepke; Ridderbos); as something like a Gnostic aeon (Kasemann); as power to which man has fallen victim (Bultmann).[8)]

This interpretation is hardly convincing. During the Second Temple period, there was a tendency to use flesh in an extended and heightened way. Driving from this period, flesh formed part of both a cosmological and anthropological dualism.[9)] Sin can certainly be described as a cosmic power in Paul' s thinking. However, it is more accurate to describe sin as making its footholds in the flesh, rather than flesh as a principle of sin or a cosmic power.[10)] Therefore, flesh is not that it is sinful but that it is vulnerable to the enticements of sin, flesh is, as Dunn depicts, "the desiring I."[11)]

2) Flesh as a psychological term. The idea as the seat of sensuality, can be summed up in the phrase "the pleasures of the flesh."[12)] This understanding denotes the frailty and corruptibility which attaches closely to the Hebrew *basar*.[13)] Schweizer distinguishes *en sarki* and *kata sarka*: the former denotes simply life on earth; the latter denotes "the conscious spiritual orientation of life on the earthly level."[14)] He explains that *sarx* "becomes bad only when man builds his life on it."[15)]

According to this interpretation, the word "flesh" simply indicates and characterizes the weakness of humanity, and always vulnerable to the manipulation of its desire and needs. Dunn who is the strongest advocate of this position declares, "Flesh for Paul was neither unspiritual nor sinful."[16)] However, in this interpretation, human weakness is viewed with a moral connotation based on the fact that no person is justified before God.[17)] Therefore, Dunn also claims that the negative force of *sarx* is mortal, defective, disqualifying, or destructive, when set in against *pneuma*, and thus it can be characterized as a source of corruption and hostility to God.[18)] Because

6 See Ibid., 806–810, for detail.
7 See Ibid., 811–815 for detail.
8 Dunn, 62
9 Schweizer, *TDNT* 7:110–24
10 Dunn, 67
11 Ibid.
12 Schweizer, *TDNT* 7:104–105
13 Dunn, 63; Cf. Fee, 818
14 Schweizer, *TDNT* 7:130–131
15 Ibid., *TDNT* 7:135
16 Dunn, 70. However, Fee, 818n.35, points out that Dunn, some years ago in his thesis "Jesus–Flesh and Spirit," attempts to make *kata sarka* (Rom 1:3; 4:1) carry morally pejorative overtones. Fee argues that Dunn' s confusion of "frailty, weakness" with "morally pejorative" triggers his understanding of human weakness and suffering on the side of "flesh = sinful." It seems that Dunn changed his position since then as he now says, 65n.66, "I would still wish to say there may be something in my earlier thesis regarding Rom: 3–4 ("Jesus–Flesh and Spirit")."
17 Ibid., 64
18 Ibid., 65

of this understanding, this interpretation inevitably views the life of believers as a constant struggle between the flesh and the Spirit.

Against this interpretation, Fee argues that "nowhere does Paul describe life in the Spirit as one of constant struggle with the flesh."[19] According to Fee, Paul's position is the sufficiency of the Spirit as believers live in the present already-but-not-yet existence. Before I go into a further discussion on this matter, it would be better to consider the third interpretation first.

3) Flesh as an eschatological term. A. Schweitzer suggests that "being in Christ" is a state of existence which has taken the place of the physical "being in the flesh," therefore "being in the Spirit" means no longer "being in the flesh."[20] E. Schweizer says "The man who has come to faith in the Son of God is no longer in the sarx, for he believes, and he has thus ceased to build his life on the *sarx*, which is to sin."[21] Fee seems to carry these ideas further. He argues that Paul uses the word flesh eschatologically.[22] This view is mainly based on his exegetical analyses of Gal 3:1-5 and 5:16-18. He argues that the incompatibility of the Spirit and Torah observance in 3:1-5 is mirror imaged as the incompatibility of life in the Spirit with life in the flesh in 5:17.[23] If this analysis is right, the Spirit and the flesh belong to different worlds. This is why the life in the Spirit excludes following the desire of the flesh. Fee argues, "There is not a hint in any of this that 'warfare' is going on in the human breast, which in effect leaves the believer in a state of helplessness."[24] According to Fee, *kata sarka* and *kata pneuma* describe two kinds of existence: "one that belongs to and is conditioned by the present age that is passing away; the other describing our new eschatological existence set in motion by Christ and Spirit."[25]

According to this interpretation, *sarx* began as a purely anthropological term in the physical sense, evolved with a more theological sense (human frailty), and finally into unique Pauline usage in a thoroughly eschatological sense.[26] Therefore, "in the flesh" denotes existence of those who do not know (outside of) Christ, and thus describes believers before they came to be in Christ, and "in the Spirit."[27]

Dunn strongly argues against this interpretation. He claims that Paul never speaks of flesh as a power, or a condition which the believer has escaped.[28] The believer still lives in the mortal flesh; within the context of human living, conduct cannot be other than in the flesh; it would be as impossible as a bodiless existence.[29] His conclusion to this matter is that believers are still in danger of succumbing to the flesh, to its weakness and desires, thus they have to maintain their alignment with the Spirit and resist the lure of sin in flesh.[30] Brown seems to be in agreement with Dunn when he says that the believers life in the present is characterized by a tension and even warfare between the old age and the new, between the desires of the flesh and those of the Spirit, each seeking to gain the mastery over him.[31]

Both Fee's and Dunn's positions can be well supported by the Scripture, actually in many cases both (and many other scholars) view the same verses in support of their own different positions. Thus this debate is rather a matter of scholarly one. The issue of the debate seems to be "the constant inner struggle vs. the sufficiency of the Spirit," or "anthropological vs. eschatological" understanding. Dunn's (and many others') position seems to be genuinely Calvinistic with a

19 Fee, 817
20 Dunn, 62–63
21 Schweizer, TDNT 7:135
22 Fee, 817
23 Fee, 434. Also see note 231.
24 However, this (helplessness) is a dominant view, according to Fee, 435n.233, "despite the problems it poses contextually (see 429n.213). The view takes two forms: (a) that one is helpless because of the presence of the flesh; (b) that the conflict between the two thwarts the believer."
25 Ibid., 816–817
26 Ibid., 819
27 Ibid.
28 Dunn, 68. His view is that the believer is helpless because of the presence of the flesh. See my note 24 above.
29 Ibid.
30 Ibid., 480
31 Brown, *NIDNTT*, 3:702

highlight on the constant struggle between the flesh and the Spirit.[32] On the other hand, Fee' s position seems to represent a typical Pentecostal (or Wesleyan) view, which is much more optimistic comparing to the rather pessimistic Calvinistic view.

Dunn accuses Fee "becomes quite muddled"[33] on the issue, claiming that Fee accepts the believer does succumb to the flesh while the flesh already passed away as a factor in the life of the believer. But is this a fair accusation? I do not believe so. The way Fee argues for his point is not easy to follow. It seems to me that Fee' s understanding of the struggle between "in the flesh" and "in the Spirit" is in the same manner with the struggle between the ages, the old and the new. The struggle exists in the life of believers, according to Fee, but it is not inevitable, in fact it is not supposed to exist because the Spirit is sufficient. Why does it exist? Because believers do not rely on the sufficiency of the Spirit. The flesh belongs to the old age, thus is destined to pass away. Therefore, the struggle is not a constant inner struggle, while Dunn views that it continues as long as the believer continues to exist in earthly level. As one can see, Dunn' s position is almost a fatal one - there is no escape from this struggle. On the contrary to this position, Fee regards this struggle is real in so much as the power of the Kingdom of God is real against that of the kingdom of Satan. But Fee' s focus is not on the weakness of the flesh, but on the sufficiency of the Spirit in the new eschatological existence. Therefore, his position is thoroughly eschatological. As a result, Fee' s interpretation is more optimistic instead of fatal. The victory is promised in the Spirit and the believer eagerly awaits its final consummation, not in helplessness, but in hope. It is already available in the Spirit even though its consummation is not yet fully realized. The departure points of two views of Dunn and Fee may not be far away, but the resulting positions toward the life of believers are radically different from each other in terms of practical theology (thus church life). One is inevitably pessimistic, and the other, more optimistic and hopeful. Because of this hopeful understanding of our eschatological existence, I am in line with Fee, even though I cannot totally dismiss Dunn' s view on the flesh. Therefore, in conclusion about this matter, the flesh and the Spirit describe the essential characteristics of the two ages denoting our present "already but not yet" existence, in which we have the guarantee of, and the hope for the eschatological consummation.

This interpretation has a direct impact on the next issue of Pauline pneumatology, the life of believers as being empowered in the weakness. Paul seems to view the Spirit as the source of empowering in the midst of affliction and weakness. In his view, knowing Christ means to know "both the power of His resurrection and the fellowship of His sufferings (Phil 3:9-10)."[34] The presence of the Spirit means the presence of power. However, because the Spirit has not brought the final consummation, only the beginning, this power does not mean perfection in the present, but rather leads to maturity in Christ.[35] Thus the Corinthians had to be taught that to be a spiritual person may mean weakness and suffering, not glory.[36]

Dunn also claims, "This is an astonishing feature of Paul' s pneumatology: the Spirit experienced not in power, but in weakness."[37] And, human "weakness was the prior condition for the most effective operation of the Spirit."[38] It seems that Dunn has some inconsistency here. As I noted above (on p.6), Dunn says that

32 Thus Paige, *DPL*, 409, says, " Calvin and several modern exegetes (Cranfield, Dunn) understand Rom 7:14–25 as referring to the experience of a believer, and hence modifying the seemingly absolute statements of freedom from the power of the flesh in Rom 8:1–11. The Christian, though redeemed, may still be described as 'fleshly,' 'sold under sin' and helplessly subject to its power until the resurrection." However, most scholars see it as referring to life prior to conversion.
33 Dunn, 480n.86
34 Fee, 825
35 Ibid., 826
36 Paige, *DPL*, 407
37 Dunn, 438
38 Ibid., 439

believers are still in danger of succumbing to the flesh, to its weakness and desires, thus they have to maintain their alignment with the Spirit and resist the lure of sin in flesh. It means that the human weakness is thus a danger, a potential obstacle against the work of the Spirit. But here, he say that this weakness helps the Spirit to be most effective. This does not make a sense unless Dunn is understood as saying that one should rely on only the Spirit because the flesh is not to be trusted, thus the Spirit becomes effective by not trusting the flesh. However, according to Dunn, the believer is not free from the weakness of flesh, thus he or she is in a constant struggle against it. Then how can "being in the struggle caused by weakness" be the condition for the effective operation of the Spirit? Again this matter can be better explained by the eschatological interpretation. "The best evidence that Paul does not include the Spirit-flesh antithesis within his understanding of being empowered in weakness is that he can speak to positively of living weakness, so much so that it is for him a cause for boasting and thus for eschatological joy."[39]

God's Personal Presence

Fee claims, "Paul's main interest in the Spirit is experiential."[40] According to Schweizer, "Long before the Spirit was a theme of doctrine, he was a fact in the experience of the community."[41] So in Paul, we see the diverse imagery which indicates the kind and range of experiences attributed to the Spirit, and of how the first believers struggled to find an appropriate terminology to illustrate them.[42] A caution must be taken in asserting this type of new and dominant experience because any attempt to grasp it involves a conceptualization.[43] Thus one should not let his or her experience alone dominate and dictate the understanding of the Spirit. Nonetheless, from the broad range of Paul's images, one can see a struggle to find language suitable to express a reality freshly experienced.[44] This existential reality of receiving the Spirit was the center of his understanding on the issue of Christian discipleship.[45] And from this language we find the Spirit as a person.[46]

Paul speaks of the Spirit critically in relation to all of his and other's experiences. Among the descriptions of the Spirit, "the Spirit of Christ" is a critical conceptual tool which enabled him to evaluate experiences and to distinguish them. Only those experiences which manifested the Spirit as the Spirit of Christ were to be recognized and welcomed.[47] Therefore, all believers experience the sharing in Jesus' own prayer of sonship by saying in the Spirit, "Abba! Father!"

Not only the Spirit is experienced as the Spirit of Christ, but also as the presence of God Himself. By the Spirit, the presence of God has now returned to His people, to dwell among them corporately and individually, and to empower them to walk in His ways. Therefore, the indwelling Spirit is the fulfillment of the promise from God that He would once again be present with His people.[48]

Soteriological Work

Two things need to be noted about the salvation.[49] First, salvation is an essentially eschatological reality. Second, characters of the triune God are vividly portrayed in the salvation. The Father's redemptive love initiated our salvation, the

39 Fee, 823
40 Ibid., 829
41 Schweizer, *TDNT*, 6:396
42 Dunn, 426
43 Ibid., 426–427
44 Ibid., 428
45 Ibid., 434; Cf. Fee, 854
46 Paige, *DPL*, 405–406, points out, "Some scholars think these remarks no more point to personhood than do remarks which seem to personalize the power of sin or of the flesh." However, Paul "is eager that his churches know what sort of personality the Spirit has: he has the character of God, and more precisely, of Jesus Christ."
47 Dunn, 433
48 Fee, 845
49 See Ibid., 846, for detail.

Son effected it, and the Spirit makes it effectual. The salvation is in Christ, and it is realized in the life of the believer by the Spirit. In the same sense, the resurrection of Christ is rather soteriological than Christological. The presence of the Spirit is both the evidence of our salvation, and the guarantee of our sharing in the future glory of God through Christ.

The soteriological work of the Spirit begins with the proclamation of the truth and the conviction of sin, working in both the proclaimer and the hearer. The Spirit is both the cause and the effect of faith. Christ is the object of faith, and the Spirit is the means whereby faith is sustained.[50] The death and resurrection of Christ is the objective historical reality which are conveyed to the believers. At the point of conversion, this objective historical reality becomes for the believer an objective positional reality in terms of his or her relationship with God. The Spirit is the crucial element in this experiential appropriation causing some radical changes in the believer.[51]

In Paul, soteriological metaphors, which are connected with redemption, propitiation and reconciliation, are not used in conjunction with the Spirit.[52] They are used to refer to Christ' s saving work. But those metaphors (adoption; washing; rebirth; life-giving; sanctification) which emphasize the believer' s soteriological experience are frequently used in conjunction with the Spirit.[53] This variety of metaphors indicates that no single one will capture the multifaceted work of Spirit in Christian conversion.[54]

The Manifestation of the Spirit and the People of God

"God is not just saving individuals and preparing them for heaven; rather, He is creating a people for His name, among whom God can dwell and who in their life together will produce God' s life and character."[55] Paul views the people of God as the believing community, and it is well depicted in his three major images for the church (family; temple; body). In the body metaphor, the need for unity and diversity is clearly illustrated. The right relationship with God and with fellow believers demands right living. Therefore, ethics for Paul is a theological issue: the purpose is the glory of God; the pattern is Christ; the principle is love; the power is the Spirit.[56] Thus the fruit of the Spirit denotes the reproduction of the life of Christ in the believer. Paul' s ethical injunction is to "walk by the Spirit." The metaphor of daily "walk" of life is not a typical Greek idea,[57] but characteristically Jewish, denoting a Hebraic ethical thinking which replaces Israel' s Torah ethic.[58] The life led by the Spirit means that the believer now is guided by the "sense or instinct for what is right and appropriate in any given situation."[59] This capacity to discern is not something which could be read off from a law code or rulebook. It requires much more Spirit-enabled sensitivity. Thus the intention of the law is met: God' s will be done.[60]

The word *charisma*, indicated by its very formation, *charis-ma*, denotes the result of the act of divine gracious giving.[61] Therefore, the character of the *charism* is for the benefit of others, and enabled by divine power.[62] For Paul, the archetypal charisma is the gracious act of Christ on the cross.[63] Charism is also the manifestation of the Spirit for the common good of the believers. The list of manifestations of the

50 Ibid., 853; Cf. Horn, *ABD*, 3:275
51 Fee, 854
52 Ibid., 855–856
53 Ibid., 856–859
54 Ibid., 859
55 Ibid., 872
56 Ibid., 879
57 Seesemann, *TDNT*, 5:941
58 Dunn, 643
59 Ibid., 648. He quotes Oscar Cullman, "the capacity of forming the correct ethical judgment at each given moment."
60 Ibid.
61 Ibid., 553
62 Ibid., 554; Cf. Fee, 161
63 Dunn, 559

Spirit in the Scripture may be categorized into three groups:[64] 1) Forms of service - serving, giving, and caring. These are related with the relationships within the church. Thus they are rather Spirit activities than manifestations; 2) Miraculous - faith, gifts of healings, and workings of miracles. The use of plurals (gifts; workings) probably indicates that these are not permanent; 3) Inspired utterance - message of wisdom, message of knowledge, prophecy, discernment of spirits, tongues, interpretation of tongues, teaching, revelation, exhortation, singing.

Three things about these manifestations need to be noted: 1) The purpose is to build up the church and to bring its members encouragement and consolation (1 Cor 14:3-4); 2) The list clearly shows that the character of the charismatic community should be one of mutual interdependence. For examples, tongues-speaker needs an interpreter to edify the congregation, and a prophecy needs to be tested by the community to avoid an error;[65] 3) The focus should be toward the giver rather than the receiver, since it is a manifestation of divine grace.[66]

Among these manifestations of the Spirit, tongues needs a further consideration. Despite the fact that glossolalia may have appeared in several forms in the history, including NT period, it is generally assumed that it is a single phenomenon.[67] Three definitions have been suggested.

1) Angelic Language. This is derived from Paul, "If I speak with tongues of angels (1 Cor 13:1)." Dunn believes this is the case, with the support of Jewish literature.[68] Fee suggests that this is "what the Corinthians understood glossolalia to be, and that therefore they considered it one of the evidences of their having already achieved something of their future heavenly status."[69] However, the very fact that the phrase "tongues of angels" appears in this context seems to indicate that Paul' s remark could be sarcastic, rather than informative.

2) Unknown Human Language. Fee believes that there are two kinds of glossolalia: angelic speech, inspired of the Spirit to speak in the heavenly dialect; human speech, inspired of the Spirit but unknown to the speaker or hearers.[70] However, careful linguistic study by modern glossolalists has demonstrated that glossolalia is not a "real but unknown" language, but rather "language-like" in its patterning of sounds; the "interpretation of tongues" is not the translation of a language but a separate utterance altogether.[71]

3) Ecstatic Utterance. Johnson argues that the textual and comparative evidence supports it is an utterance which is a form of ordered babbling (i.e. inarticulate cries: 1 Sam 10:5-13; 19:18-24); it can be characterized as the linguistic symbol of spiritual release.[72] Seventeen years of my own experience in this matter seems to support this hypothesis also. "Glossolalia is private and noncommunicative. God is praised and the person who prays edified, but neither the mind nor the community bear any fruit from this activity."[73]

Conclusion

The Spirit is not the center for Paul - Christ is, but the Spirit plays the absolutely crucial role in Paul' s Christian experience.[74] Paul' s pneumatology is thoroughly eschatological. Two evidences of the end time, the resurrection of Christ and the out-

64 Fee, 887–889; Dunn, 555–556, suggests two groupings: charisms of speech, and charisms of action.
65 Dunn, 557
66 Robeck, *DPL*, 943
67 Johnson, *ABD*, 6:596
68 See Dunn, 556; Cf. Johnson, *ABD*, 6:597, though he doesn' t agree with this hypothesis; Fee, 890, thinks there are two kinds of glossolalia.
69 Fee, 890
70 Ibid.
71 Johnson, *ABD*, 6:597
72 See Ibid., 6:597–598, for detail.
73 Ibid.
74 Fee, 896

poring of the Spirit, caused Paul to radically alter his eschatological perspective.[75] Thus in his mind, the Spirit became both the evidence that the future is already set in motion in the present, and the guarantee for the future fulfillment of the eschatological promises: These tell believers not only to endure the present but also to eagerly await the future in hope which is guaranteed by the presence of the Spirit. The perspective of Pauline pneumatology is the dynamically experienced Spirit in the life of believers, and this is presuppositional for Paul so that he doesn' t argue for, but from.[76] By the Spirit, the presence of God has now returned to His people as promised, to dwell among them corporately and individually, and to empower them to walk in His ways. The characters of the triune God are vividly portrayed in the salvation. The Father' s redemptive love initiated our salvation, the Son effected it, and the Spirit makes it effectual. Therefore, the resurrection of Christ is rather soteriological than Christological. The presence of the Spirit is both the evidence of our salvation, and the guarantee of our sharing in the future glory of God through Christ. The Spirit empowers believers to live an ethical life, and with his *charisma*, he helps them to build up the believing community as they gather together to worship God.[77]

Bibliography

Brown, C. ed. *The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New Testament Theology*. Grand Rapids: Regency, 1978

Dunn, J. D. G. *The Theology of Paul the Apostle*. Grand Rapids: Eerdmans, 1998

Fee, G. D. *God' s Empowering Presence*. Peabody: Hendrickson, 19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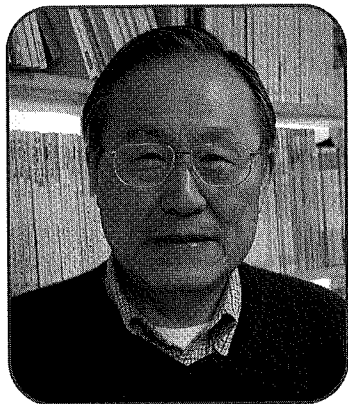
Freedman, D. N. ed. *Anchor Bible Dictionary*. New York: Doubleday, 1992

Hawthorne, G. F., Martin, R. P. and Reid, D. G. ed. *Dictionary of Paul and His Letters*. Downers Grove: IVP, 1993

Kittel, G. and Friedrich, G. ed.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1978

75 Ibid., 897
76 Ibid.
77 Ibid., 899

김찬희 교수(본교 신약학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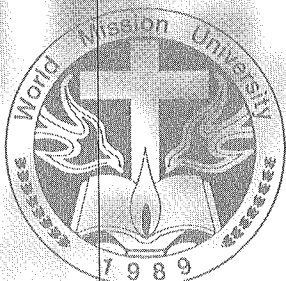
한인 교회의 지난 100년을 돌아보며

우리가 특기해야 할 사항은 한인 교회가 지난 100년 동안 미주 한인 사회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오늘날까지도 담당해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두고 온 조국의 현대사는 피로 얼룩진 고통과 고난의 역사입니다. 그것은 주변 강국들의 약탈과 내적으로는 부패한 사대부들의 착취와 억압으로 가중된 민족 수난의 연속이었기 때문입니다. 병인양요(1866)를 시작으로 신미양요(1871), 일본과의 불평등한 병자수호조약(1876년), 임오군란(1882), 갑신정변(1884), 동학농민봉기(1894), 갑오경장(1894-1896), 청일전쟁(1894-1895), 을미사변(1895), 아관파천(1896), 노일전쟁(1904), 을사조약(1905) 등으로 이어지는 민족 수난과 개화의 어려웠던 시기는 실로 민족의 역사를 바꾸어 놓은 격동기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엽까지의 한국의 역사는 어느 의미에서 세계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하여 민족이 새로 태어나는 출산의 수난기였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대적 배경 속에서 한민족의 미주에의 이민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한민족을 어여삐 여기셔서 1903년에 처음으로 이 미주 땅에 우리 민족이 이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오래 전에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사 이미 삶의 기틀이 마련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셨듯이, 우리 한민족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미주 땅을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울부짖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들이 "세우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들이 있고. . . [그들이] 파지 않았지만 이미 파놓은 우물이 있고, [그들이] 심지 않았지만 이미 가꾸어 놓은 포도원과 올리브 밭"이[1] 있는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우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들"과, 광활한 대륙에 거리낌 없이 달릴 수 있는 고속도로와, 우리가 가꾸지 아니한 비옥한 농토와, 우리가 건설하지 않은 인프라 구조와, 우리가 세우지 아니 한 기업들이 있는 이 미주 땅을 우리 한 민족에게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껏 먹고 마시며 살 수 있도록 하여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미 생활의 터전이 마련되어 있는 이 곳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놀라운 역사적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몸 된 교회와 그의 충실한 종들을 통하여 이 일을 성취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100년 전에 새 가나안 땅으로 우리가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미 북장로교회의 첫 의료 선교사로 한국에 와있던 Dr. Horace N. Allen과 인천 내리감리교회의 George Heber Jones 목사님을 통하여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와이의 사탕수수농장주협회가 한인 농부들을 필요로 할 때, 그들의 부탁을 받은 Allen 의사는 당시 선교사 직을 사임하고 미국을 대표하는 주한 미국 공사(1897-1905)로

1) 신명기 6:10-11, 표준 새 번역.

활약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갑신정변 때, 민 비의 조카였던 민영익의 생명을 구해준 덕분으로 황궁에 자유로이 드나들며 고종황제를 쉽게 알현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민을 위한 고종의 윤허를 받기 위하여 고종에게 이민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가 내세운 이유는 첫째, 주변 열강들, 특히 일본, 중국, 러시아가 대한제국을 지배하려는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는 이 마당에 많은 한인들을 미국에 내보냄으로써 미국과의 우호 관계가 돈독하여져 이들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며, 둘째로, 기근으로 인하여 많은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때, 백성들을 조금이라도 국외로 내어보내면 그 만큼 나라에 도움이 될 것이며, 셋째, 종주국의 국민들인 중국인들이 갈 수 없는 미국에 한국 신민들이 갈 수 있다는 것은 하나의 특권이며,[2] 넷째, 수민원이란 기구를 의정부(議政府)에 두지 않고 궁내부(宮內府)에 둠으로써 궁에서 쓸 수 있는 재정적 수입을 늘일 수 있다는 것으로 고종을 설득하였습니다.[3]

이에 고종황제는 별 이의 없이 Allen의 요청을 1902년 11월 15일에[4] 들어 주었습니다. 고종의 윤허를 받은 Allen은 곧 이민 업무를 맡을 사람을 구하는 중에 같은 Ohio 출신의 Deshler라는 사업가를 만나 이 업무를 맡겼었습니다. Deshler는 한국에 와서 사업하고 있던 사람으로서 이민 업무를 적극적으로 맡아서 일하려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그는 뜻하지 않은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당시 한국 사람들은 조상의 묘가 있는 고향 땅을 버리고 떠나는 것을 불효막심한 자손들이나 하는 짓으로 여겨 이민에 쉽게 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민을 모집하지 못하고 있던 Deshler에게 큰 도움을 준 분이 바로 인천 내리교회의 담임자요, 그 지방 감리사로 시무하고 있던 Jones 목사였습니다. Jones 목사는 한국어에 능통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인을 특별히 사랑하여 그들의 복지를 늘 염려하던 미 감리회의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Deshler의 요청을 흔쾌히 받아드려 이민을 장려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Jones 목사는 먼저 Deshler가 내리교회 안에 동서개발회사, 곧 East-West Development Co.와 데쉴러 은행, 곧 Deshler Bank를 세워 이민 업무를 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한인들의 고통을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아파하던 Jones 목사는 내리교회 교인들에게 하와이로 이민 갈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나섰습니다. 목사를 신뢰하던 많은 교인들은 그의 이야기를 듣고 이민을 가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내리교회 교인을 비롯하여 그 주위에 있는 감리교회 교인들 약 50여 명이 Jones 목사가 인도하는 송별 예배를 드리고 눈물의 작별을 하며 고향 땅을 떠났습니다. 일본 나가사끼(長崎) 에서 신체검사에 합격한 마지막 102명이 Gaelic호를 타고 열흘이 넘는 항해 길을 하와이를 향해 떠났습니다. 그들이 떠나기 전에 Jones 목사는 Hawaii 감리사인 George L. Pearson 목사에게 소개장을 써주었습니다.

이 이민선의 첫 배에는 50여 명의 감리교도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항해하는 동안 매일 선미에서 예배를 드리며 왔는데, 그들 가운데 통역으로 온 안정수 권사와 김이제 권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한인 교회는 이미 태평양 선상에서 시작되었다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연의 일치라 하기에는 너무도 믿기 어려운 사실은 1620년 Mayflower 호를 타고 Plymouth Rock에 도착한 청교도들의 수도 102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종교적 탄압을 피하여 새 가나안 땅을 찾아 온 청교도들과 마찬가지로 미주의 첫 감리교도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로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살기 위하여 이 땅을 찾아 온 것입니다.

첫 이민선이 Honolulu에 도착한 것은 1월 12일 자정이었으며, 배는 13일 새벽 3:30

2) 1882년의 "중국인 이민금지법"을 뜻했습니다. Wayne Patterson, *The Korean Frontier in America: Immigration to Hawaii, 1896-1910*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88), 41 이하 참조.

3) Patterson, 위의 책, 42.

4) Patterson, 위의 책, 43. 『미주 한인감리교회 백년사』 제II권, 12 참조.

분에 항구에 정박하였습니다. 이들을 처음 마중 나온 사람은 바로 Jones 목사의 연락을 받고 나온 Pearson 감리사였습니다. 그는 하와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던 인사였기에 이민관에게 부탁하여 이민자들이 하선하지 않고 배 안에서 이민 수속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었습니다.[5]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은 그의 종들을 통하여 임하였습니다.

이들 첫 이민자들은 모두 Waialua Plantation에 있는 Mokuleia Camp로 가 여장을 풀고 여기서 이민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배에서와 마찬가지고 이들은 여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민 생활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미주 한인 교회는 이 곳에서 출발하여 하와이뿐만 아니라 미국 본토에까지 뻗쳐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첫 이민의 행렬은 일본의 끈질긴 방해 공작과 을사보호조약으로 말미암아 1905년 8월 8에 들어 온 마지막 배를 끝으로 곧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 때 하와이로 온 한인 인구는 만 명도 못 되는 7226명뿐이었습니다. 미 감리회의 Noble 선교사가 1904년에 하와이를 방문하고 증언하는 바와 같이 하와이, 사탕수수농장주협회는 1905년에 한인들의 이민을 3만 명 이상 더 받아들이기로 계획했었으나 이 일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6] 그리하여 1965년에 인종차별적인 미국의 이민법이 바뀔 때까지 60년 동안 한인들의 이민은 극소수의 유학생들과 국제 결혼한 여성들에 한하였습니다.

첫 이민들이 하와이에 오는 때와 같이하여 미주 본토에도 1904년에 믿음의 공동체가 형성되기 시작하였습니다. 1904년에 Los Angeles와 San Francisco에서 적은 무리들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써 한인 교회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1907년에 시작하여 지금까지 존속하고 있는 하와이의 올리브연합감리교회의 뒤를 이어 1914년에는 오클랜드한인교회가 탄생하였으며, 1922년에는 뉴욕한인교회가, 1년 뒤인 1923년에는 시카고 교회가, 1951년에는 와싱톤한인교회가 탄생하였습니다. 동부와 중부에 있던 이들 교회들은 주로 유학생을 주축으로 이루어졌으며, 교회는 이들에게 외국 생활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쉬게 하여주는 곳이었습니다. 해방 후 1965년까지 약 20여 년 동안 대부분의 한국 지도자들은 이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정부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의 많은 지도자들이 미국서 유학한 크리스천들로 이루어져 있었던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밖에 수 없이 많은 교회가 하와이와 본토에서 설립되었으나 지금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들은 한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community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가령 California의 Delano에 있었던 교회는 이미 우리 기억 속에서 잊혀진 지 오래 되었으나 그 교회는 농민들에게 그 지역 한인 사회의 중심이 되었었습니다.

미주 한인 교회는 조국이 1910년에 완전히 일본의 식민지가 됨에 따라 대외적으로 독립운동을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습니다. 교회는 물론 교회 본연의 사명을 잃지 않고 전도 사역과 봉사 사업에 심혈을 기울였으나 조국의 독립을 위한 일에도 앞장을 섰습니다. 많은 헌금을 하여 독립 자금에 쓰도록 하였는가 하면, 도박과 술에 빠져 있는 영혼들을 구제하는 일에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하와이에서나 본토에서나 교회는 독립 운동을 후원하는 요람이요 독립 운동가들의 안식처였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대외 활동은 1945년에 조국이 일본에서 해방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우리가 특기해야 할 사항은 한인 교회가 지난 100년 동안 미주 한인 사회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오늘날까지도 담당해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국이 해방되기 전에 미국에 찾아 온 유학생들이나 망명객들은 교회에서 위안을 얻고 위로를 받았으며, 교회를 통하여 믿음을 찾고 신앙생활을 하였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들은 우리 민족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를 신뢰하며 조국의 광복을 위한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였습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

5) Patterson, 위의 책, 50.

6) Letter to A. B. Leonard, Oct. 14, 1905, the Archives of the General Commission on Archives and History, The United Methodist Church; 『미주한인감리교회 백년사』 제II권, 21 참조.

의 제자들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잃어버린 조국을 회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하며 우리의 조국도 회복하여 주실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안 했습니다.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풍요한 미국 생활에 안주한 사람들이 아니라, 늘 조국의 독립과 번영을 위하여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비록 몸은 미주에 와있어도 그들의 마음과 눈물은 태평양 건너 조국에 있었습니다.

이 시기의 교회는 실로 "일제와 제국열강의 식민지 강점 속에서 억압당하던 민족의 현실을 직시하고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실현되는 민족의 독립과 해방을 위해서 기도하며 후원운동의 기치를 들었던 자랑스러운 공동체였습니다."[7)]

그러나 해방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그렇게 사랑하던 조국은 열강에 의해 두 조각으로 갈라져, 민족의 비극은 6.25 전란으로 계속 이어져 나갔습니다. 이 민족의 전쟁은 한국 역사에 있어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비참한 전쟁이었습니다. 인명 손실이나 재산 피해에 있어 이러한 비극은 한국의 4천년 역사에서 경험해 보지 못했던 사건이었으며, 그 어두운 구름은 50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의 앞길을 가로 막고 있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이었고 헤어진 가족들이 반 백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그 생사를 알 수 없는 이 현실은 예레미아의 눈물을 무색케 합니다. 이러한 고통 속에서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교회는 널리 선포하였으며, 그의 화해와 화평이 실현될 날이 곧 닥아 올 좋은 소식을 실망한 민족에게 알리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전화 속에서 고통당하는 조국의 동포들을 위하여 구호물자를 보내는 일에 앞장섰을 뿐만 아니라, 갈라진 민족의 화해를 위하여 목소리도 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조국의 동포들과 고통을 나눌 때, 고난을 함께 하시며 민족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같이 나누었습니다.

전쟁의 상처는 부모를 잃은 많은 전쟁고아들을 낳게 하였으며, 이들이 미주로 입양됨과 때를 같이하여 미군과 결혼한 한인 여성들도 또한 미주로 이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따라서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조그마한 마을 어디에나 믿음의 공동체가 형성되어야 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곳에 교회가 본격적으로 생기기 시작한 것은 1965년 이후부터 많은 교역자들이 제2차 이민의 물결을 타고 미주에 이주한 때부터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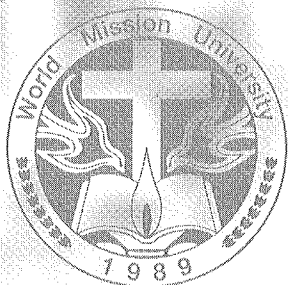
전쟁의 폐허 속에서 우리 민족이 서서히 일어서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에게 이 땅에 올 수 있는 기회를 흑인들을 통하여서 열어주셨습니다. 이는 60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득권을 주장하는 백인들의 마음 문을 깨시고 1965년에는 우리 민족에게 이 땅을 다시 차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흑인 민권운동을 통하여 이루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1965년은 미주 한인 교회뿐만 아니라, 미주 한인 사회에 있어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이 된 해입니다. 그것은 이 해에 하나님께서 인종차별이라는 미국의 고질적인 병을 치유하시어 다른 인종도 미주에 이주할 수 있는 문호를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흑인들에게 또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Martin Luther King, Jr. 목사를 비롯한 많은 교계 지도자들, 곧 하나님의 종들이 옛 이스라엘의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의의를 선포하며 미국의 양심을 일깨워 주어 인종차별적인 이민법을 개정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백인이 아닌 이민이 미국 시민이 될 수 있게 된 것은 1952년에 처음 있었던 일로서, 이민법을 전면 개편한 새 이민법인 McCarran-Walter Act라는 법이 제정되면서부터입니다.[8)]

7) "한인 연합감리교회 100주년 선교 기념에 임하는 신학적인 성찰"에서.

8) 66 Stat. 163.

동양인에 대한 인종차별은 미주 서부에서 더 심하였습니다. 특히 동양인이 많이 사는 California주에서 가장 심하였는데, 그 한 예로 Alien Land Law of 1913, 곧 외국인 부동산소유금지법을[9] 들 수 있습니다. 이 법은 1920년에 더 강화되었는데 주로 동양 사람들이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만든 법입니다. 이 법으로 말미암아 California주에서는 한인을 포함한 중국인 및 일본인들은 자기가 살 개인 주택도 소유하지 못 하였습니다. 이 법은 1952년에 와서야 주 대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리게 됨으로써 이와 관련된 모든 법이 1956년에 전부 폐기되었습니다.

이토록 초기 한인 이민자들은 본토에서 부당한 차별 대우를 받아가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민들뿐만 아니라 이 곳에서 출생한 한인 자녀 · 손들도 동양인에게 냉담한 사회 환경 속에서 아픔을 간직하고 살아야만 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문화적인 충격도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하와이는 다양한 인종과 문화와 민족이 서로 어울러 살고 있으면서 어느 한 문화가 절대적으로 지배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초기 이민자들은 후기 이민자들보다 덜 문화적인 충격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로 본토로 이주해 온 이민들은 여러 가지 문화적인 충격과 소외감 속에 살아야 하는 아픔을 더하여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삶을 사는 한인들에게 교회는 의지할 수 있는 피난처요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삶에 지친 이민자들을 위로하여 주셨으며 그들에게 용기와 힘을 넣어 주셨고 지금도 그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미주 한인 이민사의 새 장을 열어 주셨으며 이와 동시에 미주 한인 교회도 또한 새로운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1965년 이전에 한국인들이 미국에 이민 올 수 있는 수는 한 해에 100명으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유럽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들도 이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1965년 이후부터는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어느 나라 국민이든 일 년에 3만 명까지는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유럽인들에게 주어지던 특별한 혜택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의의가 승리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민의 문호가 개방되면서 많은 한인들이 이민 오기 시작하였으며, 이민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갑자기 늘어남에 따라 한인 교회의 수도 또한 늘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그 수가 늘어났으나 이중문화 가정이 늘어나면서 중소 도시에도 교회가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교회는 한인들에게 중요한 공동체로 자리를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한민족을 사랑하시기에 이민의 물결에 많은 그의 종들을 섞어 보내시어 이 땅에 그의 새로운 교회를 창립하시고 이를 통하여 세계 선교에 공헌하도록 하셨습니다. 주의 종들과 그의 백성들은 이 곳에서 많은 교회를 세웠으며, 이 신앙의 공동체를 통하여 상처받은 이민들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셨으며,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이민이 밀려오던 70년대와 80년대를 돌아볼 때, 교회가 전 미국에 급격히 퍼져나갈 수 있었던 것은 이미 한국에서 또한 미국에서 잘 훈련 받고 목회 사역에 오랜 경험을 쌓은 많은 목회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이미 한국에서 단신으로 선교지에 들어가 교회를 개척하던 경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미주에서도 그 어려운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들 목사님들의 뒤에는 그들의 사역을 뒷바라지 하여 주었던 헌신적인 사모님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개척 당시에 목사님들은 대부분의 경우 교단의 재정적인 뒷받침 없이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모님들은 궂은일을 마다하고, 때로는 수모를 당하면서, 집 살림을 꾸려나갔기 때문에 목사님들은 사역에 전념하며 교회를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한인 교회 발전에 공헌한 업적은 길이 기억되어야 할 것입니다.

9) Webb-Heney Bill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은 한인 교회 설립과 발전에 헌신적이며 희생적인 평신도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한국에서 이미 교회를 섬기는 일에 많은 경험을 쌓아 왔기에 믿음의 공동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개척 교회 설립에 헌신적으로 봉사하였던 것입니다.

지난날을 돌아볼 때 1970년대의 우리 교회는 새 땅에 교회를 심기에 여념이 없던 시대였고, 1980년대는 정착과 성장을 위해 노력하던 시대였으며, 1990년대는 안정기에 들어서 전통적인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개척하고 설립함에 있어 가장 어려웠던 문제는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를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미주에서 새 생활의 터전을 마련해야 하는 교인들은 자기가 살 집을 장만하는 일도 어려운데 성전을 구해야 하는 어려움도 같이 겪어야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 집 마련보다도 하나님의 집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믿음으로 자신을 희생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1970년대의 한인 교회는 교회를 전국적으로 심기에 여념이 없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다가 8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인 교회는 이 미주 땅에 잘 정착하고 더 큰 성장을 하기 위해 활발히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한 가지 특기해야 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은 우리 교회의 대외 선교 활동입니다. 교단을 막론하고 한인 교회는 선교에 열중하는 교회입니다.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해외에 많이 보내고 있는 교회는 한국 및 한인 교회뿐입니다. 이러한 모든 해외 선교 활동이나 국내 선교 활동은 전국에 흩어져 있는 한인 개체 교회들의 희생적인 재정적 지원이 없으면 모두 불가능한 일입니다. 교단의 선교 사업도 지원해야 하고 우리 특유의 선교 사역도 지원해야 하는 한인 교회는 이중적인 재정적 부담을 안고 있지만, 전국의 한인 교회들은 이 사역들뿐만 아니라 다른 귀중한 선교 사역들도 묵묵히 숨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이처럼 지난 100년 동안에 한인 교회는 많이 자라고 많이 성숙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특별한 은총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 앞에 놓인 과제는 앞으로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사역에 임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새 천년에 한인 교회가 감당해야 할 과제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이 무엇인지 기도하며 살펴 볼 때인 줄 압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Korean American"입니다. 우리는 Korean임과 동시에 American이라는 뜻입니다. 적어도 한국에서 태어난 이민 일세들은 한국도 생각해야 되고 미국도 생각해야 하는 운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한국의 평화와 안정이 미국의 평화와 안정뿐만 아니라 미주 한인 사회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100년 전 미국에 이민 온 초기 이민자들은 1945년까지 조국의 멸망을 통탄하며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온 교회가 합심하여 심혈을 기울였었습니다. 교계 지도자들은 독립운동의 일선에서 직접 뛰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인들은 물질적으로 독립 운동을 위한 자금을 거두어 헌납하기도 하였습니다. 교회가 모두 얼마나 많은 돈을 독립을 위하여 헌금하였는지 우리는 지금 정확히 모르지만, 적어도 엄청난 숫자의 금액을 헌금한 증거를 우리는 여기저기서 흔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이러한 노력은 한국동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쟁으로 초토화된 조국을 위하여 많은 구호물자를 수집하여 한국에 보냈습니다. 많은 헌금도 하였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 초부터 90년대까지

지속되던 군사정권 시대에는 인권과 민권을 위해 싸우는 조국의 동포들을 위하여 기도도 많이 하였습니다. 정치적으로 억압당하는 조국의 동포들을 위하여 세계 여론에 호소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미주 한인 교회는 조국 동포들의 고난과 고통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활동은 미래의 한인 교회가 어떤 대외 선교를 하여야 할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한인 교회가 가져야 할 선교적 비전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싶습니다.

첫째, 한인교회는 미주 한인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조직체임을 우리는 늘 인식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인 교회가 미주 한인 사회의 정신적 지주이며 여기서 한인들이 위로를 받고 새로운 삶의 용기를 얻기 때문입니다. 이민 생활에 지친 몸을 이끌고 교회로 찾아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안과 평화가 늘 이민자들과 함께하도록 교회는 피란처요 안식처가 계속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민 교회가 미주 안에 생겨난 100년 전부터 교회는 이러한 뜻있는 사역을 담당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참되고 즐거운 믿음의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교회는 또한 Korean American들에게 한국의 문화를 전승하여 주는 가장 중요한 매개체요 중심적 역할을 감당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그리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날 교회는 교회학교를 통하여 이세들에게 Korean American의 identity를 심어주었으며, 더 나아가 Christian identity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참된 한국계 미국인이란 누구이며, Christian으로서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전통을 우리는 계속 이어받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Christian 영성 훈련은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나가야 할 줄 압니다.

둘째, 대외 선교에 있어 우리는 Korean American임을 인식하고 한국의 평화와 미국의 자제를 위해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조국은 분단된 지 반백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전쟁의 공포와 위험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남북간의 증오와 불신은 아직도 가시지 않고 우리 민족의 삶을 어렵게 만들어 주고 있으며 우리의 한은 더욱 더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한인 교회는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며 민족의 화해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시대에 처한 우리 한인 교회의 선지자적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지난날 조국의 해방과 인권을 위해 싸워온 우리 교회의 전통을 살려, 이제는 민족 화해와 통일을 위해 우리의 정성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요 선지자적 사명인 줄 압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는 또한 우리 자신들이 Korean임과 동시에 American임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미국 시민으로서의 우리 앞에 놓인 과제는 어떻게 하면 미국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 세계 평화에 기여하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지금 천여 년 동안 그 위세를 부리던 Roma 제국도 가지지 못했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십여 년 전 Soviet Union이 와해된 이후, 이제 세계에서 미국을 견제할 세력이 없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은 자만(自慢)하여 오만(傲慢)에 빠지기 쉽습니다. 미국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며 이를 제지할 국가가 세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우리는 미국 시민으로서 자랑스럽게 여기기 쉬우나 여기에는 무서운 위험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 나라의 힘이 커지면 커질수록 탐욕이 생겨서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곳이면 어디든지 가서 남의 나라를 침략하기까지 합니다.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그랬고 근세에는 일본이 그랬습니다. 청일전쟁과 노일전쟁에서 이긴 일본은 의기양양하여 한국을 삼켜 먹은 것에 만족하지 않고 동남아까지 지배하려고 미국을 공격하였다가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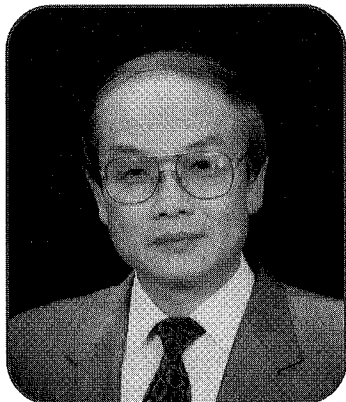
난날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의 국토 팽창에 이어 솔로몬의 영화가 극치에 달했을 때, 그 왕국은 둘로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갈라진 왕국들은 선지자들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오만하여져서 점점 쇠약하기 시작하더니, 북쪽 이스라엘은 200년 만에 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저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벌하신다는 진리를 우리는 구약성경을 통하여 너무나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두려워하며 미국의 앞날을 위하여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선포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여지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을 우리는 사랑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아가 포로로 잡혀 간 유대 백성들에게 권고하였듯이 이 곳은 우리가 "집을 짓고 정착" 하여야 할 땅이기에 우리는 미국이 의의를 저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이 평안을 누리도록 노력하고, 그 성읍이 번영하도록 나 주에게 기도하여라.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10] 한 예레미아의 외침을 듣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미국이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여 세계 평화를 주도하는 국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며, 우리가 모든 열정과 정성과 재물을 바쳐 다하여야 할 미래의 선교적 사명입니다. 이러한 선지자적 소명을 충성스러이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인 교회를 더욱더 귀히 여기실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한인 기독교인들을 이 땅에 불러주신 줄 압니다.

10) 예레미아 29:5, 7(표준 새 번역 개정판).

김건태 교수(본교 실천신학 교수)

성서와 교회사에 나타난 소그룹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도 소그룹 형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목회자로서 그의 성도들을 예수님의 방법을 좇아서 보살핀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다.

들어가는 말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선호하는 목회 스타일 중에 하나가 베드로 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사도행전을 읽어본 목회자라면 누구나 한번 쯤은 베드로 같이 한번 설교에 3천명씩 회개시키는 기적 같은 목회를 꿈꾸어 보았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초대교회 부흥에 중심 인물 이였던 베드로가 소그룹목회에서 배출한 인물이라는 점을 기억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예수님은 사역 초기부터 12명의 일꾼들을 선택하셔서 3년 간 소그룹 제자훈련을 하셨고 결과적으로 기독교 초기 세계선교에 주역들이 예수님이 하신 소그룹목회를 통하여 배출 되였다고 본다. 한국교회가 기독교 선교학적으로 보나 교회성장학적인 면에서 평가해 볼 때에 급성장하게된데는 두 가지 모델이 있었다고 본다. 부흥회와 같은 수백 혹은 수천, 수만명이 한번에 모이는 대형전도집회에서 명성 있은 부흥사들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아 믿음을 결심하는 대중전도 방식이다. 이러한 대형전도집회 방식은 한국교회성장에 양적인 면에서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 볼 수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소그룹/셀그룹운동(Small Group/Cell Group Movement)이 한국교회 성도들을 질적으로 성장시키고, 평신도 제자화운동에 일조를 했다고 할 수 있다.

소그룹사역운동 효과는 한국교회뿐 아니라 타문화 권에서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많은 교회들이 소그룹운동을 통하여 크게 성장하고있음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교회성장에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은 목회자라면 소그룹의 중요성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다고 보아야한다. 또한 지금은 소그룹/셀그룹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고조 되여 있다. 이런 때에 소그룹/셀그룹에 대한 성서적이고도 신학적인 이론을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한국에서 소그룹목회로 성공한 서울 사랑의 교회 옥한흠목사는 "대부분의 교회 지도자들이 소그룹이란 교회 환경에 대해 이론과 경험이 너무 빈약하다고 했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소그룹 모임이 유행이니까 한번 해 보자는 식으로 생각하고있다,"고 ("소그룹운동과 교회성장론" 니콜라스의책 추천사 중에) 말했다. 소그룹에 대한 학문적 이론이나 실제적 경험이 없이 손쉽게 모방하다가 효과 없이 끝나는 경우, 소그룹사역을 과소평가 하는 안타까운 목회자들이 적지 않은 것을 지적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이번 기회에 소그룹에 대한 근본적인 연구를 성서적이고도 신학적으로 하기 위하여 신구약성서 안에서 살펴보고 더 나가서 기독교 2천년 역사 안에서 교회사적으로 소그룹운동이 어떻게 전개되여 왔나를 연구하고 더 나가서 부족하나마 미래를 조명해 보

려고한다.

성서와 교회사에 나타난 소그룹 (Small Groups in the Bible and Church History)

무엇보다도 먼저, 성경 속에서 소그룹/쎌그룹운동의 전례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성경 적이며 신학에 기초를 둔 소그룹의 교회성장론은 그 무엇보다도 먼저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소그룹활동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 시에서 부터 그 기원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 다음에는 구약시대에서, 그리고는 신약시대에서 차례대로 찾아 봐야 할 것이다. 이 것이 곧 성경적 소그룹활동을 받아들이는 공식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뒤에 계속되어 이어지는 소그룹활동의 역사 또한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이러한 단계적 고찰은 성경적 소그룹활동의 기초를 놓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다 (McBride 1993, 13).

소그룹에 대한 성서적 신학적 근거 (Biblical and Theological Foundation for Small Groups)

목회자는 소그룹 지도자들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그들이 하는 사역의 성경 적이고도 신학적인 바탕이라 할 수 있다. 실제적으로, 소그룹사역은 성경 속에 매우 강한 뿌리를 박고 있다 (McBride 1993, 13). 그리고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의 소그룹을 살펴보기 전에 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창조시의 배경을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다 (Icenogle 1994, 21).

1) 창조 속에 나타난 소그룹의 기원 (The Origin from the Creation)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 1:1). 시간은 이 천지창조와 함께 시작되었다 (Nicholas et al. 1981, 27).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동방의 에덴, 곧 낙원이라 부를 수 있는 그 곳에 그 지으신 사람을 두셨다. 이와 같이 인간 창조를 비롯한 천지창조는 이 바탕에서 시작된다. 그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모든 것들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고 하셨다 (창 1:25). 그것이 유일하게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통치하셨던 하나님의 왕국 이였다. 그러나 이 모든 피조물들은 인간의 원죄로 인하여 타락하게 되었다.

그로 인하여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고통 속에 탄식하고 있는 것이며 (롬 8:22),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는 것이다. 피조물들의 바라는 것은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롬 8:19-21). 이 말은 곧, 피조물들이 전에 에덴의 동산에 있었을 때를 추억하며 소망하고 있다는 뜻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오리라는 것이다. 비록 모양과 형태가 다른 새 하늘과 새 땅이지만...(계시록 21:1).

교회는 곧 기독교 역사와 전통으로 이뤄져 온 이 땅에 있는 가시적 기관으로서의 형태의 하나님의 나라이다. 비록 아직 완성된 완전한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말이다. Howard A. Snyder는 이 모델을 설립된 기관으로서의 교회인 왕국(Kingdom as institutional church), 곧 교회적 왕국 (Ecclesiastical Kingdom)이라고 불렀다 (Snyder 1991, 67). 이것은 교회가 총체적인 하나님의 나라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분을 가리키는 것이다 (Tenny and Barah, ed. 1977, 808). 이는 곧, 교회는

이 세상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전진해 나가는, 그리고 가시적인 기관이라는 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 교회의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은 곧 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향하여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의미한다.

〔1〕신적 소그룹(divine small group)

이 땅에 세워졌던 최초의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에덴의 동편에 있던 동산에 세워졌던 것이다. 그리고 그 구성원은 한 사람의 남자와 한사람의 여자, 둘 뿐이었다 (창 2:25; Icenogle 1994, 22).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으므로 엄밀하게 말하면 그 구성원은 셋이었다고 말해야 옳을 것이다 (창 3:8; Icenogle 1994, 22). 이 구성원들은 하나님과 인간으로 이루어졌으며 이것이 천지창조 이후 최초의 소그룹이었던 것이다. 사실, 이 소그룹은 하나님과 인간의 본질을 처음으로 나타내 보여준 경우이며,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이 최초의 소그룹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신의 소그룹"을 가리켜 전통적으로 불러온 삼위일체의 첫 번째 반영체 (reflection) 가 되었다고 말할 수도 있다 (Icenogle 1994, 12).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본체론적 삼위일체(Ontological Trinity)의 측면에서 볼 때 오직 하나이시며 이는 경륜론적 삼위일체(Economical Trinity)의 측면에서 볼 때 삼위(Three Persons)의 하나님을 말한다. 이 경륜론적 삼위일체의 측면에서 볼 때 일체로서 삼각형의 구조를 이루고 있는 성삼위(성부, 성자, 성령)는 하나의 신적 소그룹인 것이다. 이것이 신적 차원에서 볼 때 본체론 적인 "신의 소그룹"이라 하겠다 (Icenogle 1994, 13). 이 가정 하에서 볼 때, Gareth Weldon Icenogle은 이점에 대하여 말하기를,

> "하나님께서 소그룹으로 존재하신다고 말하는 것이 좀 이상하게 드릴지 모르겠으나, 역사적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말할 때에 세 인격체가 하나를 이룬 것이라고 전통적으로 말해왔다. 어쨌든, 천지창조의 기사는 하나님이나 인간이 공동체를 이룬 것을 보여주고 있다. 신적인 차원에서 공동체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또 다른)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을 통해 내적 대화그룹 (intercommunication group)이 인간을 이 내적 대화그룹안에 존재하도록 만드셨다." (Icenogle 1994, 21)

Icenogle이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본체론적 차원에서 하나님께서는 소그룹으로 존재하시며, 성부, 성자, 성령등 삼위로 이루어진 인격체가 하나를 이루는 것이다. (Icenogle 1994, 21)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과 내적 교통(intercommunication)을 나누시며 인간과는 태초부터 상호공동체(intercommunity)를 이루고 계신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는 또 말하기를:

>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고 이름을 불러주셨다. 태초부터 세 가지의 대화가 존재했다: 신의 그룹(divine group)안에서의 하나님과 하나님 자신과의 내적 대화(intra), 인간그룹(human group)안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intra), 그리고 그 신의 그룹과 인간 그룹간의 상호대화(inter). " (Icenogle1994, 21)

〔2〕인적소그룹(human small group)

그리고, 그때 에덴 동산에 살던 아담과 하와의 한 커플이 천지창조 사건후 인간 최초의 소그룹의 첫 번째 대표자들이 되었다 (Icenogle 1994, 12). 이것은 곧 인간성을 반영한다. 처음부터 인간의 소그룹은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졌으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 그러므로 이 그룹은 신의 그룹 (하나님의 그룹) 과 같다.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인간의 초기에 사랑스럽고 은혜로운 소그룹으로 있을 때는 매우 행복했었다. 태초부터 신 그룹과 인간그룹은 "하나님께서 에덴동산에 존재했던 인간을 위하여 체결하신 언약 하에 상호간교제 (intercommunication)를 이루었다 (창 2:15-17). 이 것이 신인 소그룹 (divine-human small group) 이다. 이는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주신 역사상 최초의 가정 셀그룹 (home cell group)이기도 하다.

이 가정그룹의 설립 이후 신앙생활의 기원과 본질이 언약에 뿌리박고 있다. 우리는 이 언약을 에덴의 언약(Edenic Covenant)과 행위의 언약 (Covenant of Works)라고 부른다 (Berkhof 1971, 211). 창조자로서의 하나님, 최초의 소그룹의 인도자(leader)로서의 하나님께서는 이 소그룹을 보여주시고 또한 이 소그룹의 인도자로서 계속하여 있으시려고 했지만, 이 그룹들의 구성원들이 인도자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인도자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다. 이 가정그룹은 사탄의 조종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창 3:15). 그때 일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원죄로 인하여 잠시동안 깨어지게 되었다(창 3:1-19; 롬 5:12-21).

인간이 행위의 언약 (Covenant of Works)을 깨뜨림으로 인하여 이 첫 번째 소그룹 공동체로 시작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잠시 깨지게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의 언약 (Covenant of Grace)을 주셨다. 예수님의 공로를 인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 두 번째 그룹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Charles Dodge는 은혜의 언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 "예수님께서 어떤 특정한 계획을 성취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았으며 이는 전부터 계획된 일이었다. 또 성부께서 성자에게 이 일을 이룸에 대한 어떠한 특별한 약속을 하신 것도 진정 분명한 사실이다." (Dodge 1973, 3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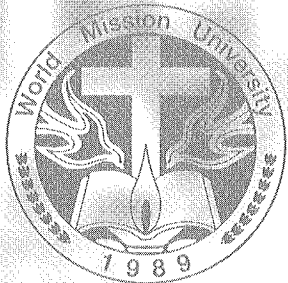
위에서 말하는 특별한 약속이란 성부께서 성자에게 약속하신 은혜언약(Covenant of Grace)을 말한다. 아담이 모든 인간 후손의 머리가 되며 대표자가 된 것같이, 예수께서도 모든 그의 백성들, 곧 그의 교회들의 머리와 대표자가 되신다(로마서 5:12-21).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아담과 언약을 세우셨던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도 언약을 세우셨다. 전자는 신학적으로 행위언약(Covenant of Work)이라고 불리며, 후자는 은혜언약(Covenant of Grace)라고 불리고 있다 (Park 1971, 357).

이 원리에 의하면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오셨으며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오셨다(요 9:27; 요 14:31; 18:11). 한 마디로 말하면, 그의 일은 첫번 인간(아담)의 죄로 깨어졌던 지상 에덴동산에 있었던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재건사명 (Mission of Reconstruction)이었다. 이 은혜의 언약은 성부와 성자 사이에 이루어진 계약(contract) 이었다 (Berkhof 1971, 282-283).

2) 구약에 나타난 소그룹의 실례 (Examples of Small Groups in the Old Testament)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태초부터 소그룹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타락이후 특별히 "소그룹"이라 명명하지는 않았지만 아담의 가족등 가족이나 친척 단위의 소그룹이 여럿 있었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가 함께 살면서 신앙의 소그룹(small group of faith)을 이루도록 창조하셨다 (Icenogle 1994, 21).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그 첫 남자와 여자가 행위언약을 이루도록 소그룹의 삶을 통하여 인도하셨다(창세기 2:17). 이것이 인간 역사상 최초로 이루어진 소그룹이었던 것이다.

(1)가정그룹(Household Group)

타락사건 이후, 첫 번째 소그룹은 가족 단위로 이루어 졌으며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었다(창 4:1-4). 이것이 맨 처음 사회의 단 하나 뿐인 소그룹이었다. 이 각 가정 단위의 그룹은 유대인들의 사회적 기초가 되었으며 친척과 가문 위주의 집안그룹(household group)이 형성되기 이전에 모든 초기 사회적 집단의 기초가

되었다 (McBride 1993, 15). 이 가장 작은 그룹 속의 형제간의 상호관계(Interrelationship)는 아담의 큰아들 가인이 동생인 아벨을 죽임으로써 깨어지게 되었다 (창세기 4:5-15). 이 가장 작은 단위의 소그룹은 친척이나 가문위주의 집안그룹 (household group)으로 자라나게 되었다.

(2)집안그룹들(Clan Groups)

집안그룹은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 자매들, 친척들, 종들, 기타 부양가족들 (McBride 1993, 15)을 포함한다. 예를 들자면 노아의 집, 아브라함의 집, 이삭의 집, 야곱의 집등을 들 수 있다. 이것이 곧 성경에서 "요셉의 온 집 "(창세기 50:8)이나 "바로와 그 온 집" (신명기 6:22)이라고 말할 때에 의미하는 것이다. 성경에는 이 "온 집(집안)"에 대한 예가 많이 나와 있다 (창 31:37; 42:33; 45:11; 47:12; 레 16:17; 민 18:31; 신 11:6; 14:26; 수 6:25; 7:14; 삿 6:27; 삼상 27:3; 삼하 2:3; 17:23; 19:18; 19:41; 왕상 4:6-7, 5:9; 왕하 7:9; 18:18; 19:1; 느 13:8; 잠 31:15, 21, 27; 사 36:22; 37:2. 물론 "온 집" 이라 말 할 때에는 몇 대의 친척과 그 딸린 종들을 가리킨다 (McBride 1990, 15). 실제로는 이 "온 집 (household)" 은 여러 종족그룹 (clan group)을 이루었다고 말 할 수도 있다.

(3)씨족그룹(Stribe Groups)

이 씨족그룹들은 여러 개의 집안그룹(household group)으로 이루어졌다 (McBride 1993, 12).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부터 나올 때에 그들의 씨족(clan)은 씨족과 가정(family)으로 알려진 친척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 가정들은 야곱의 열두 아들들과 그들의 자녀들과 또 그들의 자녀들의 자녀들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McBride 1990, 15). 신명기 26:5-49에 이 씨족그룹과 가족그룹에 대한 가장 좋은 예가 나와 있다.

이스라엘은 열두 지파로 나뉘어져 있었다. 그 지파의 이름들은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잇사갈, 스불론, 베냐민, 단, 납달리, 갓, 아셀 등으로 야곱이 애굽 땅에 들어 갈 때 그의 자손은 모두 칠십인 이었다 (출애굽기 1:1-5). 여호수아 13:24에서 가나안땅을 나누어 줄 때쯤에는 이 지파들과 가족들이 확실하게 형성되어 있었다 (McBride 1993, 14).

(4)민족그룹(Nation Groups)

이스라엘 민족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열두 지파와 몇몇 이방인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출 12:19; 레17:8; 신 16:11).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의 이들은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 그들은 숫자적으로도 주위에 있는 나라들 보다 적었다. 오히려 수적 다른 주변 민족에 비해 열세에 처할 수밖에 없었다 (신명기 7:7).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숫자를 보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은 큰 집안으로 상징되며 "이스라엘 온 집(온 족속)" 이라 불리었다 (출애굽기 40:38).

광야에서 모세는 그의 장인 이드로의 충고를 받아 들여 이스라엘 민족을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등의 소그룹으로 나누었다 (출애굽기 18:21, 25). 이렇게 소그룹으로 나눈 것은 한 개인 개인을 잘 보살피기 위함이었다. 다른 말로 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 효과적으로 보살피기 위해 소그룹 씨스템(small/cell group system) 을 도입했다고 할 수 있다.

3) 신약에 나타난 소그룹의 실례
(Examples of Small Groups in the New Testament)

구약에서와 같이 신약에서도 소그룹 사역 (small group ministry)이 소개되고 있다 (Nicholas et al. 1982, 28). 신약의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공동체이며 소그룹인 하나님의 집안 (household) 구성원들이 어떻게 행동하며 어떤 자세로 살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McBride 1993, 20). 복음서에서는 예수께서 사역을 위한 소그룹을 형성하시기 위해 열 두 제자를 부르시는 사건이 나와 있다 (마 4:17-25; 막 1:14-20; 눅 5:27-32)

(1) 예수의 12사도그룹(12 Disciples)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들이 이 세상을 바꾸어 놓을 것을 꿈꾸시며 그의 제자들로 이루어진 이 소그룹과 많은 시간을 보내시며 가르치시고, 설교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Icenogle 1994, 199). 예수께서는 그 제자 열 둘을 선택하시고는 그들이 서로를 사랑할 때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말씀하시며 그들 뿐 아니라 그들로 인하여 믿게 될 자들을 위하여도 다음과 같이 아버지께 기도하셨다:

>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 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요 18:20-23)

(2)초대교회의 가정교회(house church)

신약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들은 사도들과 함께 가정에서 소그룹으로 모였음을 알 수 있다. 예루살렘의 믿는 자들이 매일 집에서 함께 모여 떡을 떼며 교제를 나눈 것을 예로 들 수 있다(사도행전 2:41-47). 또 다른 예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한 그룹의 사람들(사도행전 12:12), 빌립보의 두아디라성의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에 모였던 그룹의 사람들(사도행전 16:15, 40), 데살로니가의 야손의 집에서의 모임(사도행전 17:4-9), 고린도의 아가야에 있는 스테바나의 집(고린도전서 16:15)등과 그리고 에베소, 드로아, 로마등 많은 예를 들 수 있다. 복음이 전파된 곳이면 어디든지 이 소그룹의 믿는 자들의 모임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갑작스러운 인구증가로 인하여 초창기 교회의 변화를 가져온 결과, 더 이상 효과적인 예배모임, 기도모임, 찬양모임, 친교모임등을 갖기 힘들게 되었다. 그러므로 억지로라도 교회 성도들을 작은 그룹들로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 Nicholas는 하나님께서 초창기 교회들이 소그룹으로 모일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일을 하셨다고 주장한다:

>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10명, 50명씩 나누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초창기 교회들도 소그룹으로 모이게 하셨다. 사도행전 2:46에서 우리는 베드로의 설교 후 예루살렘 교회가 서로 돕는 두개의 그룹으로 나뉜 것을 보게 된다. 이 두개의 그룹은 성전에서 모이는 큰 모임과 집에서 떡을 떼며 모이는 작은 모임으로 나뉘게 됨을 말한다. (Nichols 1982, 28)

어떻게 보면, 이 소그룹 씨스템이 신약의 명령이며, 교회성장을 위해 사용되었다고 이해 할 수도 있다. 이는 초대교회들 뿐 아니라 현대 교회에도 똑 같이 적용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 시스템은 예수님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다.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두 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노라고 말씀하셨다(마태복음 18:20). 이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사이의 수직관계 (vertical relationship)와 그의 백성들 안에서의 수평관계 (horizontal relationship)에 관해 강조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

그룹 시스템은 삼각형의 삼각관계 (triangular relationship) 로 표현 될 수 있다 (Icenogle 1994, 12).

이 점에서 그룹 씨스템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삼각형태로 이루어져야만 한다. 세상의 그룹은 남자나 여자가 모여 그룹을 이룬다 하겠지만, 기독교 사상에서는 그 어느 그룹도 하나님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도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마태복음 18:20)"고 말씀하셨다. 이 씨스템은 많은 사람을 요구하지 않으며, 오히려 적은 숫자를 요구한다고 봐야 한다. 그러므로 교회는 전통적으로 가져온 큰 모임(예배모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요 작은 모임들과 그들의 기능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McBride 1993, 21). 어쨌든, 이 소그룹은 예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히브리서 10:24-25에 소그룹에 대한 통찰(insight) 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24-25).

이 모임이 말하고 있는 것은 주일날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만을 말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는 서로 사랑하도록 이끌어 주며, 착한 행실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해주는 소그룹을 말하고 있다. 이는 또한 꼭 내적인 구성원들에 한해서만 관계된 말씀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말씀과 같이 모든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마 28:19). 이것은 베드로를 통하여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까지 실천되었다(행 10:32-33). 바울은 그의 전도 사업을 이루기 위해 회당등에서 많은 사람을 놓고 전도하기도 했으나 종종 많은 방해에 부딪히게 됨으로 개인적으로 전도하며 소그룹의 제자들을 개인의 집에서 가르치는 일을 많이 했다(행 19:9).

결론적으로, 구약과 신약에 나와 있는 소그룹에 관한 성경적인 근거는 너무나도 많다. 구약의 시작에서부터 아니, 천지창조 사건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소그룹은 기독교인들의 삶속에서 뗄 수 없는 존재였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도 소그룹 형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McBride 1993, 16). 목회자로서 그의 성도들을 예수님의 방법을 좇아서 보살핀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다. 또한 이는 성공적인 사역을 보장해 줄 것이다.

소그룹의 교회사적 고찰 (Church-historical Perspectives on the Small Groups)

거의 2천년 동안 기독교인들은 모두 소그룹에서 모임을 가져왔다 (Becker 1993b, 13). 초창기 교회(서기 100-590: Park 1970, 10)의 역사를 더듬어 보면 기독교와 관련된, 기독교를 위하거나 반대하던 소그룹들은 다 지식인들 층에서 나왔음을 알 수 있다. 이 시대의 기독교 지도자들은 두 가지 면에 치중해 있었다: 예수를 믿는 복음의 전파 (Latourette 1978, vol. 1, 114)와 이단으로부터의 방어이다. 거의 모든 기독교 활동이 이단으로부터의 방어이었기 때문에 이 일은 지식인들 사이에서 이루어 졌다. 거의 모든 기독교 교리적 변론이 이 시대의 지도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Latourette 1978, vol. 1, 121).

1.초대교회 시대 (The Early Church Era)

(1)초기 : 가정교회들

사도시대와 약 2세기까지 기독교인들의 소그룹은 집에서 모이고 있었다 (Barrett

1986, 21). 그것은 기독교 소그룹들이 가정교회와 동일시됨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다. 저스틴의 순교(Martyrdom of Justin) 2장에 보면 저스틴은 성도들이 모두 꼭 같은 장소에서 만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Barrett 1986, 21). 그는 말하기를 "나는 티미오티나 배드에 있는 마틴누스가 미치지 못하는 곳에 산다; 그것도 온 생애를(그리고 지금은 두번째 생애를 위해 로마에 살고있다), 나는 그의 장소 외에 어떤 다른 장소를 모르고 있다"고 했다 (Filson 1939, 107 cited by Barrett 1986, 21). 클레멘타인의 인정서 (The Clementine Recognition, 10:7)는 자기의 큰집을 교회의 이름으로 성의를 다해 봉헌 한 안디옥의 데오빌로의 친절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Filson 1939, 107 cited by Barrett 1986, 21).

〔2〕 박해 : 카타콤, 기타 밀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그 당시 박해의 영향으로 그룹들로 결속되어 있었고, 구별된 백성(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그룹은 외부인들에게 공개적이지를 못했다 (Latourette 1978, Vol. 1, 128). 그러므로 교회들은 고대 기독교 역사의 거의 모든 시대를 집이나, 박해관계로 카타콤과 같은 지하에서 모이는 소그룹 형태로 존재했었다.

Lois Barrett 은 기독교인들이 3세기 말까지 예배를 위한 성전을 로마의 법정회당(basilica)을 본 따서 짓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Barrett 1978, 22). John W. Miller는 가정교회의 필요성이 거의 없어졌다고 다음과 같이 썼다:

> 더 이상 예수 안의 나눔이 소그룹으로 모이는 교제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주교에게와 그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성찬을 받는 것이다. 로마와 연합한 후 이제 이러한 모임은 집에서 보다 더 큰 성전에 모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로 가정교회는 이제 거의 구시대의 것이 되었다. (Cited by Barrett 1978, 22)

2.중세교회 시대(The Medieval Church Era)

〔1〕카톨릭으로 소그룹 모임이 어려웠음

물론, 이 때는 초대 사도시대가 거의 끝나고 카톨릭교회가 일어나려던 때임을 상기해야 한다. 카톨릭교회의 교황이 이끌어온 암흑시대라 불리우는 중세기에는 평신도들로 이루어진 소그룹들이 예배와 가르침을 위하여 모인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였다. 가정교회란 구시대의 유물이 되었다 (Barrett 1986, 22). 그러나 중세기말 기독교 안의 신앙의 갱신운동은 신약성서 안에 있는 가정교회를 다시 발견케 하였다 (Barrett 1978, 23).

〔2〕종교개혁 이후 소그룹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

종교개혁 이후 교회 안팎에서 많은 소그룹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그 중에도 수도원 운동들(Monastic Movements)이 소그룹으로 예배를 드렸다 (Barrett 1986, 23). 마틴루터에 의해 이끌어진 종교개혁은 평신도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었다. 마틴루터의 세번째 신학논문은 "기독교인의 자유"(On Christian Liberty) (Kim 1989, 273)이다. 이 논문에서 그는 모든 기독교인은 믿음으로 이미 의롭다 함을 얻었으므로 자유하며, 모든 기독교인은 신앙을 위한 모임을 가질 수 있고 성경을 어디에서든지 읽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하여 소그룹 모임이 다시 전개되었다.

3.현대교회 시대(The Modern Church Era)

이 종교개혁 기간 동안 재침례교(Anabaptists), 메노나이트(Mennonites), 아미쉬(Amish), 프랑스의 유그노(Huguenots), 예수회(Jesuits)들이 열성적이었다 (Kuper, 1955, trans. by Kim 1990, 247-294). 17세기에는 영국의 퀘이커파들과 미국의 경건주의자들이 가정모임으로 돌아갔으며, 감리교에서도 역시 그들의 시초를 가정 모임에 두고 있다 (Barrett 1978, 24).

(1)영적 각성 시대에 들어와 활발

20세기에는 교회의 새로운 각성을 위하여 교회 안팎에서 소그룹 모임을 갖는 것이 활발해 졌다.

(2)소 그룹운동이 자리잡다

근래에는 전 세계적으로 가정 셀그룹을 통한 성경공부가 교회 안에 자리 잡게 되었으며, 교회 밖에서는 제자화 훈련, 성경공부와 선교 등의 para-church movement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Para-church의 예로는: 대학생 선교회(CCC), 대학성경공부(UBF), 인터 바시티(IVCF), Youth for Christ(YFC), Student Bible Fellowship(SBF), Joy 선교회(JM), 네비게이토(Nevigators), 뜨레스 디아스(Tres Dias)등을 들 수 있다.

더 나아가 소그룹 활동이 전 세계 거의 모든 교회에 퍼져 있으며 제자화 훈련이나 가정 셀그룹등은 특히 한국 교회와 한인 이민교회에서 인기가 있다.

나가는 말

필자는 주님의 지상명령은 두 가지 내용으로 말 할 수있다. 사도행전 1:8절과 마 28:19-20절이다. 사도행전 1:8절 말씀은 가서 전해야 할 선교의 지경(예루살렘으로부터 땅 끝까지)을 명령하셨다고 말할 수 있고 후자의 경우 마태28:19-20절은 같은 내용 같으나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다시 말씀들이면 선교의 방법론(제자훈련)을 명령하신 것으로 보고 싶다. 주님의 지상명령은 21세기를 살아야하는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야 할 당면과제이다. 이 과제를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느냐고 필자에게 묻은다며은 필자는 위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소그룹운동 이나 소그룹/셀그룹 사역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시 부터 사용하셨고 예수님도 인류구원사역 초기부터 사용하신 성서적인 방법이며 기독교 역사적으로 교회 안 밖에서 수행해 오던 성서적이며, 신학적으로도 입증된 소그룹 제자훈련이나 소그룹목회사역 혹은 셀 목장 사역을 통하여 지구촌 미 복음종족선교 사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소그룹사역은 21세기를 주도할 수 있은 목회사역 혹은 선교사역 차원에서 가장 효과적이고도 유일한 성공적 방법이며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구체적이고도 깊이 있은 소그룹연구가 여러 분야에서 지속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LIST OF REFERENCES (참고문헌)

Barrett, Lois. 1986, *Building the house church.* scottdale : Herald press.

Becker, Palmer. 1993b. *Called to Care: A trainimg manual for small group leaders.* Scottdale : Herald Press.

Berkhof, Louis. 1971. *Systematic theology.* London : The Banner of Trust Trust.

Hodge, Charles. 1973. *Systematic theology.* vol. II. Grand Rapid :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Icenogle, Gareth Weldon. 1994. *Biblical foundations for small group ministry.* Downers Grove : Inter Varsity Press.

Kim, Eui Hwan. 1989. *Christian History.* Seoul : Sung Kwang Moon Hwa Sa.

Kuyper, B. K. 1955. *The church in history.* trans. by kim, Hae Yeon.

Latourette, Kenneth Scott. 1978. *A history of the expansion of Christianity.* vol. I. Grand Rapid: Zondervan publishing company.

McBride, Neal F. 1993. *How to lead samll groups.* Colorado Springs : Navpress.

Nicholas, Ron, Steve Barker. Judy Johnson, Jimmy Long, Rob Malone. 1982. 1981. *small group leaders handbook.* Downers Grove : Intervarsity Press.

Park, Kwang Sung. ed. 1971. *History of Christian church.* Seoul : Ah Sung Publishing Compan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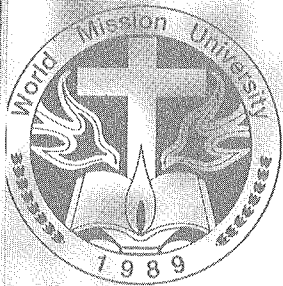
Snyder, Howard A. 1991. *Model of Kingdom.* Nashville : Abingdon Press.

학생논단

그러기 위해서 목자는 평생학습자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월드미션대학을 졸업하는 분들이 모두 목회자의 길을 걷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사역자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평신도 목자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런면에서 우리는 모두 평생학습자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란
전 세계 인류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조망하는 가운데
삶의 목표와 방향을
정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다.

이희성 (M. Div., 로고스 교회 청년회 담당)

셀 교회 사역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한 명의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이 모든 성도의 의무라면 그 다음 단계에 대한 부분도 동일한 의무로 첨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새 신자가 강력한 리더로 세워지는 그 순간 까지의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현장의 소리

지난 주일(5/4/03)은 우리 청년회에서 목장 사역을 시작한 지 만 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목자, 부목자 10여명이 함께 모여서 지난 시간에 감사를 드리며, 또한 구체적인 평가의 시간을 갖았습니다. 얻은 것들과 잃은 것들에 솔직한 표현들을 나누고 함께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서는 목장 사역의 고귀한 가치를 더욱 열심히 추구하기로 재헌신의 마음을 기도로서 주님께 드리는 시간을 갖았습니다.

'셀 교회 지침서' 라는 책 한 권을 가지고 공부하고 시작한 사역이었습니다. 주중에 자신들의 집을 오픈 하여 모임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전체 모이는 예배도 매주 드리는 것에서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체제로 바꾸었습니다. 모두 주중 목장 사역에 집중하기 위한 변화였습니다. 그 동안 세 번의 전체 목장의 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전도에 의해 이루어진 개편은 아니었습니다. 얻은 것은 관계의 친밀도이고, 잃은 것은 공동체의 일체감입니다.

담당 교역자로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전도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약 6-7명의 새로운 얼굴들이 들어왔지만 순수한 목장 사역의 전도라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고민이 많기에 사실 지금의 시점에서 셀 사역에 대한 글을 쓴다는 것 조차도 어설픈 단계입니다. 그러나 시행 착오와 현장 감각을 통해 얻은 교훈이 미래를 준비하는 학우들에게 혹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심정으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셀 교회 사역을 원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저의 경험담이 조금이나마 어려움을 예방할 수 있는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새로운 유행

아시다시피 셀 사역은 세계 교회 사역의 유행 같은 흐름 속에 한국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는 사실 셀 사역의 시초가 조용기 목사님에 의한 순복음 교회의 성공담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역수입을 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더욱 재미있는 것은 셀 교회는 신약의 초대 교회가 그 모델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성경에 있는 진리가 이제서야 유행처럼 전 세계 교회의 현장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바라보면서 우리

는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인간적이며, 얼마나 크게 그 시대와 사회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잘 들여 다 볼 수 있습니다.

의류의 패션이라는 개념의 유행처럼 교회 사역은 10-20년 정도의 기간을 지나면서 모두가 뛰어드는 사역의 유행으로 전 세계를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주일 예배와 설교만 있어도 부흥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곧 교육의 필요가 대두되어 성경 공부를 강조하는 교육목회의 시대가 뒤를 이었습니다. 머지 않아 단순한 성경 교육으로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실감하며 외곽 선교 단체의 전유물처럼 여겨지던 제자 훈련이 교회에 도입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소 그룹의 세팅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가장 건강한 신앙이며, 무엇보다도 공동체의 회복에 대한 욕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움직임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움직임이며, 그 결과 어떤 카리스마적인 지도자 한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지구촌 이곳 저곳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셀 교회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셀 사역은 건강한 교회를 꿈꾸는 진지한 사역자들에게는, 거스릴 수 없는 이 시대 목회의 화두이며 도도히 흐르는 사역의 물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셀 목회 사역의 실태

한국의 지구촌 교회 이동원 목사는 셀 목회를 추구하는 진정한 이유에 대해서 네 가지 사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현대인들에게 교회를 영적인 집으로 되돌려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유는, 종교개혁의 이상인 만인제사장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입니다.
셋째 이유는, 초대교회적 코이노니아의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마지막 이유는, 주님의 지상명령의 온전한 성취를 위해서 입니다.

여기에서는 위의 내용들에 대해 자세한 접근은 피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이유가 아니라, 놀라운 번식력에 의한 교회 성장의 관심으로 셀 목회 사역에 뛰어드는 목회자와 교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 현실적인 이유의 지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를 토대로 한 목장 교회 사역은 대부분 실패한다는 지적도 익히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또 한가지 한국 교회에서 셀 목회 도입의 문제점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서구 교회들은 한국 교회와 달리 대개 구역 제도가 없습니다. 그런 교회에서 셀 목회를 위해 초기적 형태로 5 x 5 시스템이니 이드로 시스템이니 하는 것을 얘기하다가 랄프 네이버 방식의 셀 사역이니 G12 방식 같은 것을 논하는 것은 좋은데, 한국 교회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다 보면 사역자들이 혼란스러워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는 거의 예외 없이 교구 제도 혹은 구역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교구 제도와 구역 예배 시스템에 익숙해 있는 한국 교회를 어떻게 셀 교회로 전환하게 할 것인가를 인식하고 교육하고 훈련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는 이제 겨우 성경공부제도나 제자훈련시스템이 자리잡아가는 형태에서 셀 목회를 논하다보니, 셀 사역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는데 본질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셀 사역은 사실 목회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인데, 과거의 패러다임 속에서 셀 목회를 점진적 개선 정도로 접근하기 때문에, 선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고생만 하다가 실망하거나 포기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셀 교회로의 전환을 위한 제안

이러한 실정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본질을 추구하면서 셀 목회를 원한다면 먼저 목회자부터 사역의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교회관, 나의 목회관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상한 새로운 교회관을 가지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참으로 신약의 이상인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고, 종교 개혁의 기치였던 만인제사장 사역 곧 모든 성도들이 사역자로 일하는 교회를 실제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을 하고서도 어려운 현실상의 어려움은 아직 가보지 않은 세계이기 때문에 무엇을 얼마만큼 바꾸어야 하는 것 자체가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정말 변화하고자 하는 목회자 자신의 믿음과 의지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변화든 조직의 변화든, 궁극적으로 깊은 변화는 내면의 힘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어떤 이유가 되었든 그릇된 목적을 추구할 경우에는 모든 것이 어그러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내적인 추진력과 생명력을 잃게될 뿐 아니라 형식적인 겉모양만 지니게 된다. 아울러, 에네지도 고갈되고 일의 기쁨도 사라진다. 그러면서 서서히 죽어간다" (로버트 퀸).

변화는 어렵습니다. 서서히 죽어가며 실패를 맞이할 높은 확률을 안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것은 내면의 강한 힘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설득하고, 동기부여하며,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확신과 에너지를 자가 발전으로 공급 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한다고 봅니다. 이것이 제일 어려운 것입니다. 결국 리더의 영향력이며 리더십 발휘의 정도에 그 승패가 달여 있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발견한 대로 목회자 버금가는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우고, 지속적으로 세워주는 작업입니다. 이것이 준비 되어 있지 않다면 시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진행 하면서 세워가지 하고 생각하면 그 목회자는 대단한 값 지불을 하게 될 것입니다. 셀 사역에 앞서 목양과 가르침을 건강하게 소화해 나아가는 제자상을 확립해 주고, 실제적인 제자들을 세우는 작업이 먼저 선결 되어야 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발견한 어려움들은 이러한 것 들입니다.

1. 인식은 새롭지만 행동은 구식입니다.

평신도 사역자로서의 입지는 새롭게 해 주었지만 그 역량이 인식의 변화만으로 창조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인 제사장설을 주장하지만 제사 드리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한 영혼을 소중히 생각하고, 훈련시킬 수 있고, 사랑해 줄 수 있는 든든한 제자를 키워야지만 셀 사역을 시작할 목자가 준비 되는 것입니다.

2. 성령님께 민감하고 순종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목장 사역은 교실에서 훈련으로 탄생한 지도자들의 역량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내용이 많습니다. 공식처럼 주입과 산출이 정확히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상황들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지도자에게 필요합니다. 지도자의 영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성령님의 인도 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지혜로운 처방을 내릴 줄 아는 지도자의 영력이 필요합니다.

3. 목회자가 자가 발전을 통해 목자들을 공급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은 목회자와 평신도 동일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 건물에서만 진행되던 일주일 가운데 일회성 사역이 아니라 한 주간 내내 진행되는 사역이기 때문에 목자들은 쉽게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목자들을 영적으로 공급해 주고 불타는 동기 부여를 끊임 없이 새롭게 불어넣어 주어야 합니다.

4. 모든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충분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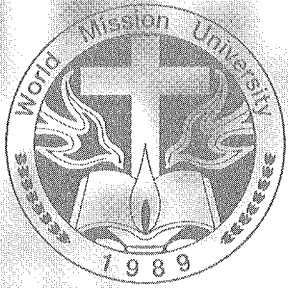
미국 교회에서 성공한 것이 한국 정서에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과서라고 불려지는 책이 제공하는 방법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두가지 면에서의 정보를 충분히 갖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외부적인 정보 입니다. 셀 사역의 응용성을 높이기 위한 기본적인 셀 사역의 방법과 성공 사례의 정보를 말합니다. 또 하나는 내부적인 정보로서 목장에 속하게 되는 모든 성도들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목장 편성부터 시작하여 진행 과정 중에 한 개인의 정보가 미흡하여 운영에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목자의 속 마음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 그 목장이 망가지고 있는 것을 담당 목회자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적합한 나름대로의 옷을 맞추어 입기 위해서는 우리 구성원들에 대한 정보에 목회자와 목자들이 원하게 들여 다 보고 있어야 합니다. 편성을 시작하기 전부터 말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셀 사역을 벗어나서라도 목회의 필수 요소이기에 그 중요성을 더욱 절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5. 전체 예배를 축제 예배로서 목장과의 균형을 살려야 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목장 사역은 쉬워 보이지만 정착이 될 때까지는 목자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워 합니다. 이것을 힘있게 밀어주는 도움의 장이 축제 예배가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한 주간 힘이 들었지만 축제의 분위기로 드려지는 전체 예배에서 쉼을 얻고 다시 동기부여를 받고 새롭게 시작해 나아갈 수 있는 용광로와 같은 뜨거운 예배가 살아 있어야 합니다. 이 내용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도 큰 숙제가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주일 예배와 조금은 다르게 그 형식과 내용을 만들어 가고, 매주 목장 사역의 가치를 부각 시키며 응원을 해 줄 수 있는가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목장을 칭찬해 주고, 가끔식 목장 경연 대회를 여는 것이 좋은 효과를 갖아다 줍니다. 무엇보다 찬양과 설교, 기도를 통해 성령님이 전체를 붙잡아 주시는 은혜로운 예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목장과 전체 예배를 셀 사역의 두 날개라고 비유하는 것 처럼 전체 예배의 진지함과 뜨거운 열정이 목장 사역의 성공 여부에 크게 기여한다는 의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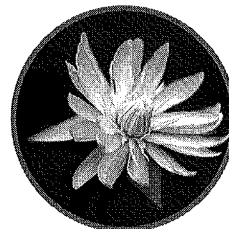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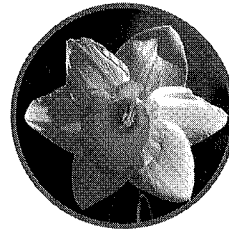
6. 전도를 통한 증식의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목표가 없으면 과정이 힘을 잃어가고, 의미를 상실해 가기 때문에 그 목장은 겨우 모임을 유지하기 바쁩니다. 오히려 이전의 패러다임, 시스템을 그리워 할 수도 있습니다. 목표는 목장 사역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자각 시키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마땅한 이유와 그에 따른 행동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요구하지 않으면 데려오지 않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5가지의 내용이 잘 진행되고 있어야 합니다. 특별하고 유익이 있다는 확신이 없다면 내 친구를 데리고 올 자신이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목표를 보여주고 끌고 가는 것은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것을 통해 그 지도자는 자신의 리더십을 평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은사의 기도력도 있지만 이것처럼 강력한 리더십은 없다고 봅니다. 이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리더십-

새로운 셀 사역을 통한 복음의 전파와 새로운 영혼의 탄생을 우리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더불어 초대 교회의 공동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시대에도 체험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물질/황금 만연 주의가 의식과 가치를 점령하고 있는 이 시대는 이 사역의 현장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역은 어느 시대, 어느 방법 보다 더 가능성을 인정 받고 있습니다. 결국 살펴 본바 대로 성공의 열쇠는 리더십에 있습니다.

리더의 영성과 힘이 목장의 건강을 좌지우지 합니다. 한 명의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이 모든 성도의 의무라면 그 다음 단계에 대한 부분도 동일한 의무로 첨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새 신자가 강력한 리더로 세워지는 그 순간 까지의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부분이 건강한 교회 풍토에서는 셀 사역은 매우 쉽게 소화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자 훈련을 통해 양성된 리더가 그 리더십을 발휘하고 키워 가는 데에 목장 같이 좋은 현장은 없다고 감히 단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셀 사역을 통해 비상하는 초대 교회의 재현을 꿈꾸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통해 다른 제자들이 양성되면 셀 사역에 대한 그 성공의 가능성을 높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목자들과 함께 셀 사역에 제대로 들어가게 된다면 아직도 이 시대에 초대 교회의 신선한 충격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생생한 체험을 여러분이 이루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어 셀 사역을 통해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해 가는 월드미션 학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래의 사역의 현장이 목장과 축제 예배의 두 날개를 달고 힘차게 비상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순간 순간으로 채워져 가시기를 기원합니다.

박재민 (M. Div.)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의 삶

하루가 멀다하고 들려오는 전쟁의 위협, 한국의 정치적, 경제적 위기상황에 이제는 따분해서 남의 일과 같이 느껴지는가? 자연스럽게 텔레비전의 채널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되는가?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에서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란 전 세계 인류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조망하는 가운데 삶의 목표와 방향을 정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다.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미국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지구 반대편에 살고 있는 민족의 위기를 바라보며, 더 나아가서 전쟁의 국면에 직면하고 있는 세계 여러 나라의 위기 상황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다면 전쟁 중인 세계를 위해, 위기 상황에 놓여있는 한국을 위해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으로 효과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원리적인 것과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자.

우리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 중보기도 하는 근본적인 동기는 하나님의 명성과 영광에 대한 우리의 간절함이어야 한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시고 모세를 중심으로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돌렸던 모세의 중보기도의 동기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에 의해 업신여김을 받을까봐 안타까운 심정으로 드렸던 기도다. 민족과 국가 그리고 열방이 회복될 때 교회가 살며, 교회가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나타난다.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 뿐만 아니라 성품에 참여하는 삶을 살 때 보다 현실적으로 기도할 수 있다. 긍휼의 하나님을 따라 긍휼한 삶을 살아갈 때 고통 가운데 놓여있는 현실을 온 가슴으로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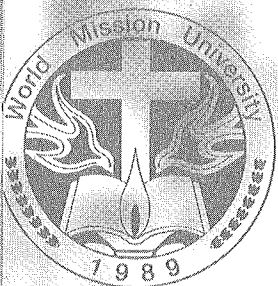
실제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열방을 위한 기도자의 삶을 살 수 없을까? 열방을 위한 기도는 사역자, 중보 기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열방을 위한 기도는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매일 받아보는 신문, 들려오는 뉴스를 통해 세계 구석구석에서 벌어지는 사건, 사고를 접할 수 있다. 이런 사건, 사고를 접할 때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벌어진 현장을 묵상하면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직면하게 될 고통을 느껴보라.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보라.

상황에 따라 매일 기도할 수 있다. 그렇지 못하더라도 특정한 날을 잡아 예를 들면 주일 저녁시간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시간으로 정해두고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할 수 있을 것이다.

동독과 서독을 갈라놓았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던 날 온 세계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동독과 서독의 시민들이 서로 손을 잡던 장면을 보며 감격했던 때를 기억한다. 그 눈물 뒤에 동독과 서독의 통일을 위해 기도했던 전 세계 중보자들이 있었음을 또한 기억한다. 우리의 기도는 갈라진 틈을 메꾸며, 무너진 장벽을 세운다. 다 같이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의 대열에 함께 참여하자.

참고자료

1. 송인규,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서울:한국기독학생회출판부, 1992.
2. *빛과 소금* 243호 3월 1일자, 2003년

김수현 (B.A.)

"땀은 흘러도 기쁨은 샘물처럼" -독후감-

고난의 연속이었던 사도 바울 처럼 임 동선 목사님의 목회자로서의 삶도 고난의 연속이었음을 보게 되었다. 그러면서도 목사님은 사도 바울의 간증 처럼 기뻐하고 기뻐하신 목회자의 삶을 사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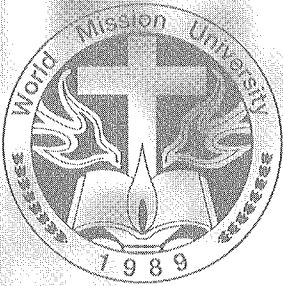
임 동선 목사님의 저서 "땀은 흘러도 기쁨은 샘물처럼" 을 나는 두 번 읽었다. 몇 년 전에 읽었을 때는 그냥 목사님의 삶의 이야기를 흥미 있게 읽었다. 간결하고 이해하기 쉬운 글이 였다고 느꼈었다. 그러나 이 번에 읽었을 때는 참으로 살아서 순교 한다는 게 바로 이러한 삶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건 목사님의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땐 평신도의 위치에서 읽었기에 마음이 가벼웠었고 지금은 신학교를 다니며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선택 하였기에 목회의 선배 되시는 임 동선 목사님의 간증을 읽으며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삶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결코 쉬운 길도 아니었으며 타협할 수 있는 삶도 아님을 배우게 되었다. 목사님은 입신동기에서 사도 바울에 대하여 먼저 쓰시면서 옥중에서도 기뻐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사도 바울의 인생관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쓰셨다. 목사님의 책을 다 읽고 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먼저 쓰셨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고난의 연속이었던 사도 바울 처럼 임 동선 목사님의 목회자로서의 삶도 고난의 연속이었음을 보게 되었다. 그러면서도 목사님은 사도 바울의 간증 처럼 기뻐하고 기뻐하신 목회자의 삶을 사셨다.

임 동선 목사님은 "김 구, 이승만 타도"를 반대 하다가 해방 이듬해인 1946년 진남포에서 투옥되었고 사형 선고를 받았다. 임 목사님은 광복되어 동족의 손에 죽게 되는 것이 억울하였고 살아야 되겠다는 삶의 욕망이 솟구쳤다. 그래서 전도사였던 넷째 형님께 들었던 하나님께 살려주신다면 형님과 같이 신학을 공부 하여 형님과 같이 일하겠다고 기도했다. 그때 임 동선 목사님은 "안심하라, 죽지 않는다. 너는 나의 일꾼이 될 것이다."라는 음성을 듣게 되시고 박 성환씨라는 분에 의해 기적적으로 살게 되시고 남한으로 넘어 오시게 되었다. 남한에 내려와 서울 신학교에 입학 하시고 지게꾼으로 일하시며 고학을 하셨다. 목사님의 성령 체험은 강원도 오대산에 있는 상원사라는 사찰에서였다. 기숙사에 같이 있던 신학생들과 함께 6일간의 금식 기도를 하시면서 6일째 되는 날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시고 급하면 먹으라고 준 비상식량인 미숫가루를 드셨다. 미숫가루를 훔쳐 먹은 것에 양심의 가책을 받으시고 회개 하시고 더욱 열심히 기도하셨다. 그날 밤 기도를 하는데 온 방에 불이 가득하고 그 불이 힘있게 움직이며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았다. 불 속에서 한밤을 보냈지만 옷도 타지 않고 살도 타지 않았다. 그날의 불의 환상은 임 목사님의 33년 동안의 목회와 전도하시는 일에 힘이 되었다. 그리고 두 번째 천당과 지옥을 보는 환상을 보시고 신앙생활이 분명해지는 전환점을 갖게 되었다.

1948년 1월 9일 임 목사님은 신학교 기숙사에서 함께 방을 쓰게 된 황 재열 목사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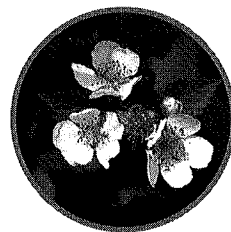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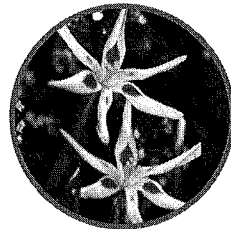
과 모친 되시는 장 갑성 권사님의 중매로 황 재열 목사님의 누이와 결혼식을 올린다. 1949년 6월 15일 임 목사님은 여주읍성결교회의 청빙을 받고 부임 하게 되었다. 그 곳에서 목사님은 사귀병에 걸린 한 민수 라는 사람을 기도와 찬양으로 고치고 장티푸스로 죽어가게 된 아이를 위해 기도를 해 주심으로 아이는 죽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일도 있었다. 6.25가 터졌다. 목사님은 가족과의 피난과 이별, 재회 그리고 서울 수복 후 중공군들에 의해 다시 피난길에 오르면서 늙은 할아버지와 할머니 약간의 중년층들과 부녀자와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남쪽으로 피난 하셨다. 1954년 2월 군대 소집장이 나왔다. 공군본부로부터 성결교단에서 공군 군목 요원으로 추천 되었다. 1954년 5월 15일 대전 항공병학교에 입대하였다. 훈련을 받고 공부하여 공군 장교가 되였다. 그리고 성지 사천비행장으로 배속 되었다. 극장을 임시교회로 삼고 극장 뒤 공터에 천막을 치고 그곳을 군목실로 쓰시면서 주일 예배를 인도하시는 것 외에 천막소에서 기도, 미 공군 체스닡 상사의 영어성경공부, 도의 강연, 사상무장, 개인 상담, 감방 심방, 병원 심방, 내무반 심방, 구제사업, 대민 봉사, 특별 집회 등으로 헌신하여 부흥되게 하였다. 1957년9월 1일 공군본부로 명령을 받아 서울로 발령을 받으시고 그 후 1958년 8월 2일 미 공군본부 군종감 피니겐 소장의 배려로 미국 유학을 가게 되었다.

텍사스에 있는 산 안토니오 랙트랜드 공군기지 군목학교에 공부하러 가게 된 것이다. 3개월의 영어 학교를 마치고 군목학교에 입학 하고 졸업 하시고 한국으로 나가셨다가 다시 1965년 미국으로 유학 오셨다. 낮에는 인쇄소에서 일하시고 밤에는 영어 학원에서 영어 공부를 하셨다. 1967년 영주권을 받으시고 가족을 초청하였다. 사모님의 강권으로 코비나에 있는 북침례교 신학교에 입학 하시고 1970년 6월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석사학위를 수여 받았다. 그리고 그 해 7월 29일 '선교, 교육, 봉사를 목적으로 하고 동양선교교회를 16명의 어른과 15명의 어린이가 모여 목사님의 집에서 시작하셨다. 첫 헌금 4백 달러를 한국 농어촌교회에 헌금하였다. 그리고 지금은 어른 3000명이 모이는 동양선교교회가 되었다.

임 동선 목사님의 신앙 간증을 읽으면서 이럴 때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생각하며 읽은 부분들이 있다. 첫째는 신학교에 다니시면서 지게꾼으로 돈을 버실 때 돈벌이가 없어 밥 사먹을 돈이 없어 나흘을 굶으셨을 때 "언젠가 나에게 밥 한 그릇이 생긴다면 밥부터 먹고 보자! 기도는 나중에 해야지"라고 생각 하셨다고 한다. 그때 굶으시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밀 밥을 주셨을 때 너무 감사 해서 30분을 눈물로 감사 하셨다는 것을 읽고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잠시 생각해 보았다. 한 끼를 굶어도 힘들어 하는 내가 나흘을 굶고 얻은 밥을 가지고 30분씩이나 감사 기도 할 수 있을까?하는 생각을 하니,나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 아마 간단한 감사 식 기도를 하고 밥을 먹지는 않을까? 라고 생각 해보았다. 두 번째는 6.25전쟁 피난 때 노인과 어린아이들 중년 여자들을 데리고 힘들어서 그들을 떼어 놓고 남하 해야겠다는 생각과 선한 목자는 아흔아홉 마리의 양보다 한 마리의 양을 찾아야 하고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갈등하시다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들을 데리고 피난길을 계속 하셨다는 글에서였다. 특히 남의 짐을 지고 가시면서 사모님을 보시고 여필종부 하신다고 쓰셨는데 그때 미안한 마음을 금할 수 없으셨다고 하셨다. 나라면, 나 하나도 목숨을 부지 하기 위해선 조심해야 할 전쟁중에서 아내와 어린 아들까지 있는 상황에 힘 없는 그들을 끝까지 책임 질 수 있을까? 생각 해보았다. 난 여기서 하나님의 종이 된 삶이란 결코 쉬운 길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였다. 세 번째는 미국 유학을 끝마치고 돌아와 대령으로 군목에 계실 때 일부 군목들이 합작하여 목사님을 몰아 내기 위하여 괴롭힌 것이다. 나라면 나보다 계급이 낮은 그들의

행동에 어떻게 했을까? 생각 해보았다. 당연히 서열이 있는 군대에서 나의 직위를 내세워 그들을 징계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보았다. 특히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들의 비상식적인 행동에 나는 분노까지 일었다.

목사님을 몰아내기 위하여 합작한 군목들 중에 k라는 군목이 "임 목사님! 길에서 강도를 만나면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라는 말에 임 목사님은 그들이 강도라면 공군에 있는 수 많은 영혼을 그 강도들에게 맡길 수 없다라고 말씀 하셨다는 것을 읽고 하나님의 종은 상황에 따라 타협 할 수 있는 것도 아님을 깨달았다.

임 동선 목사님께선 이 성봉 목사님께 받은 감화, 강사 사례비로 받은 돈으로 신학생들에게 곰국을 먹게 하여주신 아름다운 마음씨를 본받아 실천 하셨다는 것을 읽고 나 자신도 선배 목사님들의 아름다운 마음씨는 물론이요 본이 되는 하나님의 종 되는 삶을 본 받아 살아 가야 되겠다는 결심을 해본다.

임 동선 목사님의 신학교 시절의 은사이신 이 명직 목산님의 말씀. "형제들아 앞으로 목사가 되면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거지 발싸개 대접을 받게 되지만 믿는 성도들에게는 왕 대접을 받을 것입니다" 라는 말씀은 쉬운 길도 아닌 타협 할 수도 없는 길에 있게 될 나에게 위로를 준다. 임 동선 목사님은 그것이 사실이라고 쓰셨다.

김은자 (B.A.)

창세기 1:27, 3:1~6 말씀 묵상 소감

성경은 예수님을 둘째 아담으로 부르고 있는 것인가? 그런 상태의 사람이 나의 조상 아담이었다면 나는 아담을 닮았어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 왜 흠 투성이 이며 점투성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하나님의 이 위대한 일이 나에게 연결이 되고 있음을 생각한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 하심의 손길이 나에게 연결된다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동일성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동질성은 무엇인가? 사랑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인 성품일 것이다. 그러면 미움과 슬픔과 불화와 조급함과 편협과 인색과 불충성과 조급함과 무절제함은 없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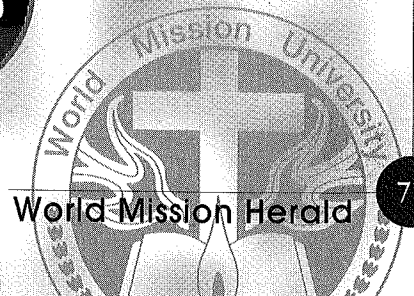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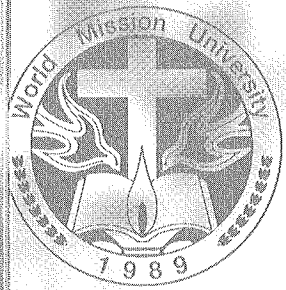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으셨다는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좋은 점만 있었던 것 같다. 정말 한 점도 흠도 없는 깨끗하신 하나님 형상대로의 인간 그는 어쩌면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둘째 아담으로 부르고 있는 것인가? 그런 상태의 사람이 나의 조상 아담이었다면 나는 아담을 닮았어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 왜 흠 투성이 이며 점투성인가?

창 3:16의 말씀은 뱀인 마귀의 궤계에 속은 우리조산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점과 흠투성이 된 우리조상 때문에 나도 점과 흠 아래 태어난 것이라는 생각이 불현듯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처음 만드신 아담처럼 잃어버린 나를 찾아야겠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야겠다.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그 의도대로 그 목적에 부합한 나를 회복해야겠다. 그 길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늘 모시고 사는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닮고자 하나 내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갈등이 있다는 사실이다.

나의 본향인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이 목적이지만 현실은 그 길을 가는 과정의 절규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인미 (B.A.)

녹로 앞에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녹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 손에서 파상하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견의 선한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렘 18:3-4)

비췻
물빛
살결고운
청자이고 싶습니다

하늘을
헹구어낸
젓빛
백자이고 싶습니다

불의와
불법의 함성
목이 타실 때

쉼물
한잔
담을 수 있는
흙빛
찻잔이고 싶습니다

살고 질수록
살고 질수록…

초벌구이
황토빛
질항아리 일지라도

주의 가마속온도
그대로 간직한
숨쉬는 도기이고 싶습니다…

김영애 (B.A.)

행복한 자 되었습니다.

"주 여호와 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 줄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시사 학자같이 알아 듣게 하시도다"

월드 미션 대학교에 입학한지 벌써 두학기째 학기말이 되었다.

이사를 온 후, 동네를 산책하다가 만난 임동선 목사님께 인사 드리면서 죄 지은 사람처럼 "이 나이에 목사님 학교에서 공부하게 됐습니다" 하였을 때 "공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배우는거죠 잘하셨습니다" 라고 하셔서 힘을 얻었다.

그러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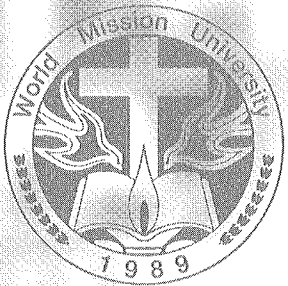
첫 강의 시간부터 REPORT는 몇월 몇일 까지, 시험은 언제, 또 발표 할 과제 등 40여 년만에 책상에 앉은 나를 경악케 하였다. 특히 AABC 가입을 위해 학생들의 학업 수준을 높이시려는 교수님들은 어떻게 하면 많은 부담감을 갖고 공부 할 수 있게 할까 작정하시며 벼르는 학기 같았다.

특히 두께가 3cm는 족히 되는 선교학 교제를(Mission Perspectives) 사서 보니 그 두께와 책의 넓이와 길이와 무게에만도 질릴 지경이었다. 그러나 선교에 관심이 있던 터에 가장 친근감이 있는 제목만 보고 (남은 과업 ,미전도 종족) 발표를 맡은 것이 내게 치명적인 실수였다. 그 중에서도 제일 긴 페이지였던 것이다. 집에 오면 다른 것도 못하고 그 책을 들여다 보는데, 웬 선교 용어들이 그렇게나 복잡한지 40여년 동안 녹이 슬대로 슬은 머리는 절대로 돌아갈 생각이 없는 것 같았다. 보다가 집어 던지며 왜 이렇게 어려운 용어들을 써야 되나 불평 하면서 그래도 또 끌어다 들여다 보았다. 그러다 드디어 병이나고 말았다 ……

젊었을 때부터 그렇게 신학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나 도저히 포기 해야지 못 할 것 같애"

나의 중보 기도자로 나를 위해 생명과 같이 늘 기도하며 "권사님, 공부하시면 너무 좋을 거예요" 하며 나를 이 학교에 인도 한, 딸 같은 자매에게 심각하게 말 할 때,

"권사님 학교 숙제 한다고 기도와 말씀묵상을 게을리 하시면 점점 더 어려워 져서 아무것도 안돼요. 먼저 기도와 말씀묵상을 집중 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 속에 모든 답이 다 들어 있어요. 그렇게 해야 할수 있어요"

그 조용한 말이 내 마음에 그대로 접목되어, 나는 다시 용기를 얻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때부터 할 일이 아무리 많고 피곤해도 숙제는 없는 사람같이 뒤로 잘 놔두고 새벽을 드리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 시작 했다.

모든 묵상 속에서 결국은 말씀이 하나로 연결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구약개론 강의를 들으면서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였고, 선교학 강의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교를 시작하셨는지에 대해 창세기부터 말씀 묵상을 하였다. 성서 해석학에서 성서 해석의 원리들을 배우면서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혼자만의 기쁨 속으로 들어가는 경험을 하였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령님께 거듭거듭 도와 주심을 간구하며 깨닫는 지혜를 구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어느때부터 보아도 깨닫지 못하던 책의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지고 교수님의 강의가 나에게 꿀같이 달게 느껴지며 싫게만 느껴지던 그 어려운 용어들이 이해가 되었다. 선교학 교수님께서 "나는 이 선교 책자를 보고 얼마나 감명 깊었는지 몰라요 가슴이 막 두근 거렸어요" 하셨던 말씀이 이해가 되어질 뿐 아니라 이번 학기에 처음 한국어로 번역 되어진 (MissionPerspectives) (예수전도단) 것을 공부 하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 한지 모른다. 또 책자를 만들기 위해 앞서 가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님들의 집중이 아름답게 내 가슴에 절절하여 가슴에 뜨거운 불을 담은듯 했다.

그리고 기도할 때 ….강의 시간에 멍청하게 들었던 아리송한 교수님의 강의가 다시 정리가 되어져 깜짝 놀라며 정신을 차리고 다시 생각해 보고 묵상하고 하면서, 마음으로 말할 수 없는 기쁨의 순간들을 체험하게 되었다. 물론 발표도 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발표 후에 교수님께서 "사실 권사님이 너무 어려운 것을 맡으셔서 하실 수 있을까 염려가 되었는데 책을 볼 때보다 더 쉽게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라고 격려해 주실 때 나혼자 고통하며 끙끙거리며 앓던 기억들이 내게는 오히려 소중한 것으로 남게 되었다.

항상 선교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젼을 안고 고심했던 막연하던 것들이 구체적으로 알아 지면서 내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을 느낀다. 또 새벽에 말씀 하시는 목사님의 설교 말씀 속에서 내가 알아야 할 구체적인 해답들을 받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계획에 너무나도 행복한 자 되어 하늘을 훨훨 나는 듯 하다.

교수님들의 귀함은…. 마치 하나님의 소중한 보물들을 하나하나 케어내어 그것을, 늦은 시간에 국밥 한 그릇을 너무도 소중하고 감사해 하면서 먹으며 피곤한 몸으로 하나님을 바로 알아 가기를 원하는 사명자들에게, 안타까움으로 하나라도 더 던져 주시려는 그 마음을 그 분들의 감추시는 웃음 속에서 느끼며 감사한다.

특히 학문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았다. 구약의 모세 오경을 배우고 난 후 하나님이 어떤 성품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는지,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그 성품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이 어떤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다가 오셨는지, 구체적으로 알았다. 세상 끝날까지 그 성품으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을 알고 나니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에 감격 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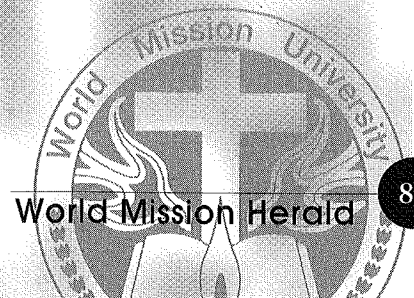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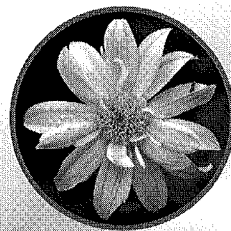
또 때를 따라 사람을 키우시며, 있어야 할 자리에 두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동양 선교 교회로 인도하심에 감사 드린다. 새벽을 깨우는 목회자, 아픔의 체험들을 통해 아파하

는 자를 어루만지시기 위해 매 순간마다 아팠던 상처들을 보이시기에, 건강할 여유 조차 없으신 분, 만남의 축복에 가슴이 저민다.

나의 발걸음을 배움의 길로 인도 해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World Mission University가 있기까지 물질로 기도로 봉사로 지원하신 모든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주 여호와 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 줄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시사 학자같이 알아 듣게 하시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 하시며 이스라엘의 바위가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자,하나님을 경외 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 저는 돋는해 아침 빛 같고 구름없는 아침같고 비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홍표란 (M. Div.)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은 우리가 그분 안에 사는 것이다. 그 분 안에 산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지속적인 깊은 교제와 그 분의 통치하시는 역사 속에서 매순간 만날 수 있어야 하며, 그 안에서 온전한 순종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참 제자의 삶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곳이면 어디든지 하나님 나라인 것이다. 즉, 하나님의 영역으로 다스려지는 곳이면 어디든지 하나님 나라인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예수님 자신을 통하여 인간에게 임했다고 선포 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안과 기쁨이 충만한 곳이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다스리심을 받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과 삶 속에서도 나타낼 수 있다. 성령이 충만히 임한 곳에,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사랑을 실천하는 곳에, 내적인 평안과 기쁨이 충만한 곳에, 정직과 진실이 있는 곳에, 선하고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면, 어디든지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성령에 의해 다스림을 받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있는 것이다.

우리는 또 우주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살아 움직임을 본다. 달라스 윌라드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 충만한 세상이라고 말한다

>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마음이나 인간 의식의 "내면" 세계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공개적, 행동적, 가시적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될 수 있는 내적 태도나 믿음의 문제가 결코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물리적 우주 전체에 편만 해 그 전체를 통치하신다"

윌라드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의 현재성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민에게 활짝 열려있다고 말한다.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는 예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하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환경과, 우리의 삶을 통해 그 분의 삶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있다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 믿음만 더해지면, 누구나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고, 그리로 들어가게 되면, 놀라운 새로운 신분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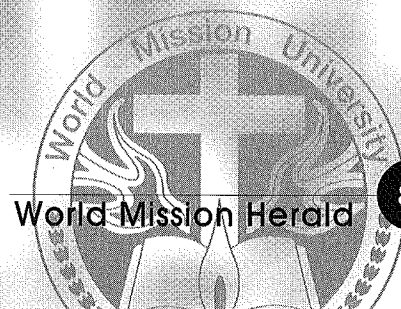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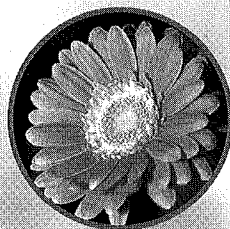
윌라드는 인간이 이러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조건이 될 수 없다고 말한다.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의 교훈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있어서 항상 "현실"과 "지금"을 강조하여 가르치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8복의 가르침도 그 때 당시의 사람들의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아무런 조건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8복 교훈의 조건이 갖추어져야하는 것이 아니라, 즉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들,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보잘것없는 소외되어 있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

이다. 이런 복을 받은 자들은 세상에서 잘난 사람들이 아니라 이렇게 평범한 자들이며 이들이 해야 할 일은 이 땅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달라스 윌라드는 천국 마음의 완성을 아카페 사랑으로 정의한다. "의는 곧 사랑이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 그 자체이시다. 그 완전한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주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한 행동과 습성은 곧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의 자연스러운 천국 마음이라는 것이다.

사람들은 다 각자 자기 개인의 나라를 마음속에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 그 나라를 어떻게 통치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결과를 얻게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성경은 말한다. 달라스 윌라드는 예수 "그분 자신이 바로 그 나라이다", "하나님은 당신과 그 나라를 우리에게 내 주신다". 라고 말한다.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의 평안과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만난다. 그 나라를 불안전한 내가 스스로 다스리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개인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스려질 때 질서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속하게된다. 우리는 이번 이라크 전쟁을 보면서 그 나라의 통치자 한 사람으로 인해 얼마나 큰 영향이 백성들에게 미치고 있는지를 보았다. 내 안에 있는 불안전한 그 나라를 평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로 통치권을 온전히 내어 드릴 때만이 우리는 주님이 약속하신 천국의 평안과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 평화가 없는 곳에 기쁨도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진정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은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만이 맛볼 수 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은 우리가 그분 안에 사는 것이다. 그 분 안에 산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지속적인 깊은 교제와 그 분의 통치하시는 역사 속에서 매순간 만날 수 있어야 하며, 그 안에서 온전한 순종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참 제자의 삶이 되어야 한다.

월드미션대학교 · 신학대학원

World Mission University & Theological Seminary

www.wmu.edu

2003 가을학기 신입생 모집

1. 모집학위 및 모집학과

학위과정	학과/전공	졸업이수학점	연한	지원자격
B.A	성경신학과	126	4	고졸
M.A	신학과	64	2	대졸
M.Div	목회학과	96	3	대졸
유아교육과	교사자격증	15	1학기	고졸
	원장자격증	18		

2. 신입생 입학요강

(1) 지원자격: 중생의 체험이 확실하고 세례를 받은 자로서 선교, 목회또는 기타 세계복음사역에 불타는 소명감이 있는 자 (유아교육과:세례교인으로 어린이를 사랑하는 자)
(2) 원서마감: 2003년 8월 22일 (금) 오후 7시까지
(3) 구비서류: 1) 입학원서(소정양식) 2) 추천서 2통 (소정양식) 3) 사진 3매 4) 최종졸업증명서 5)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6) 개인신앙간증서 7) 건강 진단서
(4) 전형방법: 필기시험 및 면접 (어학시험 및 성경입학시험:성경시험지침, 예제가 준비되어 있음) (단, 유아교육과는 서류심사와 면접)
(5) 시험일자: 2003년 8월 26일(화) 오후 3시- 6시
(6) 장　　소: 필기시험:본교 A강의실, 면접:본교사무실
(7) 원서교부: 본교사무실(동양선교교회 옆 제2교육관)
(8) 신입생 학과등록: 2003년 8월 27일(목) - 28일(금)
(9) 개강부흥회: 2003년 9월 2일(화) - 3일(수)
(10) 개강일자: 2003년 9월 2일(화) (개강주간은 부흥 사경회로 모임)
(11) 신입생 환영 및 교수소개: 2003년 9월 4일(목)

교수 및 강사진

임동선, 강준민, John Mckenna, 김진광, 임성진, 남종성, 신선묵, 김영배, 김성원, 김석웅, 김종경, 김옥자, 김건태, 김찬희, 김유경, 목만수, 박경순, 변명혜, 석태운, 안송주, 안성희, 안용식, 에스더유, 이문장, 이상훈, 이영기, 이정근, 이효숙, 이원우, 이윤주, 이준재, 우상범, 오기열, 윤기성, 임기태, 조종남, 정장복, 정석규, 정종원, 조경현, 조석환, 정지연, 최선호, 편요한, 한기채, 한승수, 황의정, 황마리아나, 허경삼, David J. Agron, Daniel Shaw, Dean Gilliland, Earl Grant, Charles Lane Scott, Van Angen, Paul Hertig, Jerry Horner, Ralph Martin.

문의 및 연락처

월드미션 대학교, 신학 대학원
World Mission University & Theological Seminary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4-2345, Fax. (213)387-1300,
E-mail: info@wmu.edu Website: www.wmu.edu.

본교 장학금 제도

1) 총장장학금 2) 성적장학금 3) 주은장학금 4) 선교장학금 5) 근로장학금 6) 지정장학금 7) 승용장학금 9) 성환장학금 10) 경애장학금 11) 봉모장학금 12) 경혜장학금 13) 건준장학금 14) 진호장학금 15) 동진장학금 16) 북방장학금 17) 에녹장학금 18) 근홍장학금 19) 순자장학금 20) 동순장학금 등이 있으며 또한 동양선교교회의 17개 선교회 장학금 등 각종장학금 혜택이 있습니다.

* 특별히 M.Div. 학과에서 공부하는 학생과 선교사로 헌신하는 학생들에게 우선적인 장학금 혜택을 수여합니다.

원서 교부 및 접수 기간

본교 교무처, 전화 또는 팩스로 연락 주시면 입학원서를 우송하여 드립니다. 사무실 시간은 매주 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입니다.

2003

World Mission University

1989

World Mission University & Theological Seminary

www.wmu.edu